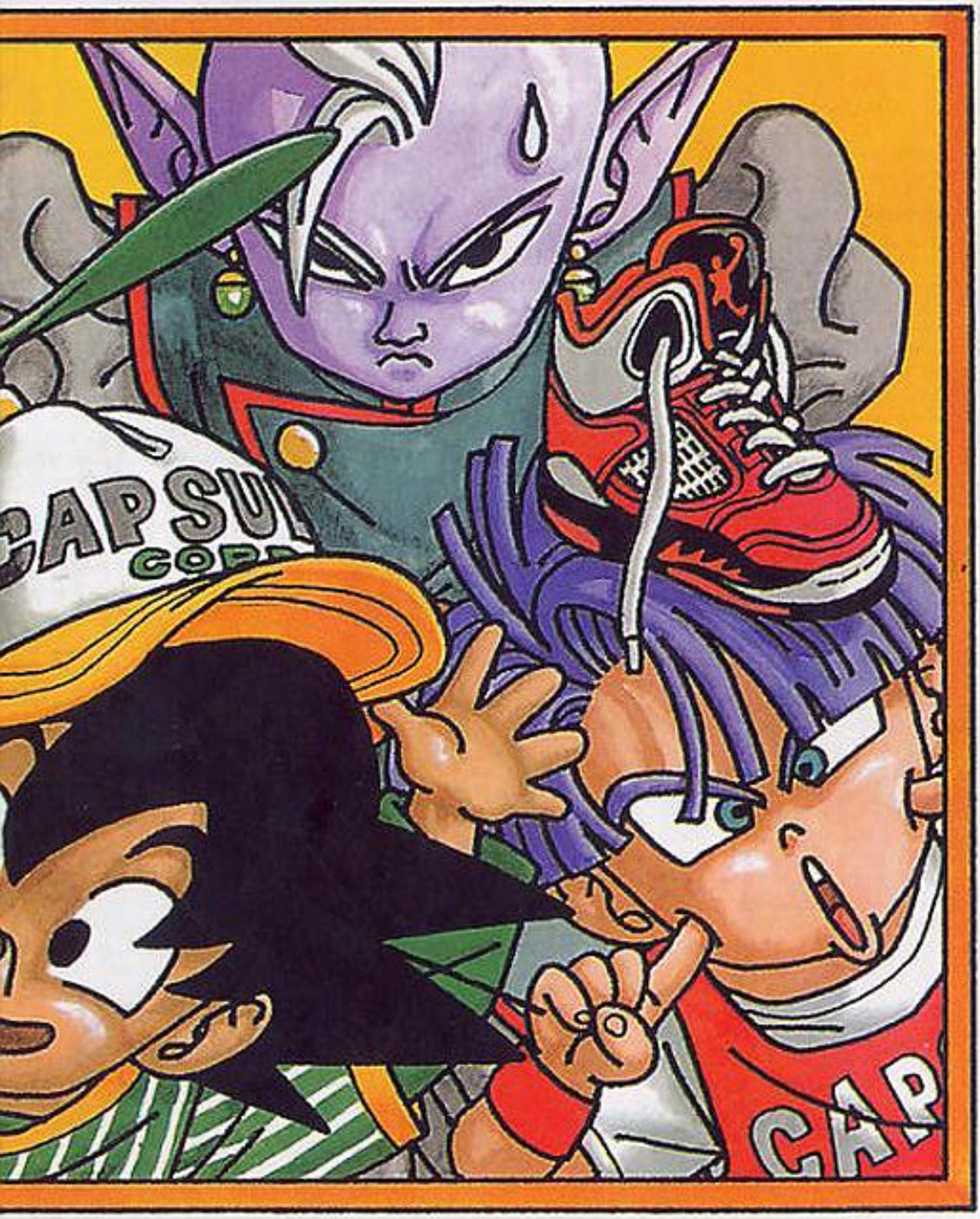
무수정 오리지널 한국어판

DRAGON BALL
드래곤볼

AKIRA TORIYAMA



된 작전

DRAGON B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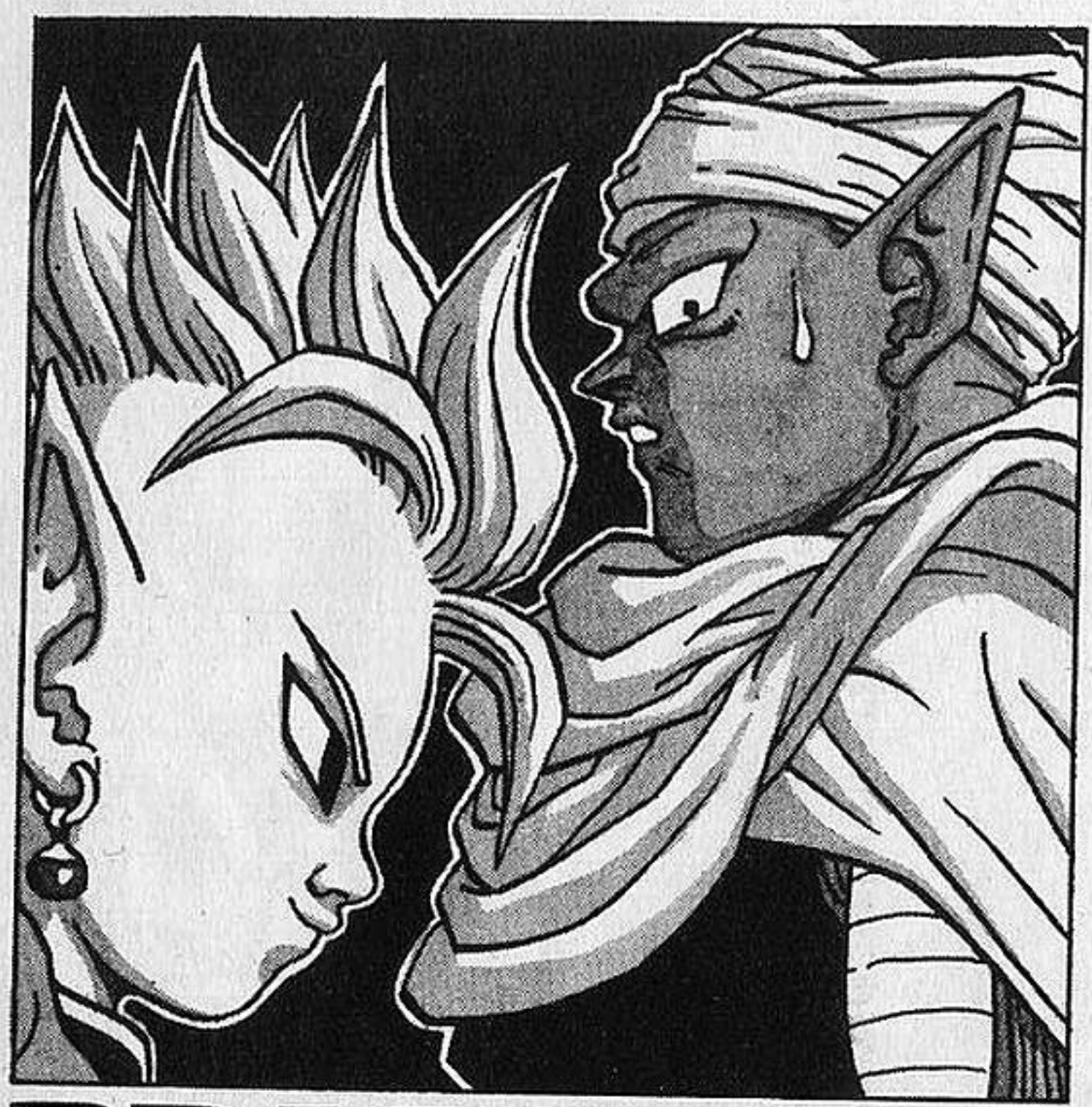
AKIRA TORIYAMA
-토리야마 아키라-

이제 조금만 참으면 따끈따끈 봄이 온다고 하는데, 겨우 지금에 와서 아이가 「스키 타고 싶어!」라는 등의 이야기를 꺼냈다.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나는 추운 건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이 말을 가장 무서워하고 있었다. 일부러 추운 곳에 간다는 건 정말 생각도 하기 싫다…. 뭐, 스포츠는 그다지 싫어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큰 결심을 한번 해보지만. 이 책이 나올 시점에는 분명 감기로 열이 펄펄….

DRAGON BALL 5



37 시작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37편 시작된 작전

AKIRA TORIYAMA

등장인물소개





지난 줄거리

아주 먼 옛날. 7개가 모이면 용신이 나타나 소원을 들어준다는 드래곤 볼을 찾아 여행을 하던 손오공은, 대모험 끝에 모든 구슬을 모은다. 그렇지만 나쁜 곳에 쓰일 뻔했기 때문에, 엉터리 소원을 말해버려 소원을 이룬다. 용신은 한 번 소원을 들어주면 1년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 동안 거북신선 밑에서 수련을 쌓은 오공은, 다시 드래곤 볼을 찾아 여행을 떠나고,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우승을 거둔다. 최강의 육체 "완전체"를 가진 셀과의 전투가 끝난 뒤 몇년 후…. 고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오반은, 미스터 사탄의 딸 비델을 통해서 천하제일 무술대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는다. 오공도 무술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저승에서 단 하루 동안 돌아오게 되었다. 자, 우선은 소년부, 트랭크스와 오공의 아들 오천이 나설 차례다…!?

DRAGON BALL 37

시작된 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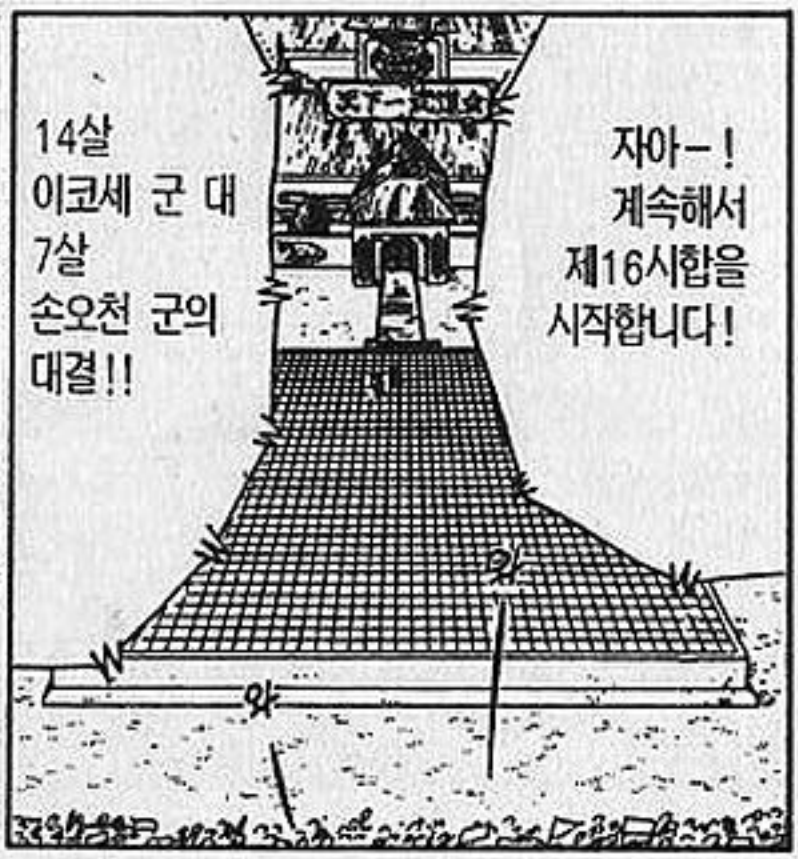
제433화 트랭크스 대 손오천 7
제434화 트랭크스 대 손오천 2(투) 22
제435화 소년부 승자 결정!! 35
제436화 미스터 사탄의 끈기! 49
제437화 이상한 두 사람 64
제438화 대전상대가 결정되다! 77
제439화 크리링과 피콜로의 싸움 93
제440화 뜻밖의 신의 정체 107
제441화 위기에 빠진 비델 121
제442화 오반의 분노 폭발!! 135
제443화 시작된 작전 148
제444화 빼앗긴 에너지!! 163
제445화 가공할 수수께끼 177

DRAGON BALL 드래곤볼

제433화
트랭크스 대 손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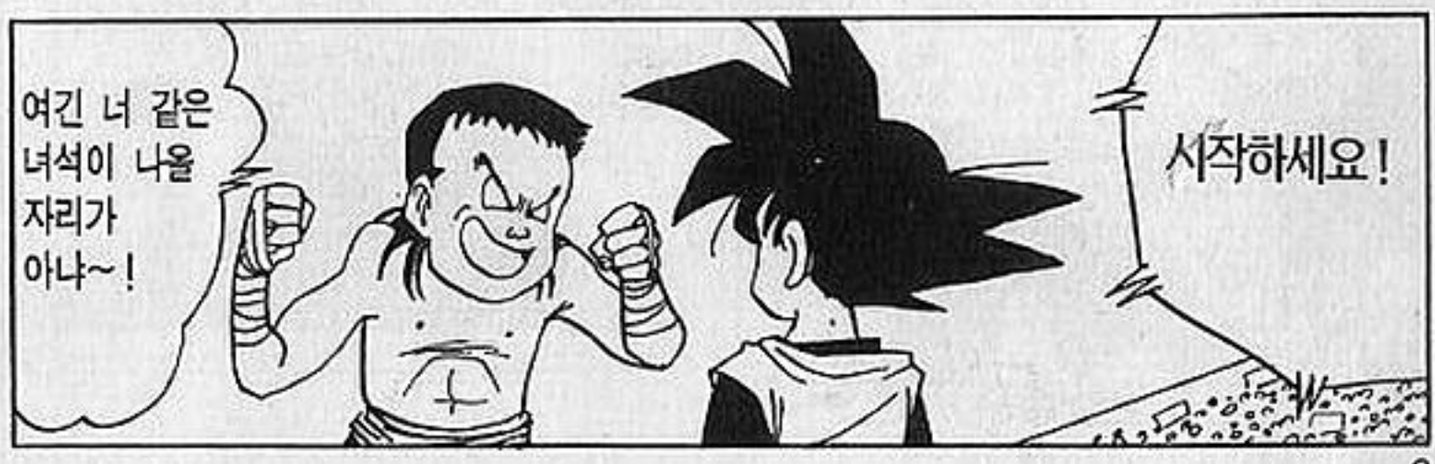

오천!
불쌍해 보이니까
살살 해줘라!
이코세!
형처럼
방심하면
안 돼요-!


이젠
아까 같은
기적은
안 일어
나요!
한 번
혼 좀
나보라고!


어머머~!
아까처럼 또
못생긴 돼지 얼굴이
나왔다 했더니
동생이었네~!
아니…!
또 다시 천한
집안의 꼬마
자식이 우리
고귀한 아들의
상대가 되다니…!
아잉, 정말 싫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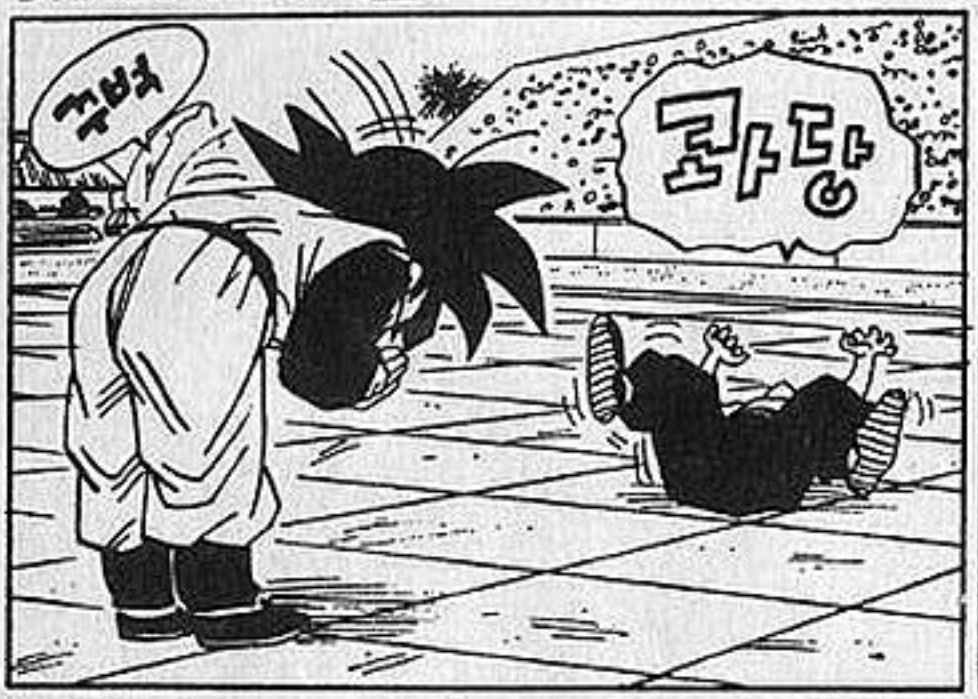

손오천이라…
맞아.
분명 손오공
아들이야.
아니.
저
얼굴은…?
틀림없어!
오공의
어릴 때 모습과
똑같잖아!


헤헤!
이 자식, 관중이
너무 많아서
흥분한 것
같은데….
멍청하게
생겨가지고….
꾸벅


여긴 너 같은
녀석이 나올
자리가
아냐~!
시작하세요!


내 살인 펀치를 받아라!!
타다
휘익
!!
.....
씨익:
오오옷!!
.....
야, 확실히 못해?
맘껏 힘을 써봐!
.....!!


이코세가 드디어 진짜 힘을 쓰네요!
호호호!!
자, 자식. 제법 하는데….
후후… 후음….
하앗!
이제 그만 해.
흐음….
이얍!! 이얍!!
파바밧
터덕
터더덕


꾸벅
쾅당


부들
부들


헤헤헤!!
.....


손오천 군의
승리입니다!
기절!


우와아


이제 좀
조용해졌군.
꽈당..


빠직


도저히
용서
못해!!
끼약
!!


오천이
이겼
구나!
우,
물론
기뻐!


뭐?
왜 그래?
넌 기쁘지
않니?


음....
어머! 오천이
이겼나봐. 대단한데,
14살 짜리를 상대로.

오천과 트랭크스는
상대를 계속 이기고
올라갔고, 당연히
결승전은 두 아이의
싸움이 되었다….

우승

트랭크스

손오천

둘 다 지금까지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며 상대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또한 둘 사이는
아무래도 친구인 것
같습니다!

와 와 와 와

자! 드디어
소년부 결승전입니다!
과연 우승은
트랭크스 군인가,
손오천 군인가!?

어차피 우승한 꼬마랑 한판 붙어야 하니까.

그럼 할 수 없지. 구경 좀 해볼까?

한 번 구경하시는 게 어떨까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뭐라고? 굉장히 강한 어린애 두 명…?

그래!

이제야 겨우 재미있는 시합을 보겠네.

BUH

天下一武道会

와

와

와

저 애들 시합을 보게 돼서 다행이구나.

새 린치머신 준비가 굉장히 늦었나봐.

후우! 오래 기다렸지? 겨우 예선이 끝났어.

그럼 이제
천하제일 무술대회
소년부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꾸벅

꾸벅

오천,
절대
안 봐줄
거야….
조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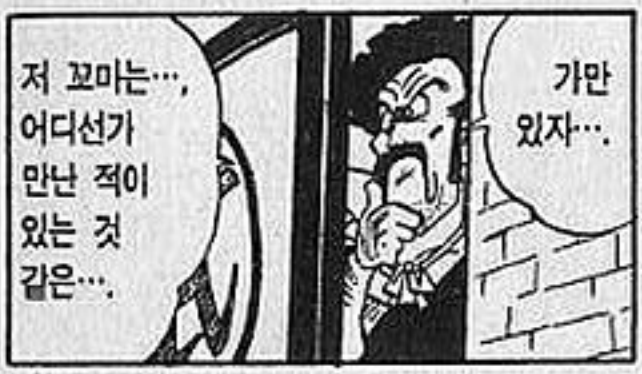
척

척

나도
마찬가지!

응….




저 꼬마는…,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
가만 있자….


아니…?


쟤네 둘이야?
예, 맞습니다.
몸집도 조그만 것들이 용케도 이겼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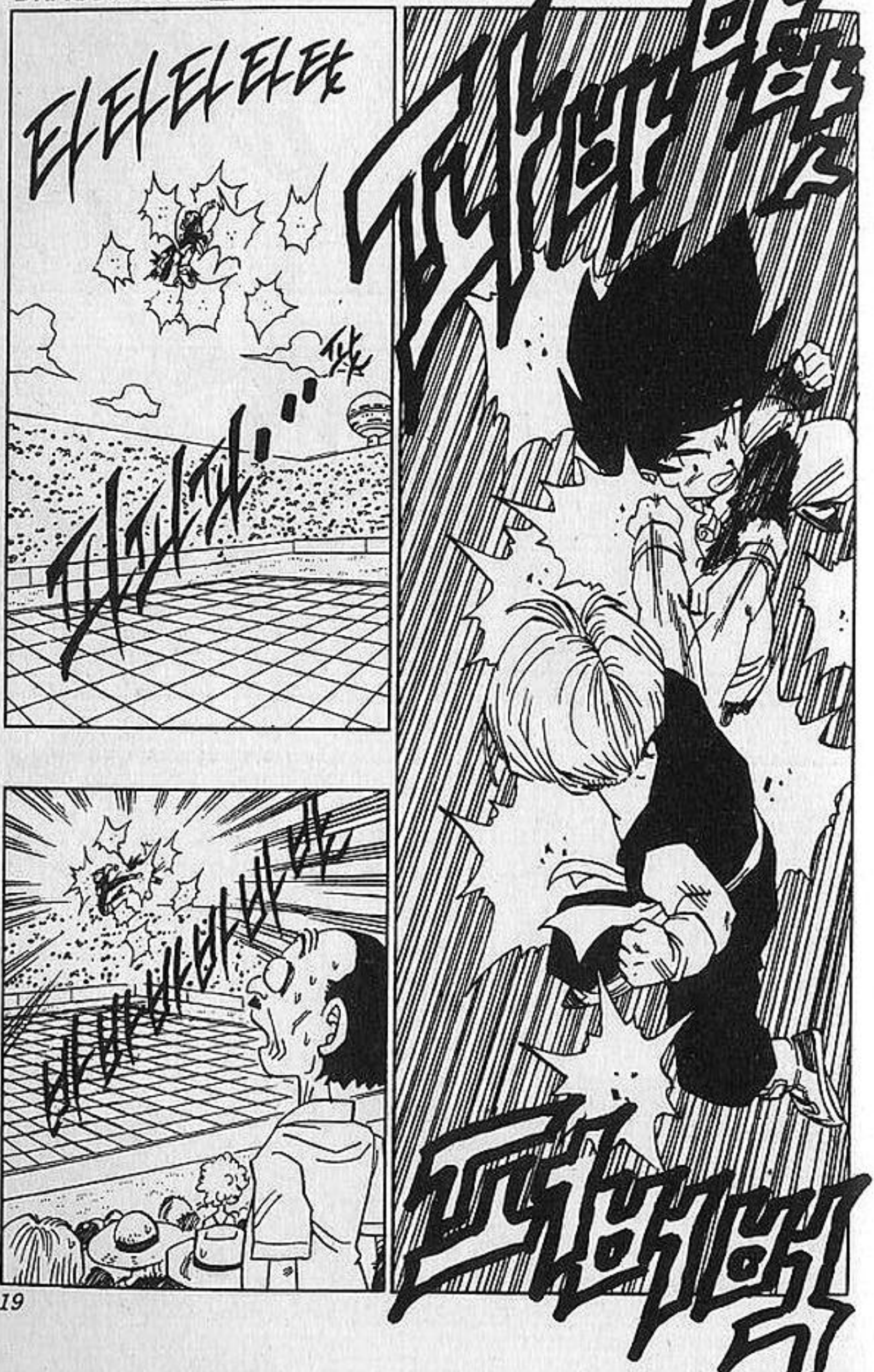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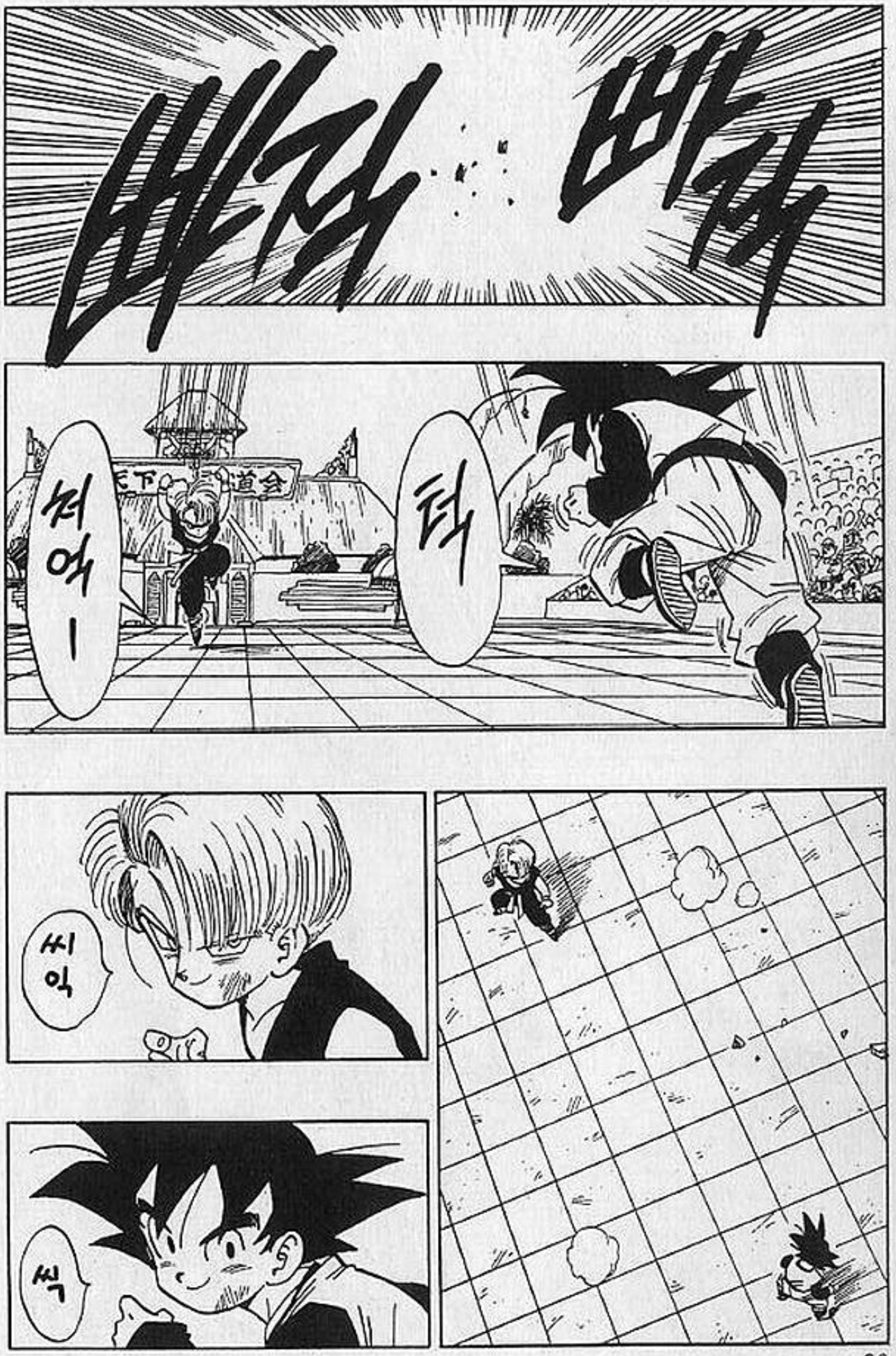

부르르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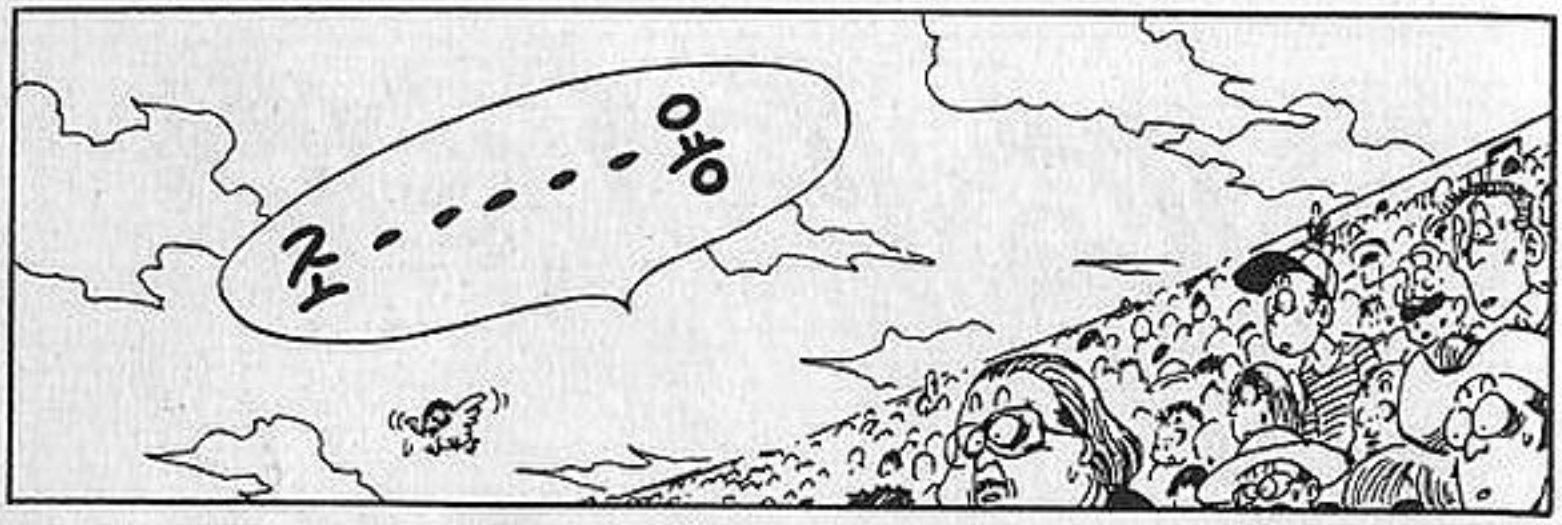

파팟
타탓
파밧
팍팍
팍팍



퍼벅
퍼벅
부웅
샤샥!
!!
부웅
샤샥—


타타타타탓
파파파파파


빠직
빠직
처
처억ー
씨익
씩











다음은, 제434화 트랭크스 대 손오천 2(투)


武道会


다른 방송국 카메라와 관중들의 비디오 카메라, 일반 카메라까지 전부 망가진 것 같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어…, 없습니다! 예비 카메라마저 부서져버렸어요!
이 봐! 혹시 다른 텔레비전 카메라 준비한 것 없나?


와-! 엄청 난데!
와
와
정말 굉장한 실력이다!
혹시 속임수 아냐!?
좀 전엔 공중까지 날아 다녔잖아!?


이런 제길~!!
이렇게 억울할 수가! 이, 이런 멋진 싸움을 쩍을 수 없다니!!

이거다…!
이게 바로 내가 오랫동안 그들을 기다린 이유야!
천하제일 무술대회는 바로 이런 시합이 돼야 한다구…!

어…, 엄청나다!
역시 손오공과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실력자들이야!

우리 형한테 좀 배웠지!

헤헤!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상당한 실력을 길렀잖아.

武道

자식, 대단한 실력인데.

꾸욱….

너, 그럼 이거 할 수 있니?

뭘!?

부-----웅

뭐?

그쯤은 알고 있을걸. 저들을 너무 얕보면 안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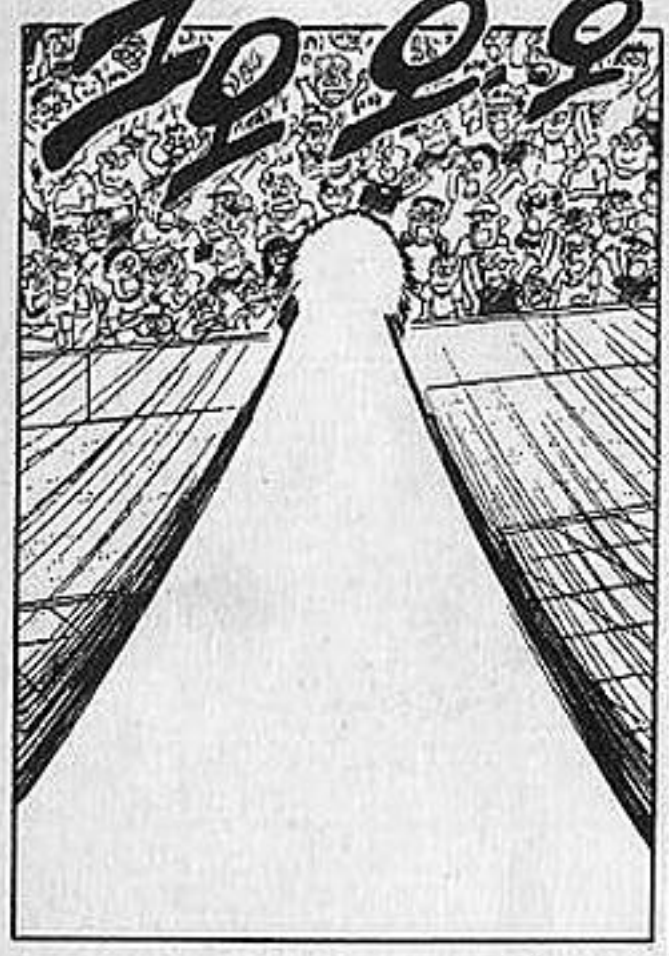
아냐, 천찮을 거다.

아, 안 돼! 잘못하면 관중석이 날아가잖아!

저, 저 녀석이! 설마 저 위치에서 기공파를 쓰려고…!?

하앗!!


아니!!


ㅗㅗㅗ


얍!!


아이구


큰일날 뻔했네….
휴우….
어때?
소…. 손에서 거대한 로켓이 나오는 것 같았어….
쑤군
지금 저게 뭐지…?
쑤군
쑤군
으앗!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배운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짱이지?
어때?
저… 저런 걸 한 번 본 적이 있다….
…….
서…, 설마…. 그럴….

바보!

에네러기가 아니라 에네르기다!

에…
네…
러…
기….

잘 봐!

파ー!!



스오오옹
휘익
와앗!!
아니!!
위험한데. 잰 아직 컨트롤이 미숙하잖아…!
얼라리여!
뻐지직
그… 그 때 셀과 싸울 때 나타난 녀석들과….
또…, 똑같다….
헤헤헤….
집이 맞아 버렸네.

오천!
기공파 같은 건
쓰지 않는 게
좋겠다.
너무 위험해.

응!

그런 것
없이
시합하자.

이…
이 봐….

사…,
상대편 꼬마도
똑같은 기술을
쓰잖아….

도…
도대체
저게
뭐지…?

마…,
말도
안 돼….

좋아!
이제 슬슬
승부를 내자,
오천!!

우승은
내 거,
내 거야!

천만에!
내 거다!



윽!!
아니!?
어디로 갔지?
콰악
짜안—!
앗!!
핫!!

어떠냐, 오천!

그만 항복 하시지!

이런!

헤헤!

큰일 났다!!

꾸구궁…!

……

저… 저것 봐…. 분명 하늘에 떠있는 거 맞지?

더 이상 버티다간 죽을지도 모른다구…!

빠, 빨리 항복하란 말야!

시…, 싫어…!

부르르…

아무래도 트랭크스가 이긴 것 같군….

후후….

빠, 빨리 항복 해…!


아니!
텨
武道会
텨어

나도 모르게 그만…!

미안.

슥

초사이어인으로는 변하지 않기로 했잖아!!

치사한 자식~!

나…, 난 몰라. 나힌테 소릴 질러 봤자….

치, 치사하다, 카카로트!

우와~! 저, 저 녀석이 초사이어인도 될 수 있나?

으이구! 멍청한 오천 자식!

……!?

트…, 틀림없이 그때 그 녀석의 아들이야…! 똑같아…!

여…,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이… 이젠 아들까지 나타나다니…!

지… 지금의 저 꼬마…. 방금 전에 이상하게 변하지 않았어…!?

…….

나도 그런 느낌이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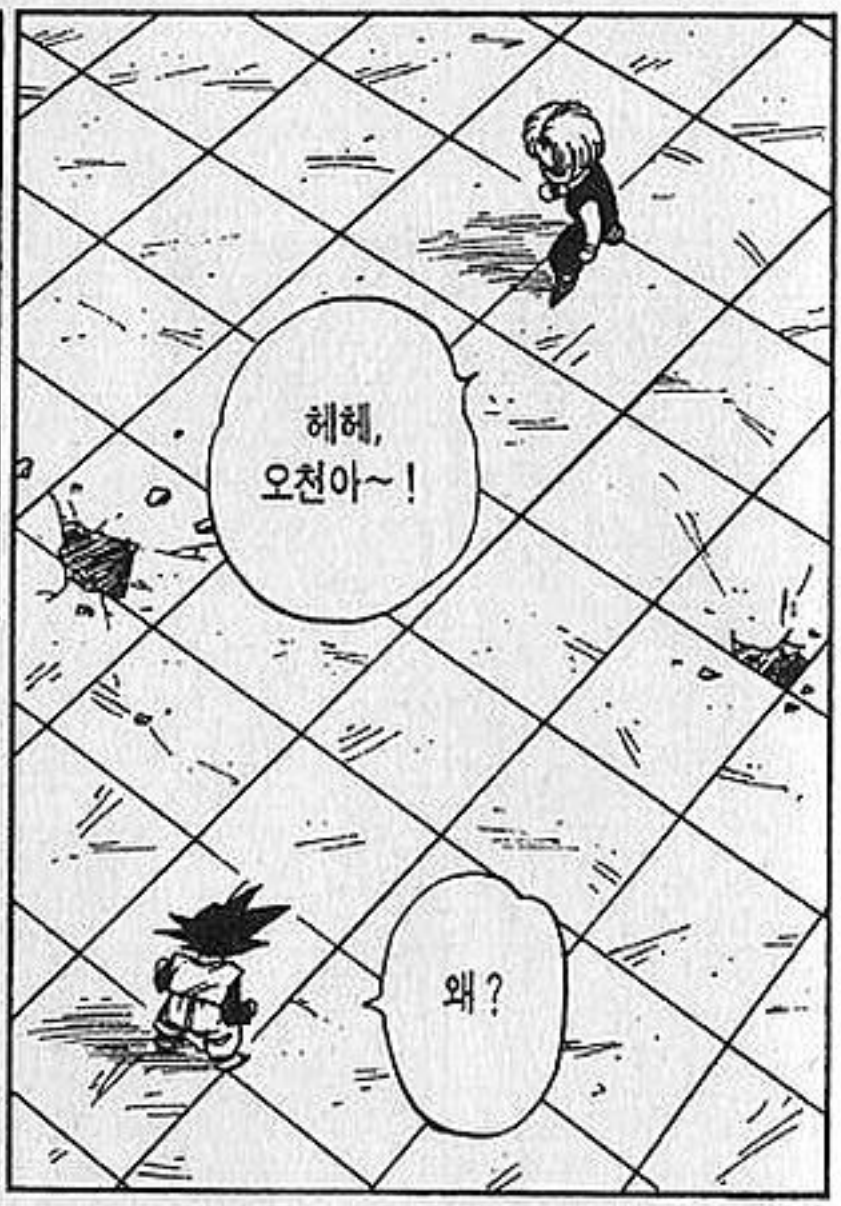
이… 이게 설마 꿈은 아니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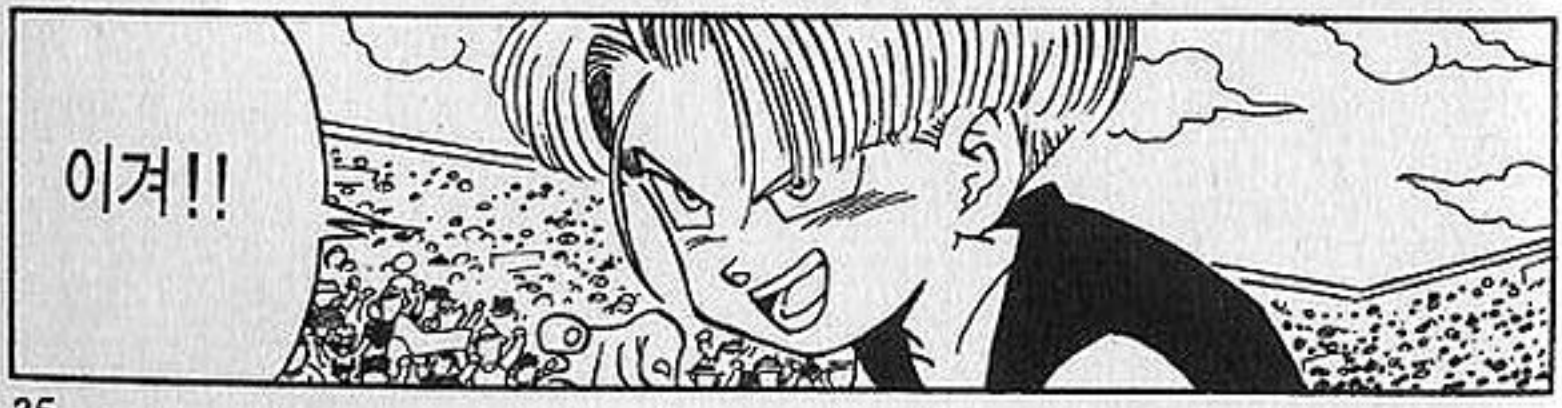
제435화

소년부 승자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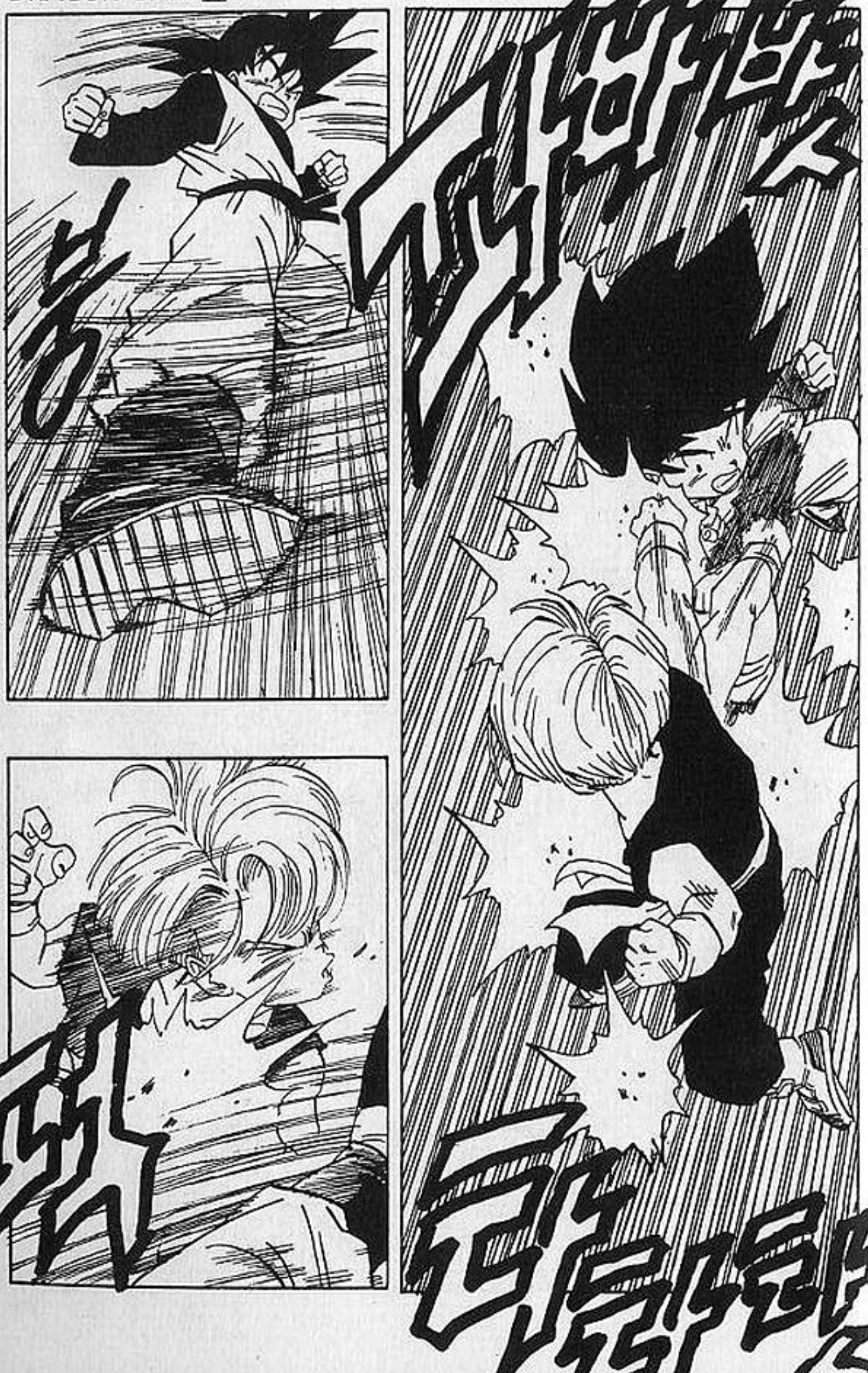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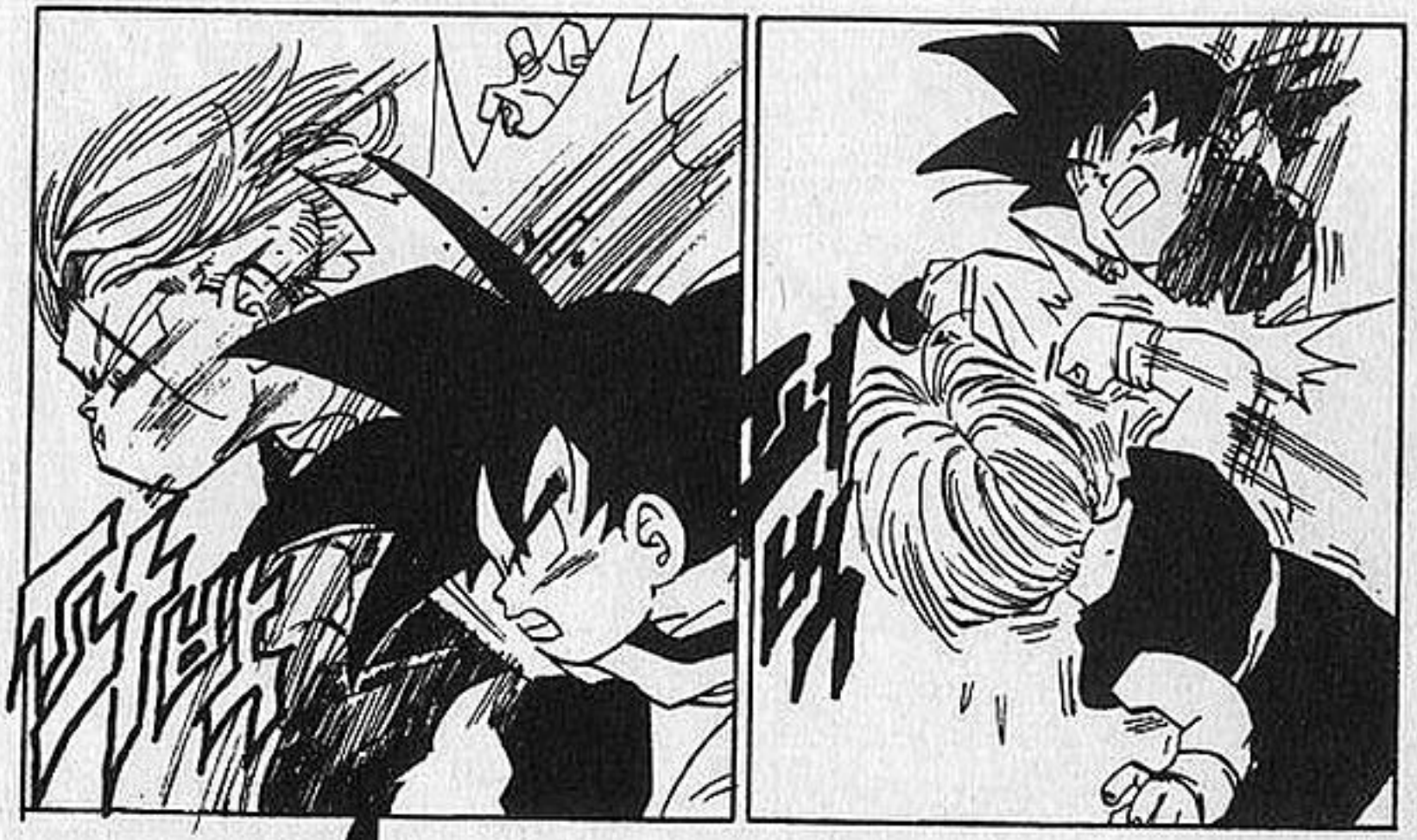


하지만 절대 왼손은 쓰면 안 돼!! 알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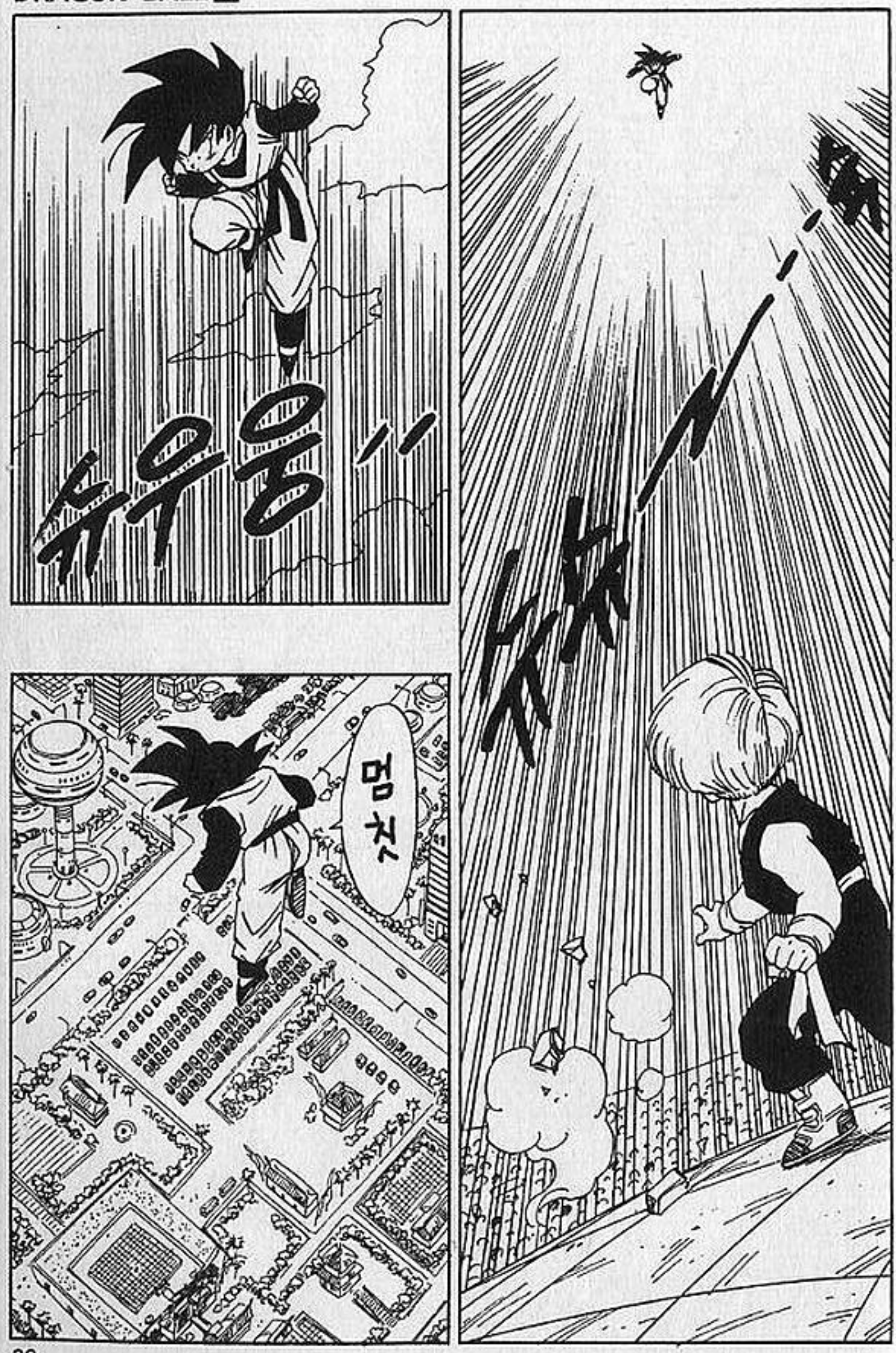
절대 못이겨! 어디 한 번 해보시지!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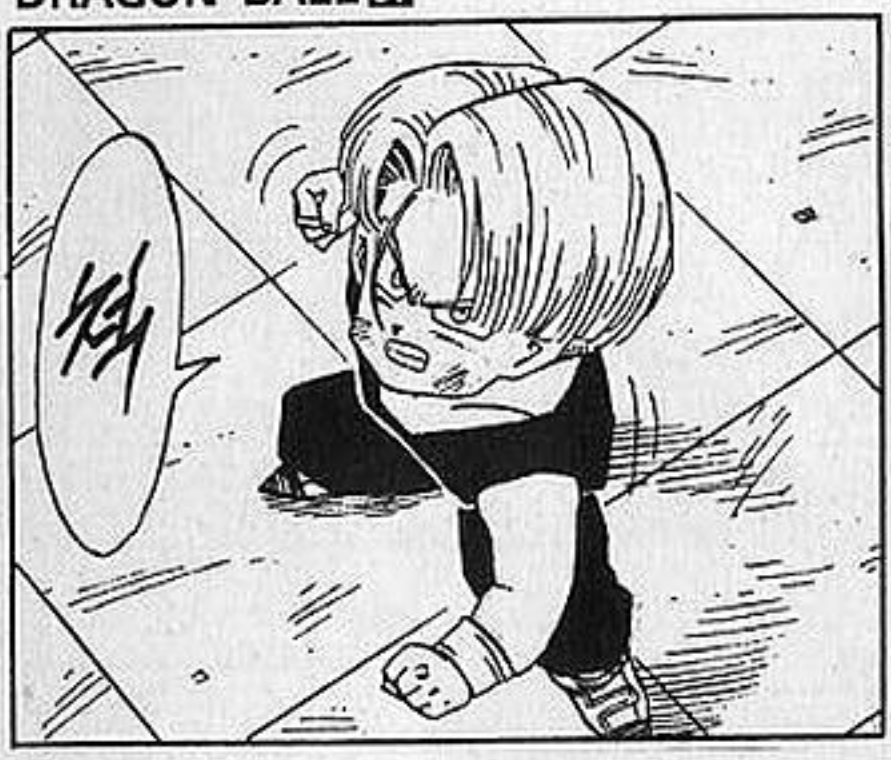





헤헤!
크윽…!
쿠앙


뉴우웅
멈칫


휘이이
……
저 녀석, 무슨 속셈으로 저러지…?
……
아니, 저럴 수가….
재 분명히 하늘에 떠있는 거 맞지…?
돌격—!!


ドカ




낙하하는 스피드를
합쳐서 돌격해올
생각이군!
내 움직임까지
보면서 말야….
좋아…!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피해주마! 저 녀석은 아직
하늘을 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내 움직임을 따라잡진
못하겠지…!
지금이다!!
자폭이나
해라!!


와아
아앗!!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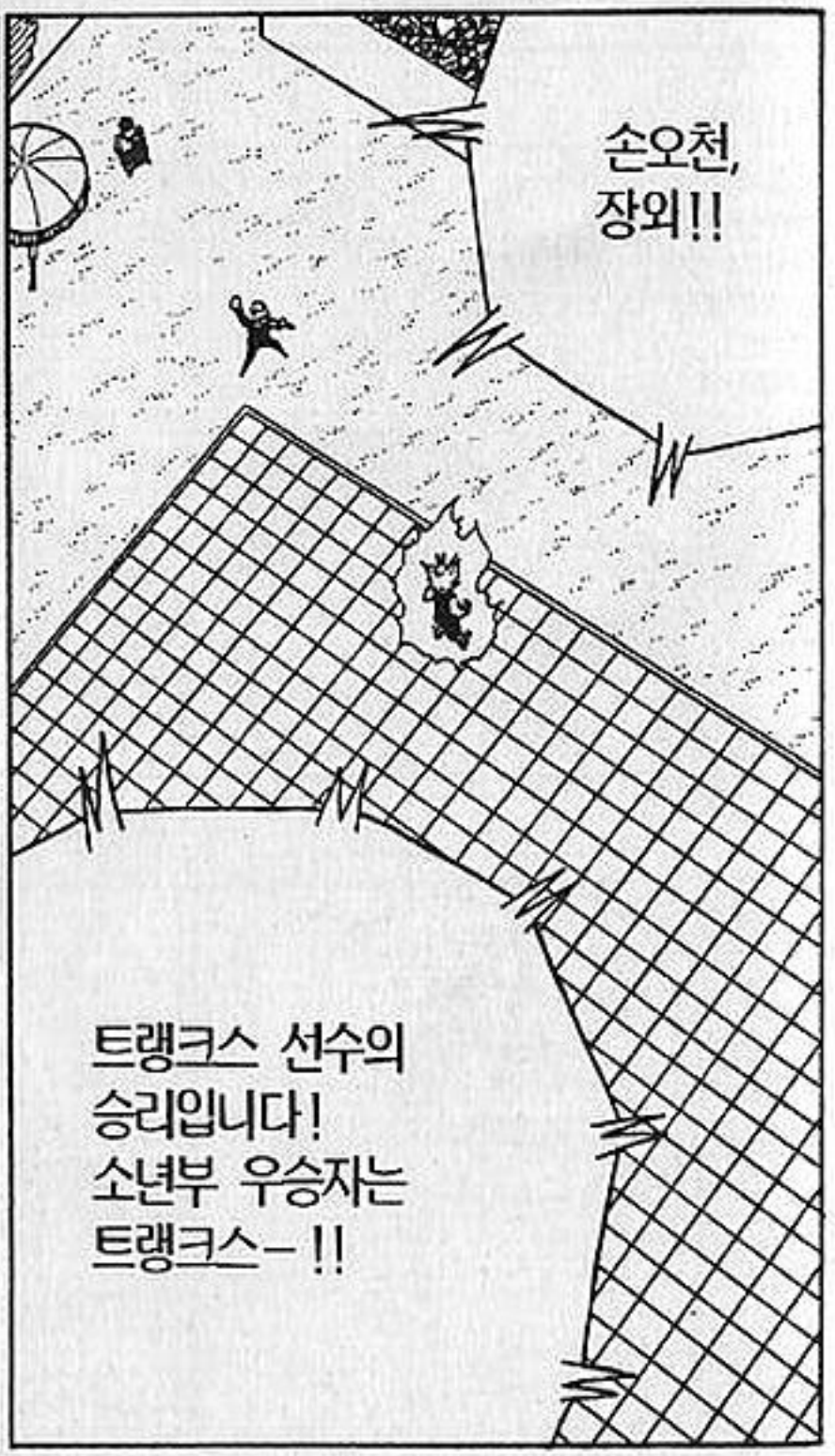
큭!!
아차!!
앗!




이런!


HA!


이겼다!


손오천,
장외!!
트랭크스 선수의
승리입니다!
소년부 우승자는
트랭크스-!!


시끄러...

초사이어인으로는 안 변하고, 왼손도 안 쓴다는 악속을 어기다니! 에이, 사기꾼아!

이게 뭐야, 트랭크스? 너무 치사한데!

턱

턱

이럴 수가…. 꼬마 트랭크스까지 초사이어인이 될 수 있다니…!

하하….

…….

왼손도 직접 널 때린 건 아니잖아…. 네가 남자라면 치사하게 굴지 말고, 솔직히 패배를 인정해!

미안, 미안! 나도 무심결에 그만…. 하지만 너도 아까 초사이어인이 됐었으니까 서로 비긴 거다.

저… 저런 시합은 처음 보는데….

히야아~!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한 시합이었어….

와글 와글 와글…

안 됐지만, 아무래도 내 아들 혈통이 더 좋은 것 같은데.

하하하! 손오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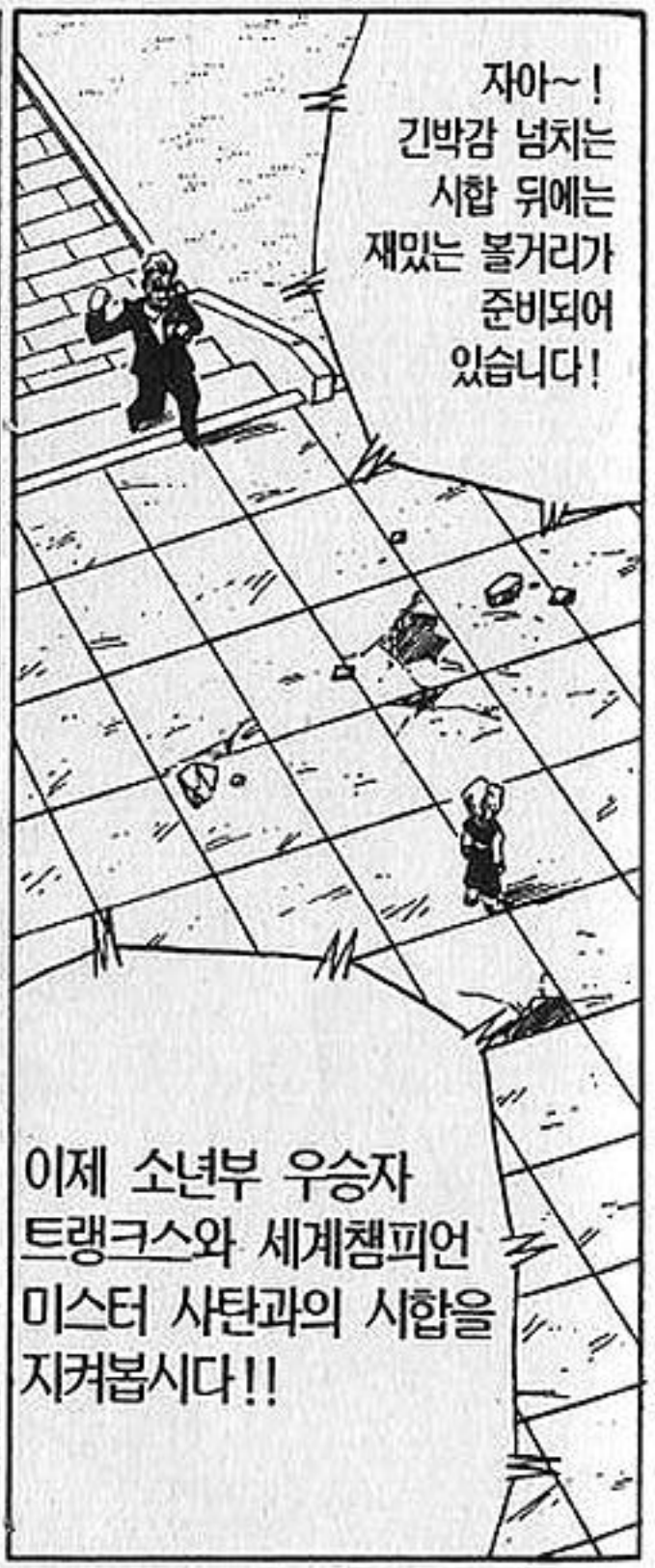
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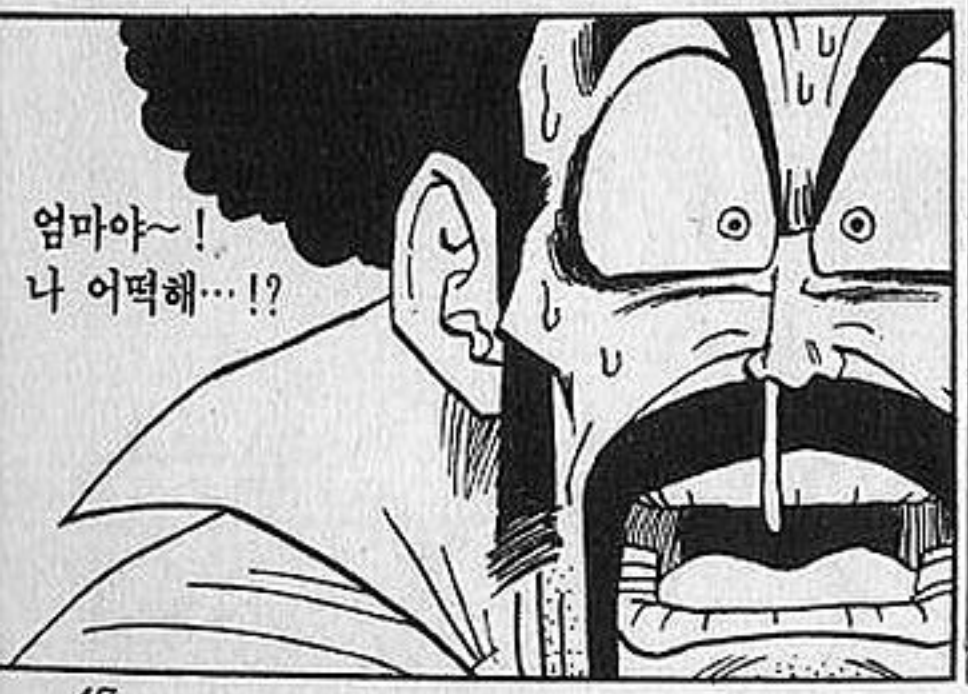

트랭크스,
약속 꼭
지켜야 해!
정말!?


오천,
웰 그리
뽀로통해
있니.
내 장난감 중에서
가장 좋은 거
3개쯤 줄 테니
화 풀어!


뽀로통


으으윽?!!


자아~!
긴박감 넘치는
시합 뒤에는
재밌는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년부 우승자
트랭크스와 세계챔피언
미스터 사탄과의 시합을
지켜봅시다!!


엄마야~!
나 어떡해…!?

ОНИНЕ

제436화

미스터 사탄의 끈기!







으하하하
하하하…!

와하하
하하!!

농담
마십시오!

이,
이거
나도 좀
긴장되는데…!

한 방만
맞아도
난 완전히
갈 텐데…!!

어…
어떡하지…!?

어서
나오세요!!

자, 이제
미스터
사탄의
등장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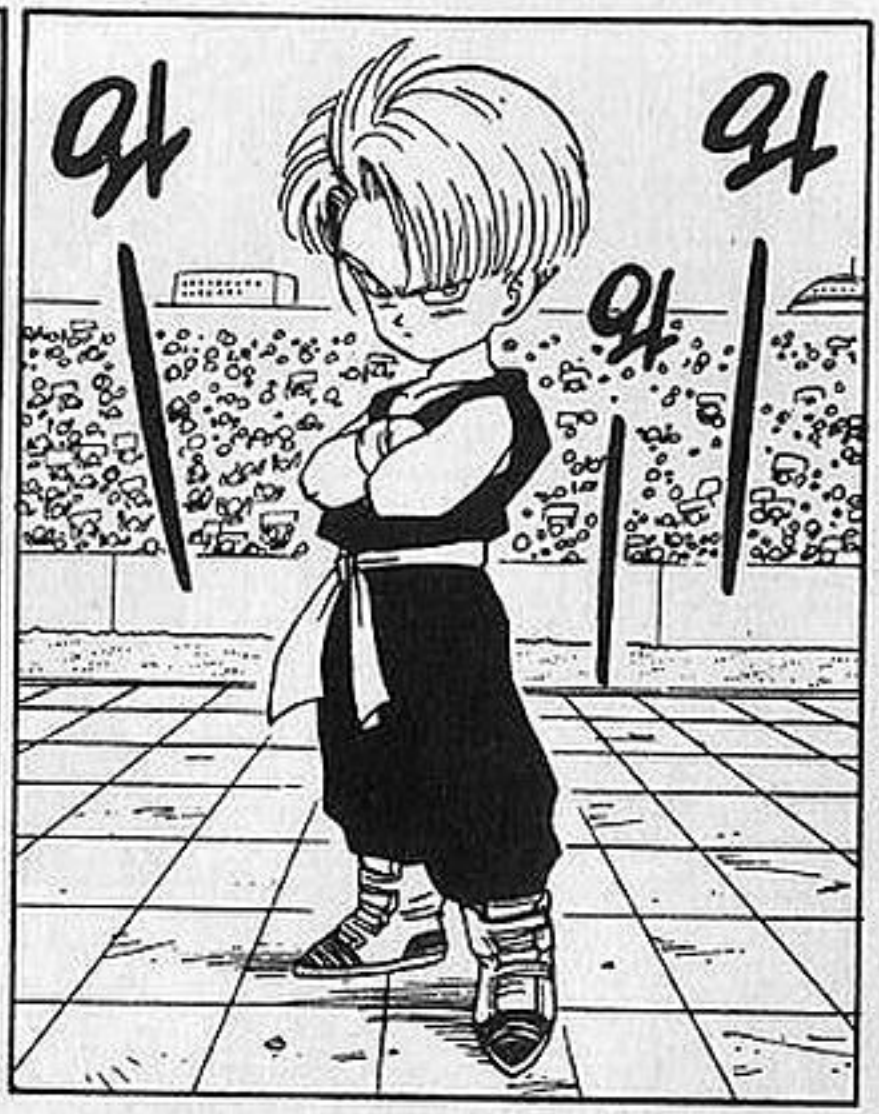
잠깐
쉰 다음에
시작할까요?

괜찮아.


우와ㅡ!!
위대한 세계 챔피언 미스터 사탄에게 도전하는 꼬마가 누구냐ㅡ!?
크하하! 바로 너냐?
각오는 되어 있겠지ㅡ!?
아아아아
어, 엄마~! 난 정말 어떡하면 좋아~!? 꿈이라면 빨리 깨다오~!!

이 아저씨가 세계 챔피언인가…?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우리 아버지보다 강할까…?





……?

쓸데없는 소리!
참견하지 마!
힘 안 내도
괜찮다구!





그래,
가자.

저쪽 어른들
예선도 거의
끝났을 거야.

이제 슬슬
가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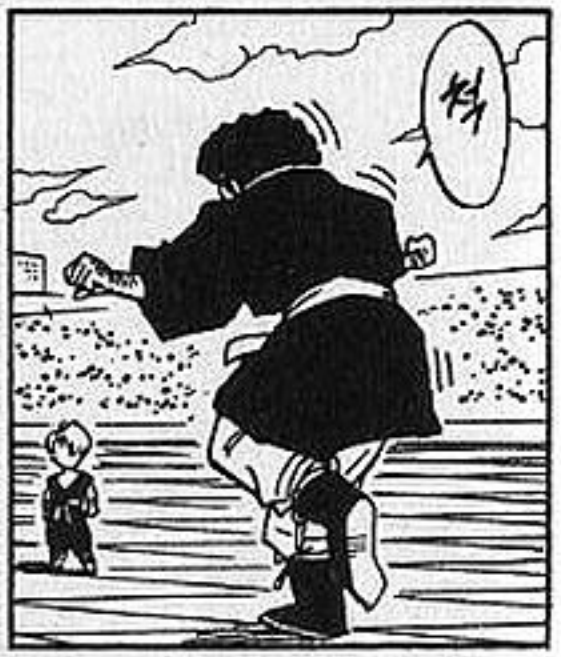

자, 잠깐! 저 꼬마는 당신들과 같이 온 애잖아! 이제 미스터 사탄과 시합하는데, 안 보고 그냥 갈 거야?
그, 그래! 맞다!
혹시 멋진 대결이 벌어질지도 모르잖아!
그럼 우리 먼저 간다~잉!
.....
스윽...
파앗
스윽...
꾸욱


흡…!
후우우우우~!!
하앗—!!
부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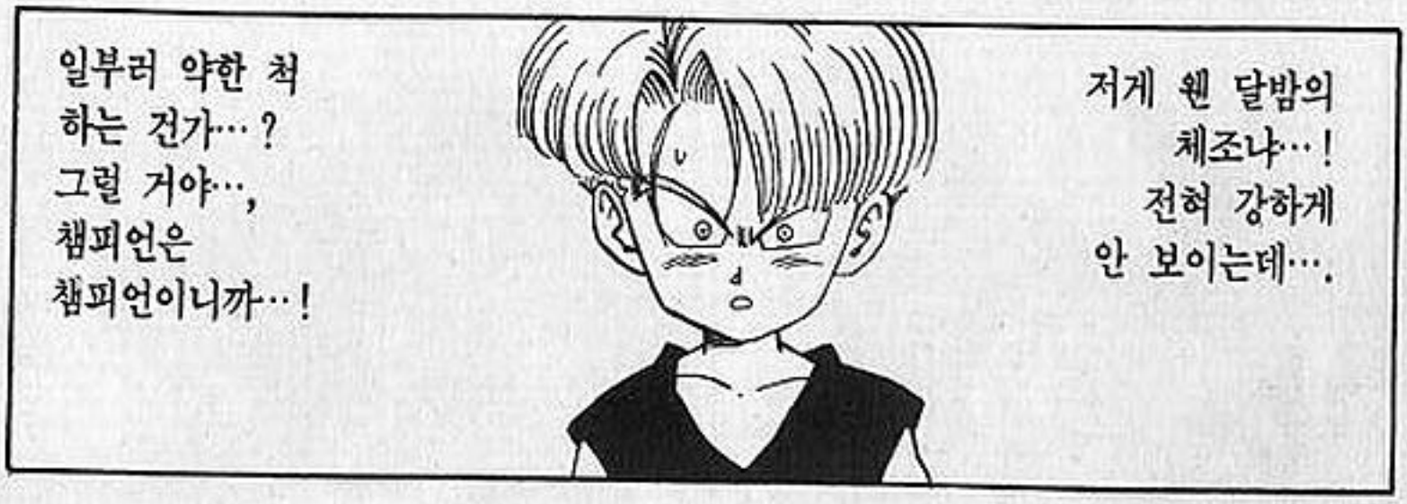

흐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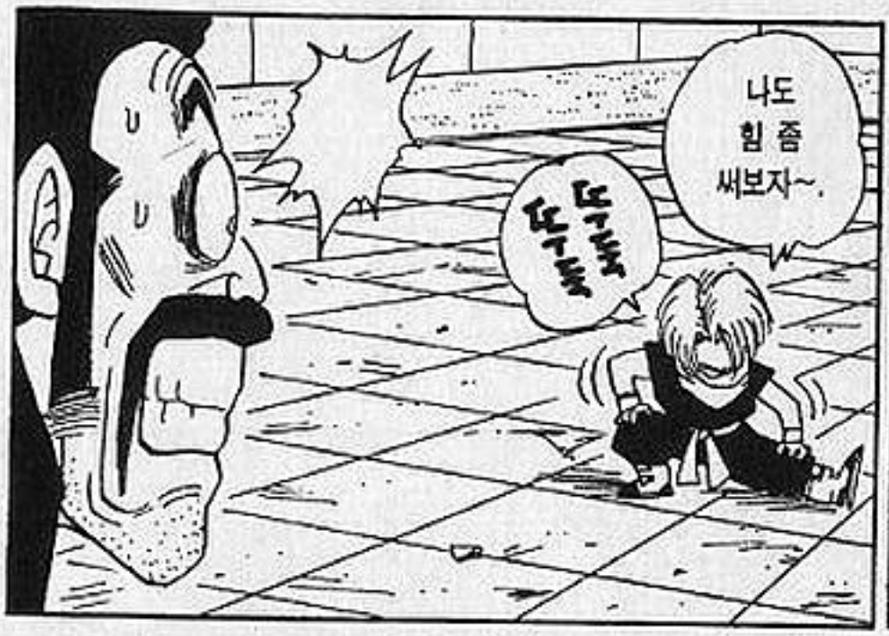

이야아앗!!
파파팟..


아아아아
사탄!
사탄 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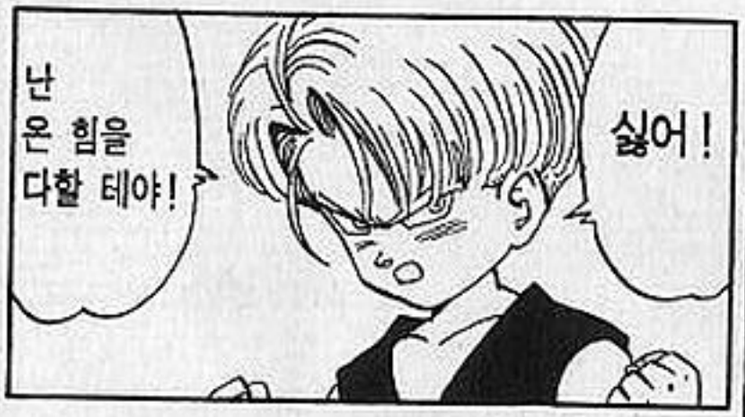

척


휴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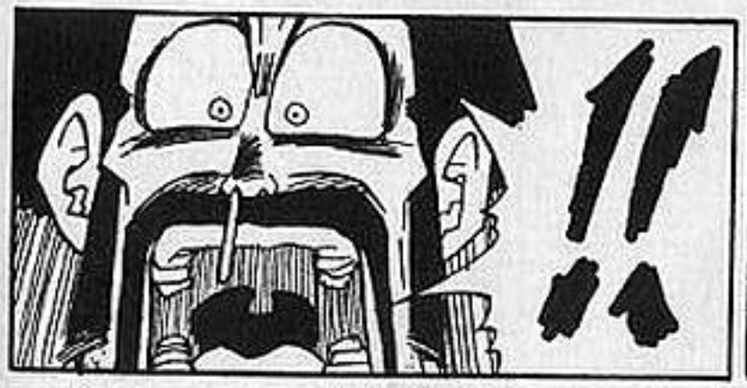

저게 웬 달밤의 체조냐…! 전혀 강하게 안 보이는데….
일부러 약한 척 하는 건가…? 그럴 거야…, 챔피언은 챔피언이니까…!


나도 힘 좀 써보자~.
뚜둑 뚜둑


좋아!
뚜둑 뚜둑


싫어!
난 온 힘을 다할 테야!


야, 꼬마야! 뭘 그렇게 힘쓰고 그러냐!
이, 이 시합은 그냥 연습이야! 가볍게 장난치는 거라구!
부담없이 하자!!
하하….



그만 좀 해라! 애기처럼 왜 그러니…?

이… 이 멍청한 자식아…!

난 애라구.

난 애라서 안 돼.

야, 이 자식아! 점잖게 좀 하자니까! 내가 장난이라고 했잖아!

와 와

삐 삑

삐—

武道会

그럼 슬슬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준비가 끝난 것 같군요.

어… 어쩌면 좋아…!

두근 두근

저 꼬마애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역시 사탄한테는 못당할 거야!

그건 그래. 괴물 셀까지 해치운 사탄이니까.



미스터 사탄! 어디가….
으악…!
세, 셀과 싸울 때 다친 무릎이…, 하필 지금 아플 게 뭐야…! 크으윽…!!
아니-!? 미스터 사탄, 갑자기 왜 저럴까요-!?
털썩
으윽!!
뭐!?
의사가 대기하고 있으니 잠시 진찰을 해보죠! 제가 불러 오겠습니다!
쑤군
쑤군
쑤군
뭐요!? 셀과 싸울 때 무릎을 다쳤다구요!?
응…, 그래. 비밀로 했었는데, 사실 다쳤어…!
에이, 재수 없어…! 하필 이럴 때…! 난 꼭 싸우고 싶은데…!
와
와
걱정 없습니다! 미스터 사탄은 싸울 수 있습니다!
역시멋져
빅 빅
그럭저럭 싸울 만한데. 세계 챔피언이니까. 이 정도 아픔은 별거 아냐….
하하…. 괜찮아, 이제 나은 것 같으니….
정말 괜찮아요?

위위위윅

드… 드디어 시작됐어!
나. 난 어떡하면 좋지…?
얘한테 지면 내 명에에
먹칠을 하게 되고…!

그렇지!!
상대가 어린애라서
일부러 져준 척 하는 거야!
그래, 맞아!
그렇게 뻥을 치자!

그럼….

자,
잠깐!
타임!!

그러고 보니
이 장난 시합의
특별 인사법을
너한테
가르쳐주는 걸
깜빡 잊었어~!

인사…!?

그래!
시합이 시작되면
먼저 넌 챔피언인 내 얼굴에
주먹으로 아주 가볍게,
아주 살짝 주먹을 대는 거야.
그게 규칙이라구!

톡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아…. 그래요….

하하하! 저 꼬마가 내 사인을 받고 싶다고 해서, 그런 건 시합 후에나 얘기하라고 말했지!

?

됐다, 이제 시작하자!

절대로 힘껏 치면 안 돼! 분명히 알아들었지?

알았어, 아주 살짝 말이지.

자—! 덤벼라!!

이얏—!!

외

외

이거, 상당히 재밌군요!! 그럼 「소년부 챔피언」인 트랭크스 군과 미스터 사탄의 시합을 시작합니다!!

와/ 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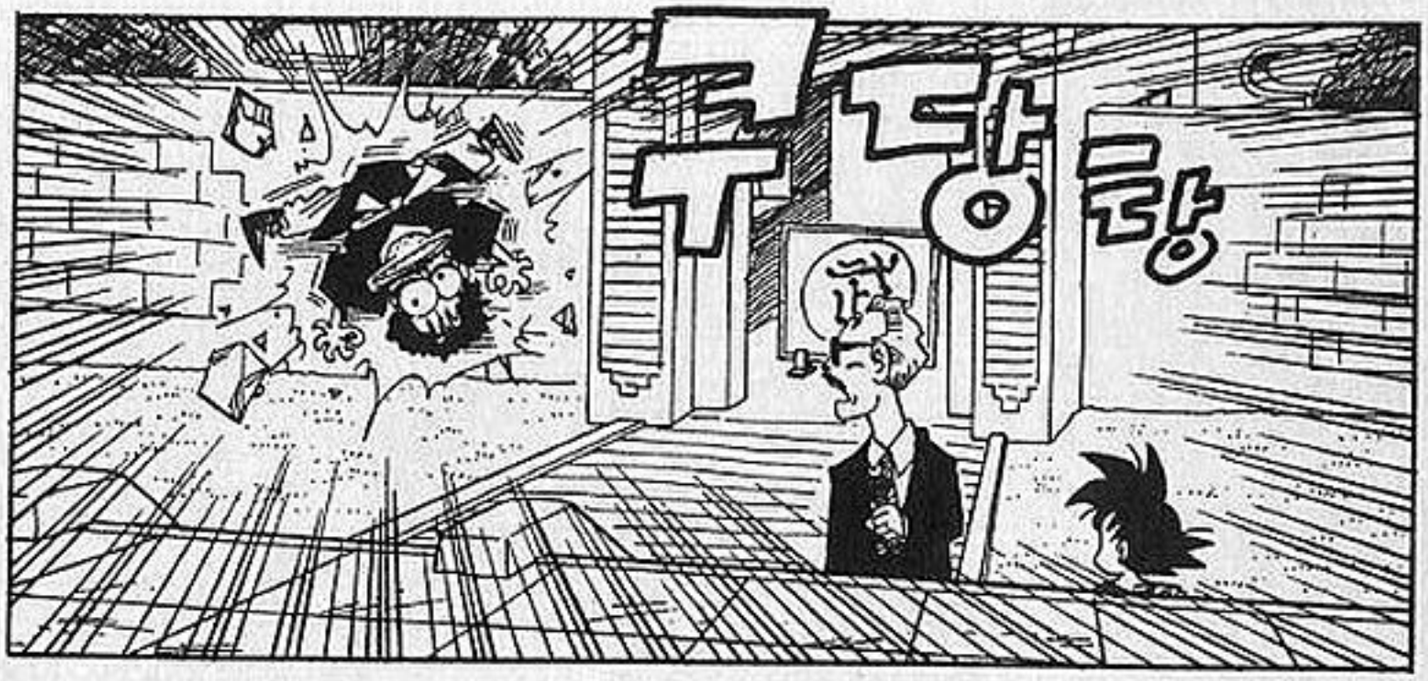
한 번 쳐봐, 꼬마야!

와하하! 재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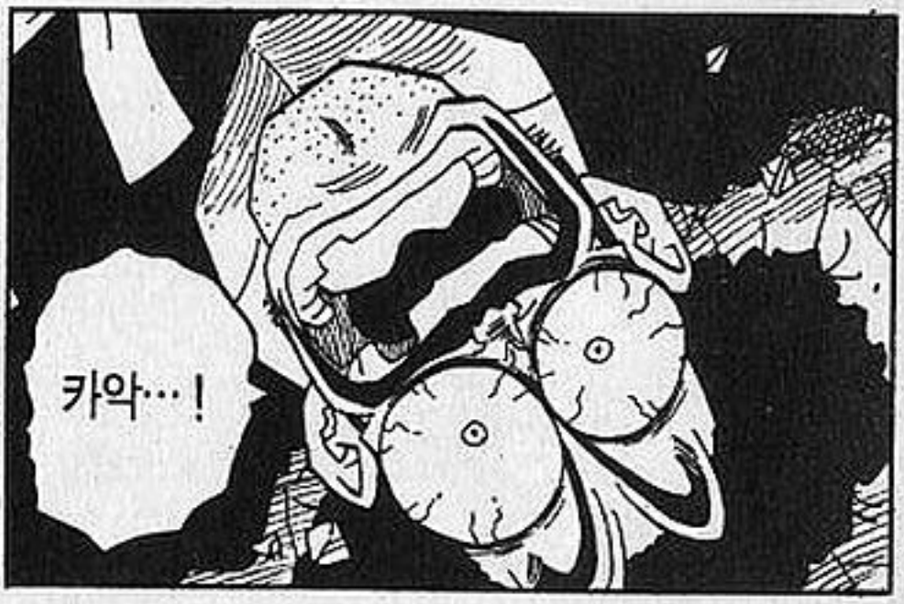
아니, 저런!? 지금 미스터 사탄이 한 번 쳐보란 듯이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굉장한 여유를 부리고 있군요!

살짝!

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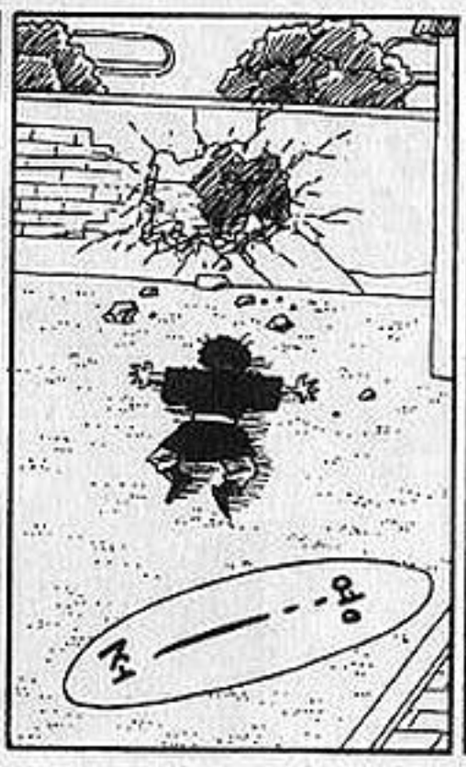

쿠당탕


털썩


카악…!


저. 저 비보…!
적당히 쳐야지…!
아… 아빠…!
쑤군…
쑤군…


으으으으


조——용


아니….

괭장히 강한 꼬만데~!

우와~! 내, 내가 당했네!

하하…! 이 아저씨가 졌다~!

벌벌 빈들…

처억

와와와와

하하하하하

역시!

멋져!

역시 너그러운 사탄이야!

하하하! 뭐야, 일부러 져준 거잡아!

장외! 뜻밖에 트랭크스 군의 승리입니다!

……

저… 저 빌어먹을 자식이! 살짝 쳐라고 했더니~!

아이구! 엄마야, 나 죽네~!

으아아!! 으악~!!

아이고! 코아~!

모… 모르겠다…! 끄덕도 안 하네….

……

역시 굉장히 강한 건가…?

하하하! 수고 많았습니다.

자, 그럼 난 대기실에서 낮잠이나 좀 잘까…?

다음은, 제437화 이상한 두 사람


지금부터 천하제일 무술대회 성인부의 시합 시작때까지 약 30분 정도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성인부의 시합 개시는 오후 1시 40분부터 시작되오니 기대해 주십시오!


그 동안 밥이라도 먹을래?
뭐야, 휴식시간이 있네!


그럼, 아마 우리 모두는 예선을 통과했을 텐데…!
예선 결과가 벌써 나왔나?
아, 죄송합니다만 여기서부턴 예선을 통과한 선수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쥬니어!
18호!
손오공!
베지터!
크리링!


잠깐 기다려주세요. 이름을 대주시죠!
뭐요?


어서 들어가세요!
대단히 실례했습니다. 전원 여선을 동괴했군요.
그리고 1시 30분에 대전 순서를 정하는 제비뽑기 추첨이 있습니다.


마쥬니어?
피콜로란 이름을 대면 큰일나잖아.


하지만 오공은 좋겠다! 저승에선 나이를 안 먹으니까.
그렇게 좋으면 너도 한 번 죽어볼래?


근데 우리하고 오반 이외에는 실력있는 강자가 없는 것 같으니 상금은 모두 우리 차지네.
허허…, 내가 사는 저승에는 돈이 필요없어.


농담도 심하셔.
난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라구.


야, 오천! 잠깐 이리 와봐!
왜? 뭔데?
하하하. 웃기게 생긴 복면이네!
저기 있는 복면 쓴 사람…!
저 사람 좀 봐…!
뭐라고!? 대, 대체 무슨 얘기니!?
저런 모습 이라면….
우리가 복면을 써도 누군지 모를 거야.
어때? 우리가 써먹을 수 있겠지?
저 안에 들어갔다는 건 예선을 통과한 선수란 얘긴데….
뭐가!?

저 사람으로 변장해서 시합에 나가는 거란 말야!

띨띨하긴! 말하자면 저 사람에게 한 방 먹인 다음 기절한 사이에 저 옷을 뺏는 거야.

무슨 소리! 넌 어른들이랑 싸워보고 싶지 않니?

한 번 해보고 싶긴 하지만….

엉뚱한 생각 마, 트랭크스!

안 돼. 그런 짓 하면!

……

자…, 잠깐…!

사사사사삭

그치!?

좋아, 간다!!


저…, 정말!?
뭐야?
어딘데?
저쪽에서 멋지게 생긴 어떤 누나가 데이트 좀 하자고 하던데….
자긴 쑥스럽다고, 나한테 얘기 좀 전해달래요!
저….
뭐야?
사인이 필요하니?
정말 예쁘게 생겼니!? 난 미인 아니면 안 사귄다!
어, 어디야!? 어디 있는데!?
바로 여기예요!
야, 팔리 옷 벗겨!
사사—…삭
……
빠악


둘이라고!?
멍청하긴! 둘이서 입을 거야, 둘이서!
하지만, 옷이 너무 커서 들키는 거 아냐?


절대 안 들켜!
됐다, 딱 맞는데!
글쎄….


걱정 마! 들킬리가 없어.
이거 안 들킬까…?


엄마, 반대로 가야지!
타 다 닥


자, 빨리 돌아가자!


우거거
우거거
양남
우루루루루


음식은 이승의 것이 훨씬 맛있다!
저승에선 밥을 먹든 안 먹든, 상관없지만….
죽은 사람도 배가 고픈가…?
야, 시합 직전에 그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니…?


오반! 네 것까지 시켰는데, 먹을 거지?
아, 예! 물론 먹지.
아~! 여기 모였네.
……

이제 곧 추첨이 시작되잖아!

왜 아무것도 안 먹니? 다이어트 중?

푸하~! 이제 배 좀 부르네!

.....

.....

음식이 굉장히 맛있네.

쩝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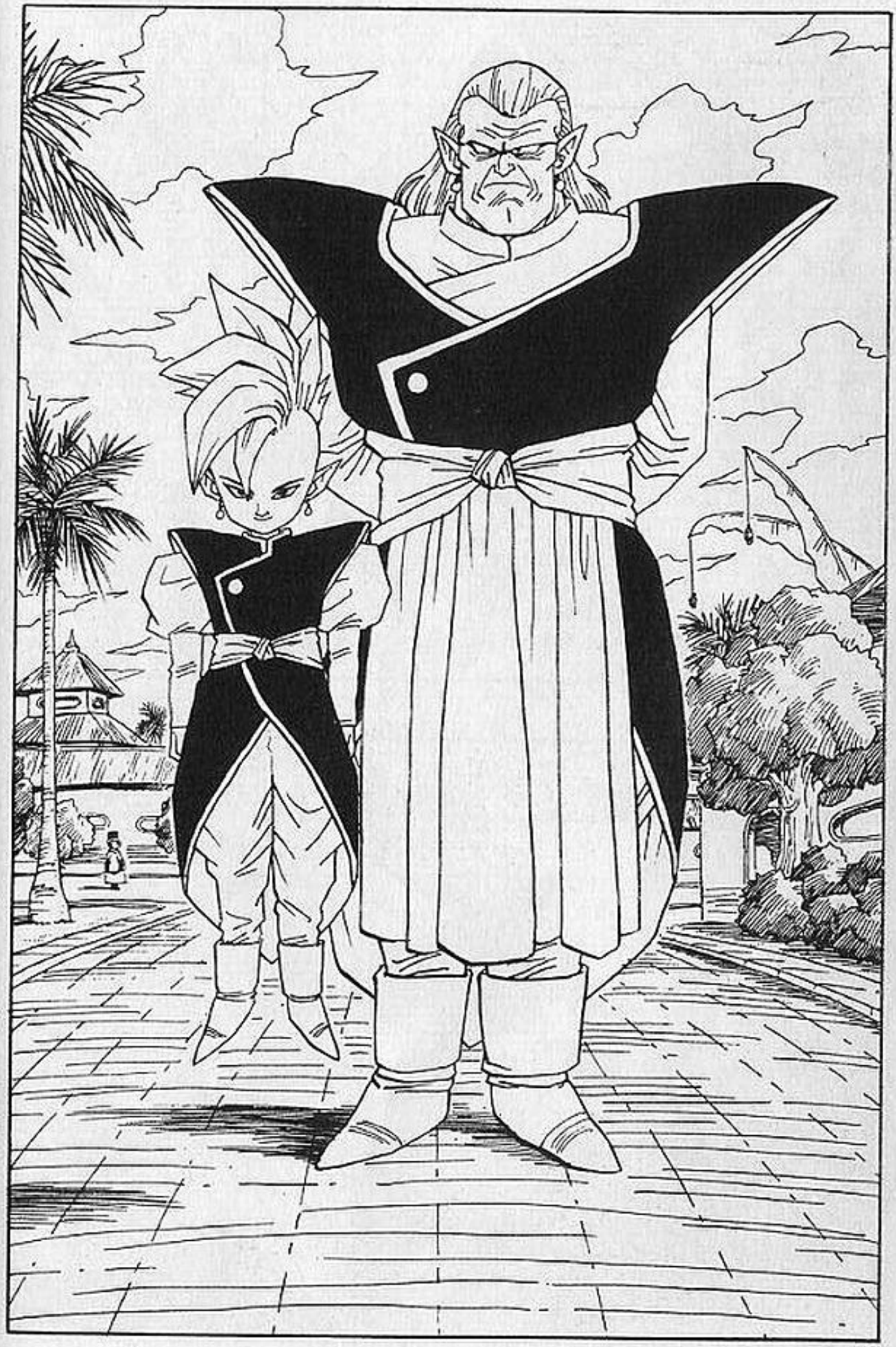
우물우물

우적우적

사이어인들의 위장은 대체 얼마나 큰 거지…?







……

……

이… 이 봐, 저 사람도 공중에 떠있어…!

食

안녕하십니까, 당신이 손오공이죠?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쯤 대결해보고 싶었어요.


어… 어떻게 내 이름을?


다행히 저도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대진운이 좋아서 당신과 한 번 겨뤄볼 수 있다면 좋겠는데요….


물론 이길 자신은 없습니다만….
도대체 당신이 어느 정도 강한지 알고 싶어요.


잘 부탁합니다, 그럼 악수라도….
뭐?






자,
잘 부탁해!
그러지
뭐!
씨익


그럼
전 먼저!
……


역시!
소문대로
좋은 영혼을
가졌군요….
뭐?




뭐라고?
그게
정말이니?
강해 보이진
않던데….
내겐 그저
이상하게 생긴
사람으로밖에
안 보였는걸.


하지만…,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없는
시합이 된 것은
틀림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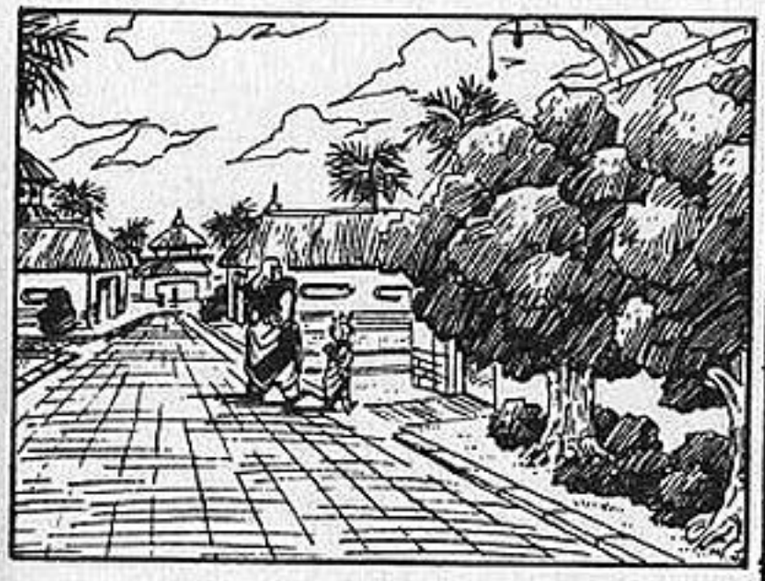

도… 도대체
누굴까,
손오공…?
나도
몰라….



제438화

대전상대가 결정되다!








저들은…, 지구인이 아냐….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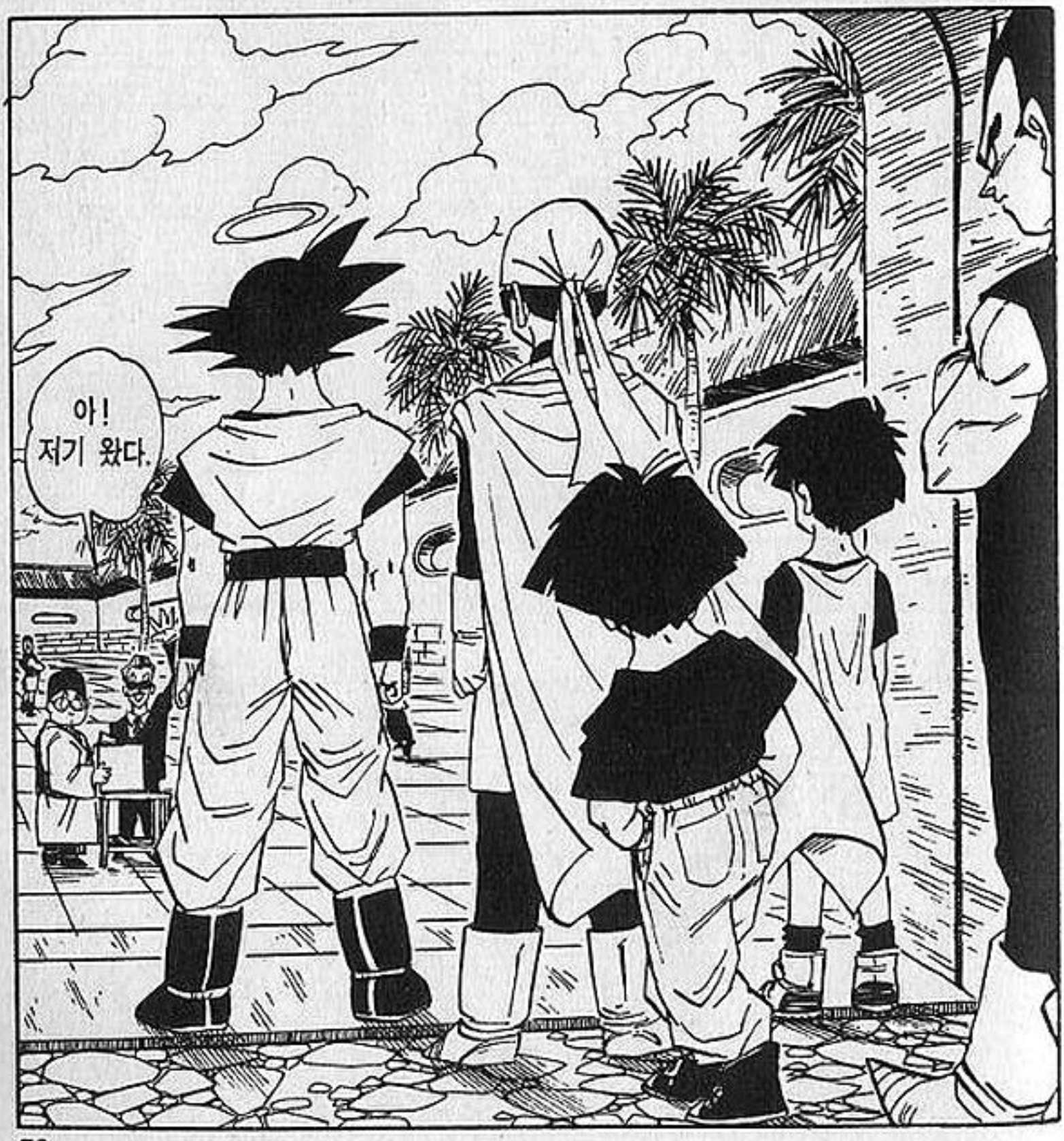

뭐!?
오반…! 지구인이 아니라니, 무슨 얘기야…?


뭐 하는 사람들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다른 별 사람이 여긴 뭣 때문에 왔을까…?


그러고 보니 안색도 별로 좋지 않고….
아…, 그거구나.
아…, 그건…. 저 사람들이 그냥 좀 이상하다고….


출전선수가
16명이라…,
딴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다지
강한 녀석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만 하고
빨리 가자!
벌써
추첨이
시작
됐겠다.


아!
저기 왔다.


신님! 제발 부탁이니 이 녀석들과는 1회전에서 싸우지 않도록….
신님이래봤자 덴데잡아….
지금부터 대전 순서를 정하는 제비뽑기 추첨을 시작하니, 이름이 불린 사람은 여기 있는 제비를 뽑아주십시오!
잘 쉬셨나요, 여러분? 이제 모두 모였군요!


저 두 사람 외에 강적은 없는 것 같군….


어?
눈초리가 고약하네…. 너무 인상 구기는 거 아냐?
저… 저 사람들은 뭐야…?


먼저…,
킬러 씨!
그럼
차례대로
이름을
부릅니다!


몸집이
이상하게
생겼는데…!
저런
녀석도
선수야…?




응!


키비토 선수,
앞으로!
다음엔….




14번이군!
예,
킬러 선수는
14번입니다!


1번이네! 제일 먼저 시작하잖아!
크리링 선수는….
어디…, 7번입니다.
아…, 아까 그 사람과….
8번 입니다.
그레이트 사이어맨 선수!
방심하지 마라! 만만한 상대가 아닌 것 같아.
응…, 알았어….
나도 느껴져.
9번이군!
내 맘이야, 참견 마!
18호가 이름입니까?
18호 선수…?


3번이군요.
「신」이라고…? 역시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야….


신 선수!
예!


다음엔…, 스포포비치 선수입니다.


야, 오천! 우리가 입은 복면의 주인 이름이 뭐지?
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예—! 지금 갑니다!
빨리 나가자!


혹시 우리가 아닐까?
야, 대답이 없잖아!
그런 것 같아!


스포포비치 선수, 앞으로 나오세요….
그럼….


바로
나다!


당신은
마이티 마스크
씨잖아요?
뭐?


스포포비치 씨…,
옛날과 상당히 분위기가
바뀌었군요!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저…,
6번입니다.
으이그~!
저 지저분하게 생긴
자식이! 빨리빨리
대답할 것이지!


……?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멍청아!
들킬
뻔했잖아!
무슨 소리야?
네가 먼저
나가자고
했잖아!


다음은
손오공 선수!
나야!


다음은
쥬엘
선수!
16
16번이다!

아! 미스터 사탄은 아직 휴식을 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비를 뽑기로 했습니다.

아씨는 왜 여기 안 오신 거지?

다음엔…, 비델 씨!

응!

11번 이군요!

상당히 귀엽게 생겼어.

소문은 들었지만. 전혀 안 닮았네…!

그래….

그럼 제가 미스터 사탄의 딸이냐?

뭐, 아빠라니….

흐음….

5번이야.

2번이야~!

푼타 선수!

너랑 잘만 사귀면 곧 결혼도 할 수 있겠지?

우, 무슨 소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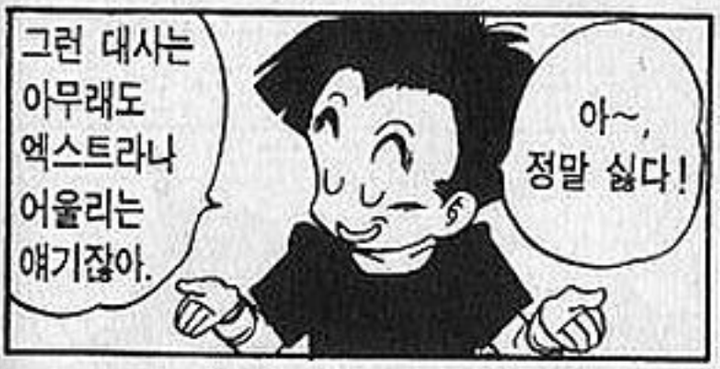
우, 우린 별로 친하지 않아!

잘 됐다! 저 녀석이 내 대전 상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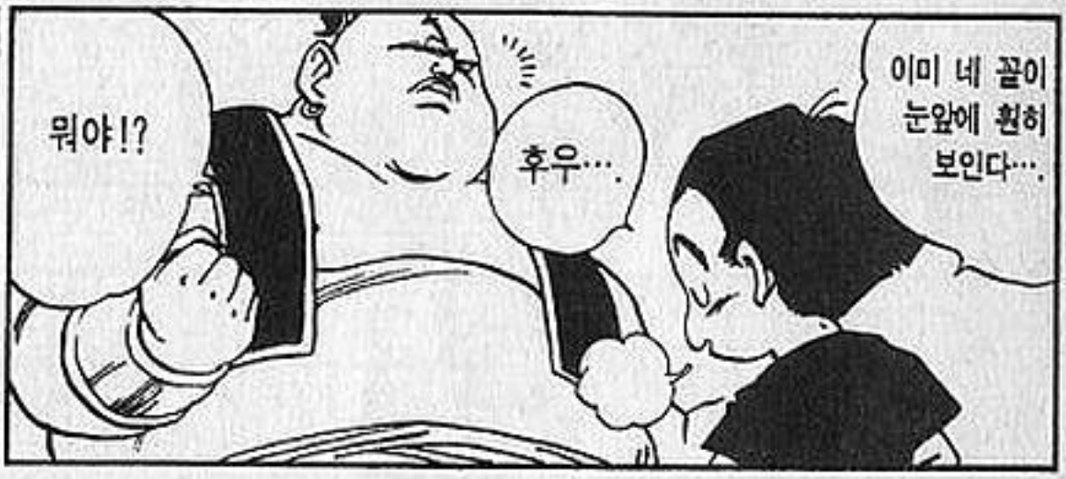
앗!!


다신 무술을 못하도록 묵사발을 내주마!
난 아무리 쓰레기라 해도 봐주지 않는다~!


네 녀석이 크리링이란 놈이냐?
그래, 맞다!


그런 대사는 아무래도 엑스트라나 어울리는 얘기잖아.
아~, 정말 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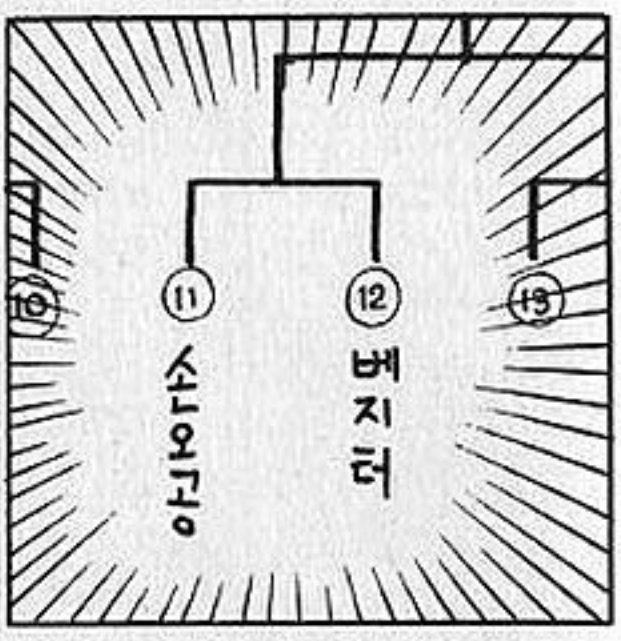

지금 빨리 유언이나 써놓으셔.
너, 죽을 지도 모른다.


뭐야!?
후우….
이미 네 꼴이 눈앞에 훤히 보인다….


뭐!?


베지터 선수….
12번이군요!


1회전에서
오공과
베지터가
싸우게
됐잖아…!
아니,
저런!!


10
11
소오공
12
베지터
13


내가 얼마나 이런 날을
기다렸는지 모를 거다!
내가 카카로트를 꺾는
승리의 날을…!!
카카로트가
상대라니…,
잘 됐다…!!


누가
이길까…?
야, 우리
아빠들끼리
대결하잖아!
분명 우리
아빠가
이길 거야.


베지터
라고….

어디…, 13번.

마이티 마스크 씨, 아까부터 계속 불렀는데요….

뭐!?

바보야~! 우리 아빠가 이길 게 분명해! 너희 아빤 죽은 시체라구!

하지만 죽어서도 저승에서 수행을 계속했다고 형이 말했단 말야!

4번이군요!

마쥬니어 선수는….

마이티 마스크가 저렇게 롱허리였나!?

사사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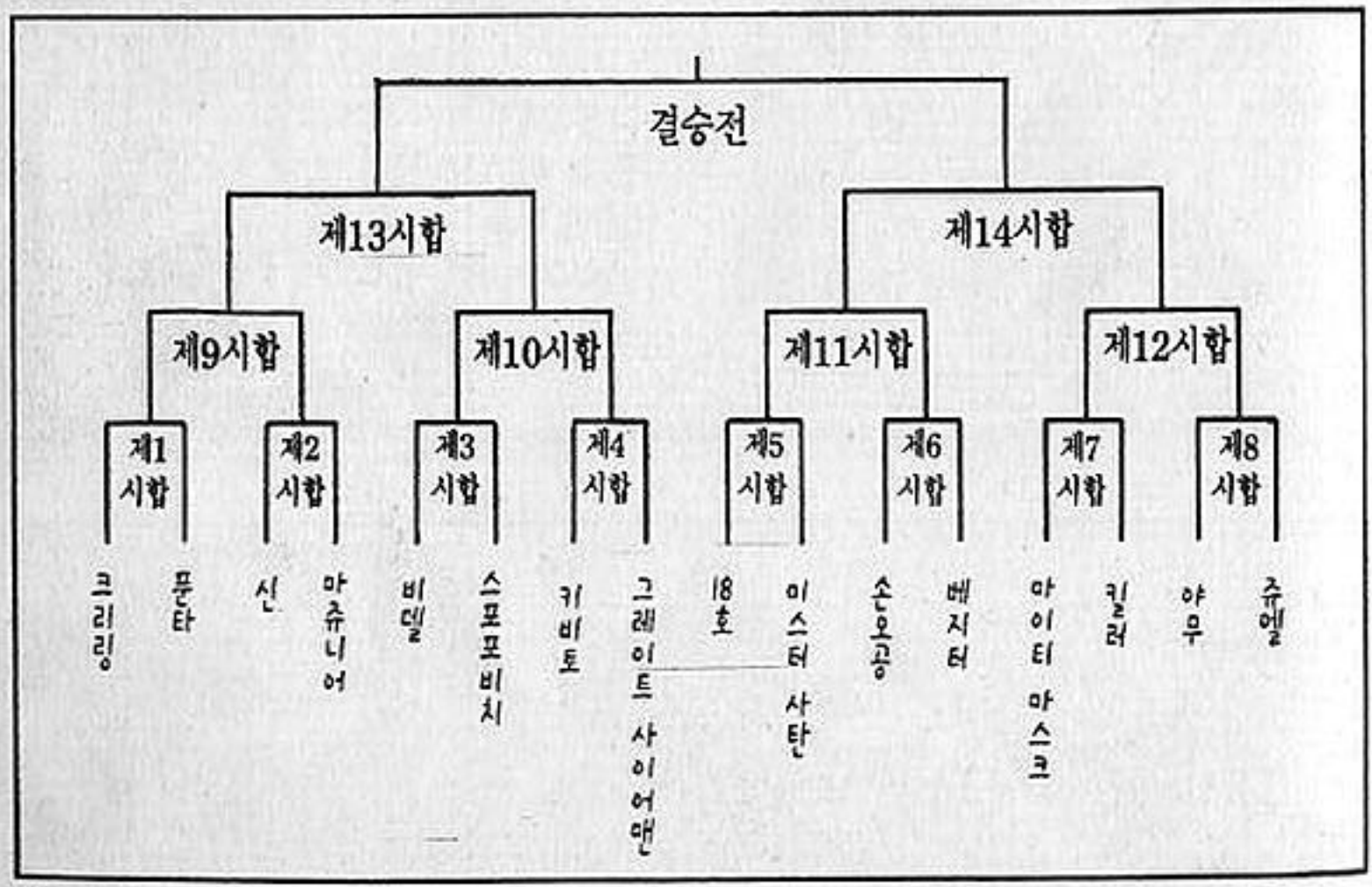
자~! 다음은 챔피언 미스터 사탄의 순서입니다만, 사정이 생겨서 제가 대신 제비를 뽑기로 하겠습니다!

잘 됐어…. 어쩌면 녀석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저 녀석 이다!


당신, 진짜 큰일났어! 우리 아빤 무척 강한 사람인데…!
누군데?
야, 네가 미스터 사탄과 대결한대!
10번 입니다!
미스터 사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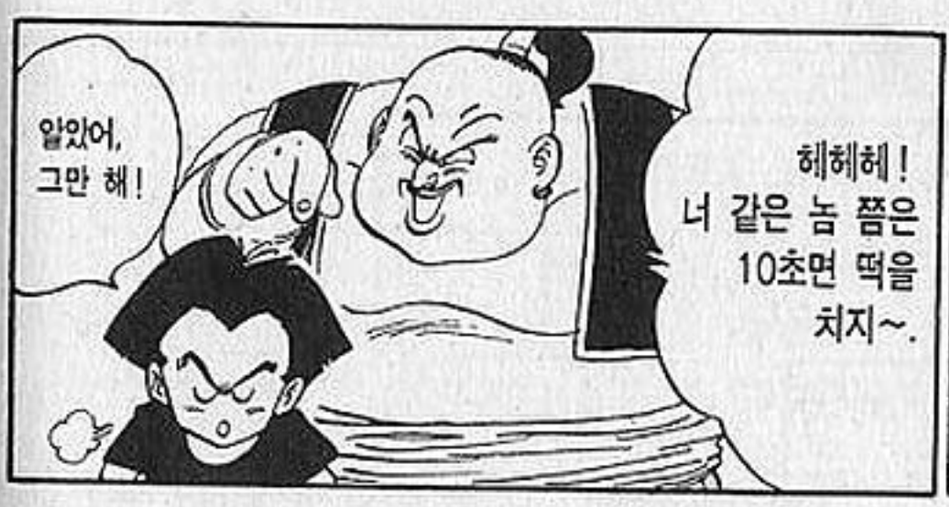

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상대가 결정 되었습니다!!
예, 당연히 남아있던 15번이군요!
마지막으로 야무 선수입니다.


결승전
제13시합
제14시합
제9시합
제10시합
제11시합
제12시합
제1 시합
제2 시합
제3 시합
제4 시합
제5 시합
제6 시합
제7 시합
제8 시합
크리링
푼타
신
마슈니어
비델
스포포비치
키비토
그레이트 사이어맨
18호
미스터 사탄
손오공
베지터
마이티 마스크
킬러
야무
쥬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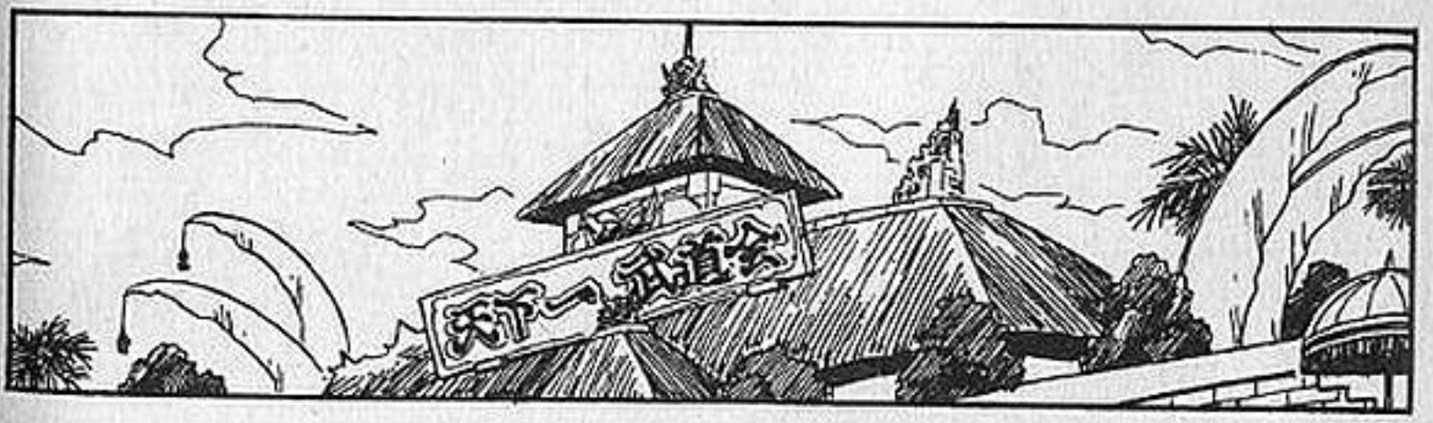

여러분들은 이미 규칙을 알고 계시겠죠?
항복하거나 카운트 10까지의 다운, 경기장 밖으로 떨어지거나 대전 상대를 죽일 경우엔 모두 패배가 됩니다!


시합은 곧 시작 됩니다!
그럼 제가 선수 대기실로 안내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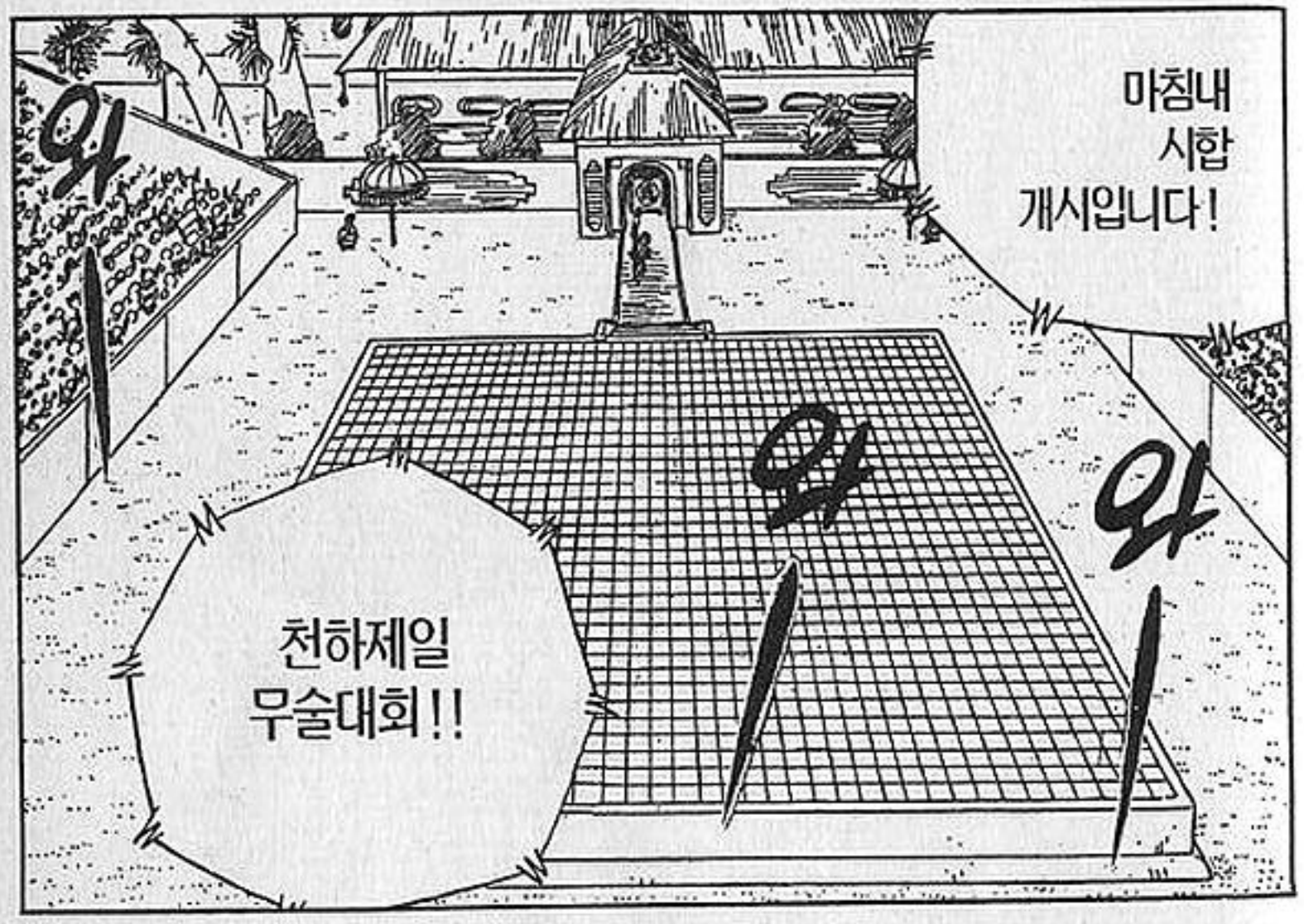

또한 시합이 많은 관계로 제한 시간은 30분으로 하겠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엔 심판진에 의한 판정으로 승부를 결정 하겠습니다.


헤헤헤! 너 같은 놈 쯤은 10초면 떡을 치지~.
알았어, 그만 해!


와….
제한 시간이 있었네!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
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시합
개시입니다!
천하제일
무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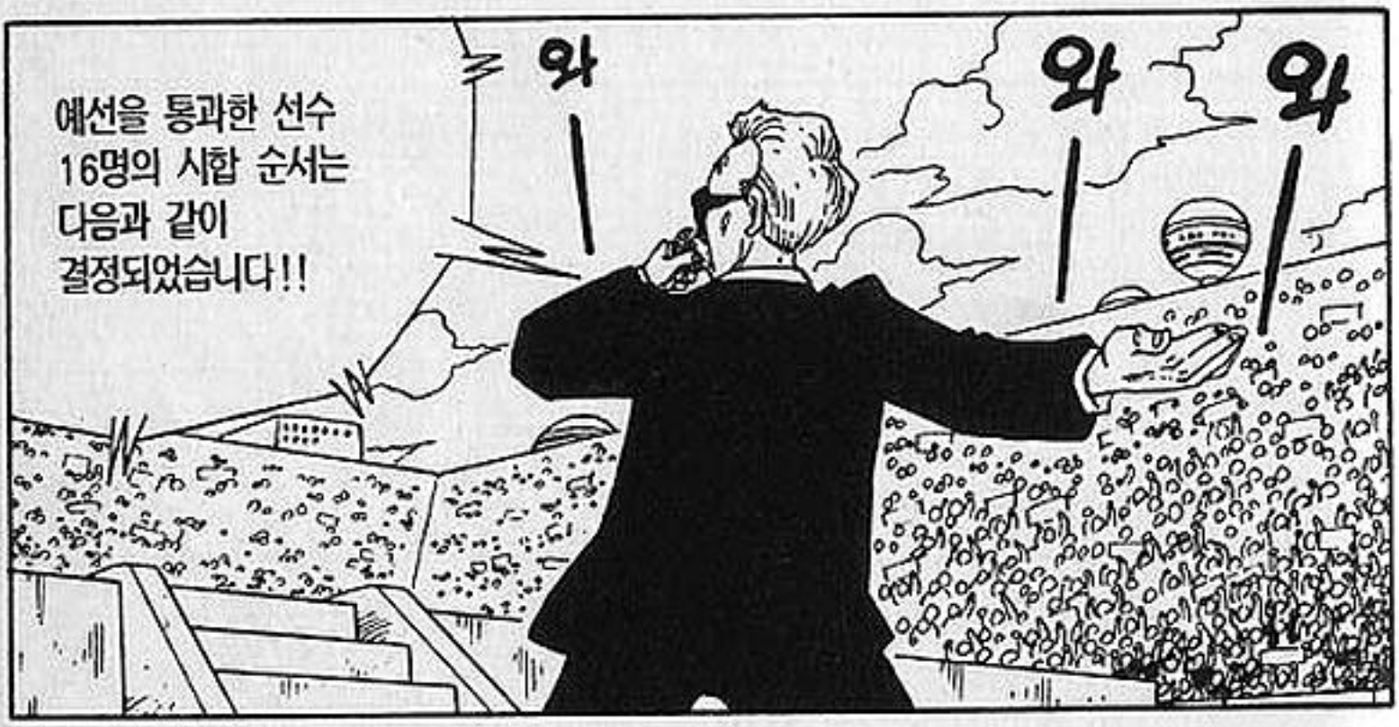

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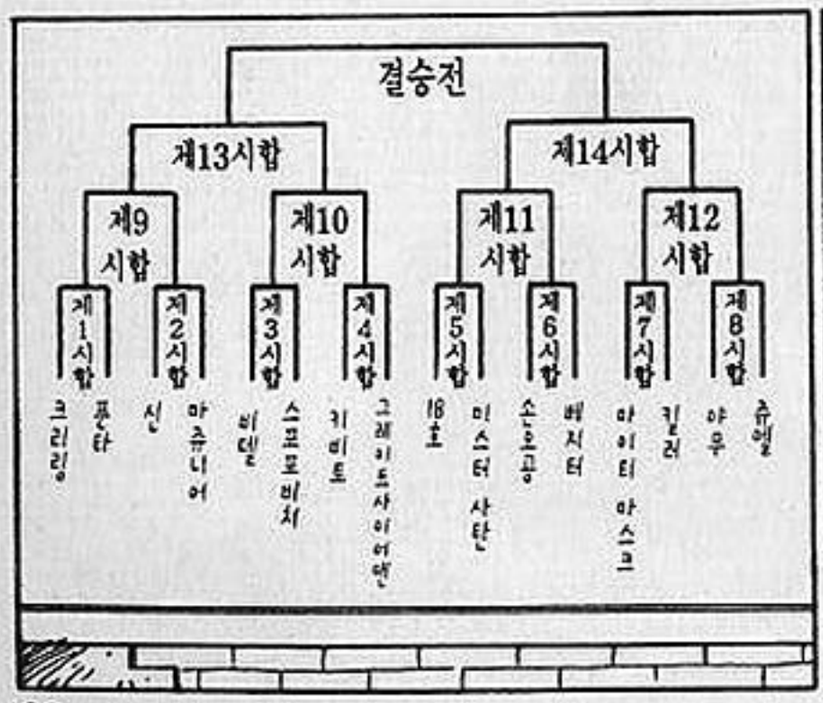

뭐 하는
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악간 예쁘게
생긴 여자
인데요….
그럼…,
상대는?
호~음!
제5시합
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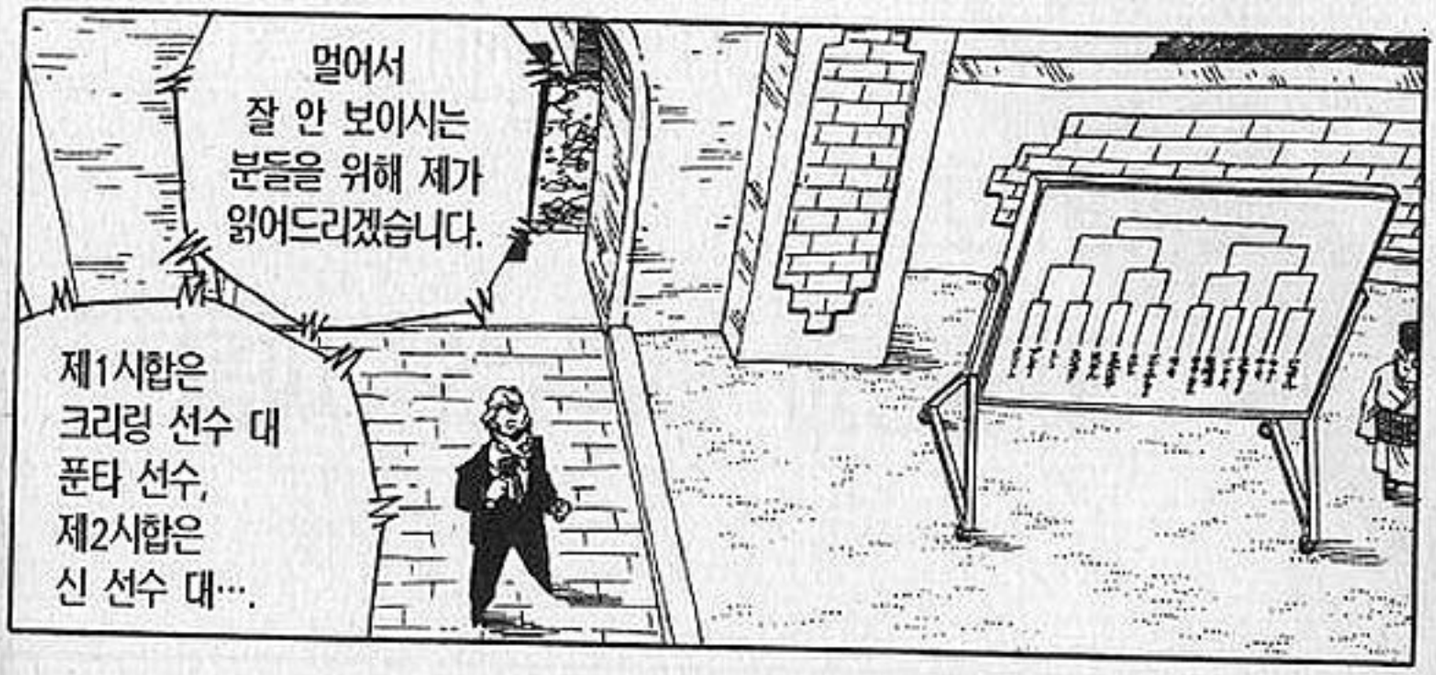
제439화

크리링과 피콜로의 싸움








멀어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시합은
크리링 선수 대
푼타 선수,
제2시합은
신 선수 대….


…이상
입니다.
이 중에서
우승을 차지할
선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자, 이제 시작
시간입니다.
곧 제1시합을
시작
하겠습니다!!


이거
멋진
시합이
되겠다!
저것 봐라!
오공은 뜻밖에도
베지터와
대결하네!


뭐, 너무 걱정 마!
재수 좋으면
병원에 실려가서
살 수도
있으니까!
크하하!
자식! 첫 판부터
나랑 시합하다니,
지지리도 운 없는
놈이야!
슈슈슉
슈슈슉
우선
크리링 선수 대
푼타 선수의
대결!!

저렇게 크고 무식한 사람이랑 아빠가 대결하다니, 무사할까…?

염려 놓으셔, 아무 일도 없을 거다! 네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야!

지구인 중에서 말이지….

와

크리링 선수는 어릴 때 이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올린 적도 있으며, 이번 대회에 오랜만에 출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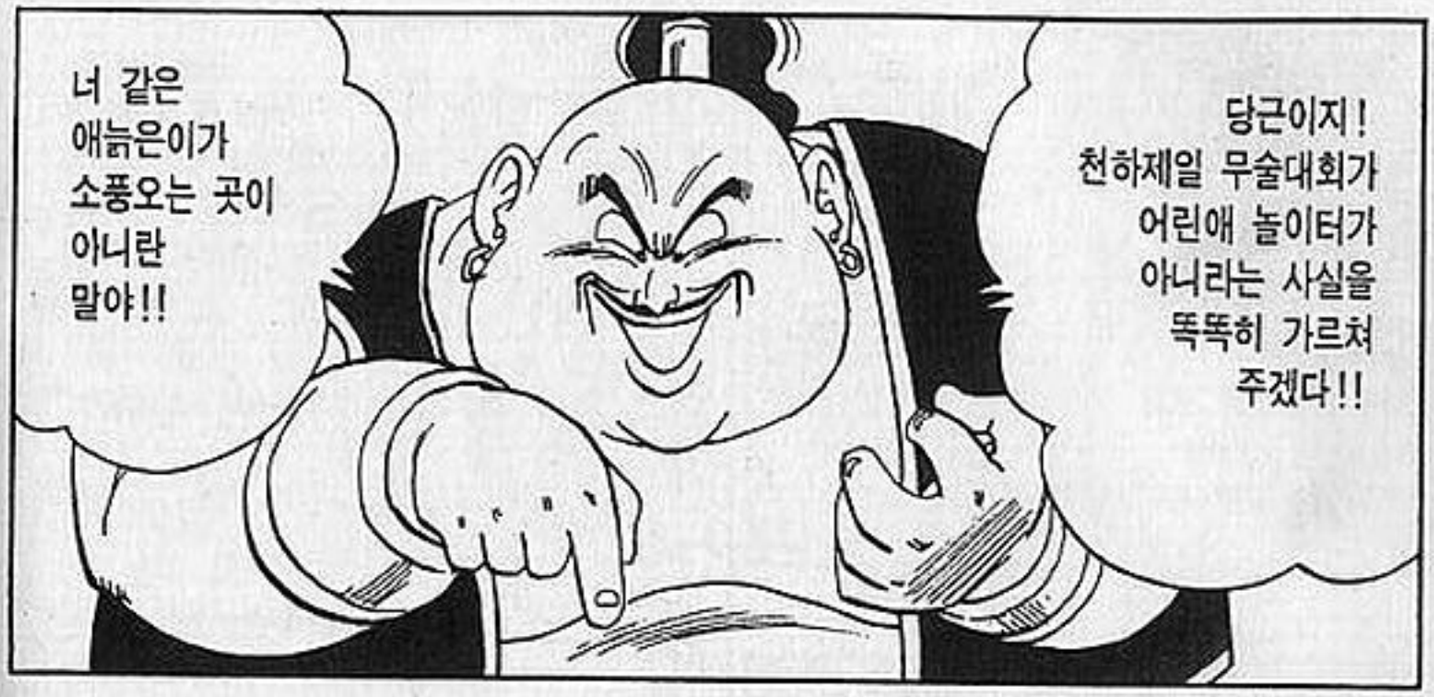
와

그와 싸우는 푼타 선수는 난폭하기로 소문난 선수인데, 지난 대회에서는 준결승까지 진출했다가 아깝게 장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번 대회는 우승을 노리고 출전했습니다!

저런~! 저 정도로 체격과 힘의 차이가 있는데도 푼타 선수는 적당히 때울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온 힘을 쏟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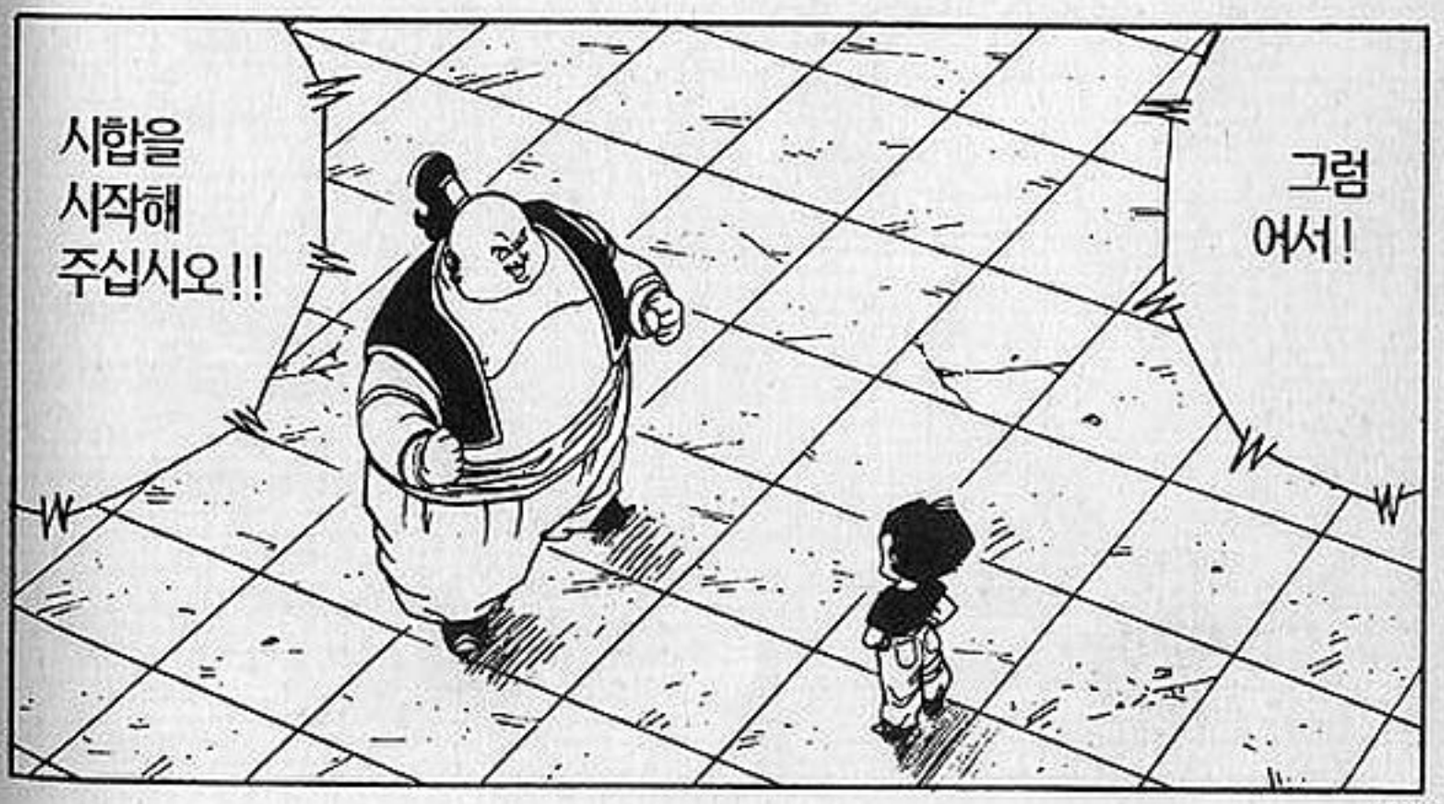
팡

팡


너 같은 애늙은이가 소풍오는 곳이 아니란 말야!!
당근이지! 천하제일 무술대회가 어린애 놀이터가 아니라는 사실을 똑똑히 가르쳐 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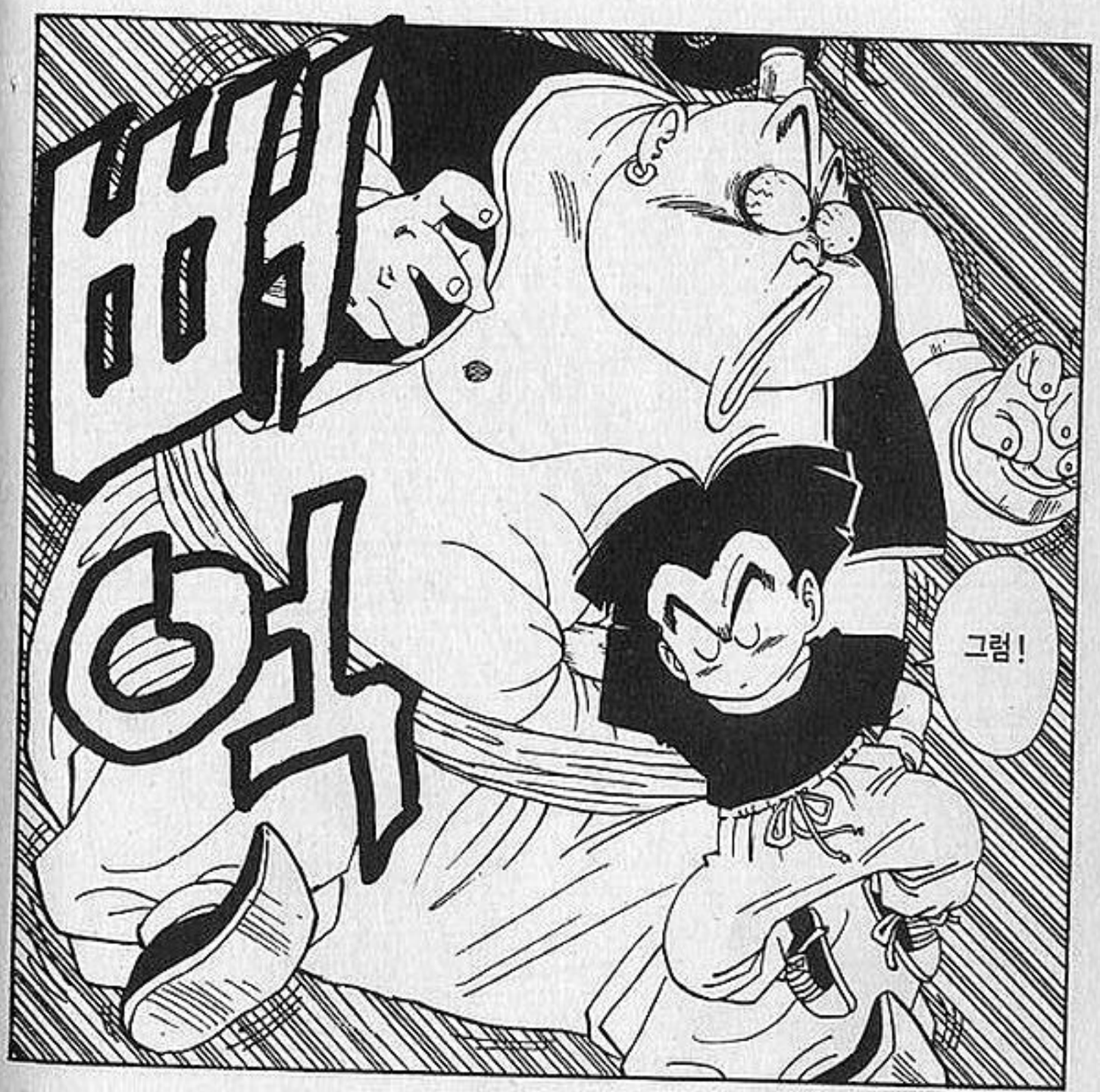

상대가 푼타라면 성한 몸으로 살아 돌아가긴 어렵지.
크리링이란 녀석…, 불쌍하군…!


이런 멍청한 놈에게 체력을 허비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주접 떨고 있네….


시합을 시작해 주십시오!!
그럼 어서!


야앗!!
빙글 빙글
텅
쥐새끼처럼 도망치려 해도 이제 소용 없다는 걸 알겠니?
하하핫! 보시는 대로, 난 몸집은 커도 물 찬 제비처럼 날렵한 몸을 가졌지!


어이구….
그래, 니 잘 났다….
치사해서 안 도망 간다….
크하하하! 벌써 겁먹고 그러냐! 다음엔 나의 강한 맷집을 보여주겠다.
내 배를 한 번 쳐보시지! 자, 사양 말고 빨리 쳐봐!


그럼!


분부하신
대로!


조....옹
우당탕
우와!!
예, 장외 입니다!
크리링 선수의 승리!!
잘하다! 역시 예상대로야!
난 바로 이런 멋진 전하제일 무술대회를 기다리고 있었다구!
대단해 어떻게 된 일이야~
와 글 와 글...


내 생각대로 재밌는 대회군요.
과연….


계속해서 제2시합!!
신 선수 대 마쥬니어 선수의 대결을 시작 하겠습니다!!


그럼, 양 선수 입장!!


저, 저기 말이죠…. 이번엔 경기장을 부수지 마세요….


대결하는 마쥬니어 선수는, 그 옛날 우슬대회에서 보여준 결승전 시합이 상상을 초월한 멋진 시합이었다는 사실을 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 선수는 이번이 처음 대회출전 이랍니다!


마…, 맞아! 틀림없이 텔레비전에 나온 그…!
이… 이 봐! 저 사람은 미스터 사탄이 셀과 싸울 때 방해를 하던 녀석들 중 한 사람이잖아?


알. 알 알
대체 왜 저래? 그렇게 저 신이란 사람이 마음에 걸리나…?
글쎄…, 그게….


전혀 짐작도 안 가는 저 녀석의 전투력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이제 알 수 있겠군….
자, 이제 제2시합을 시작해 주십시오!!


도… 도대체 이 녀석의 정체가 뭐야…?


이… 이게 웬일이지…? 이 녀석과는 어쩐지 싸우기 어렵다….
처… 처음 만난 녀석인데….

하지만
지금은 게임이나
즐깁시다!!

이제 곧
알게 됩니다.

뭐!?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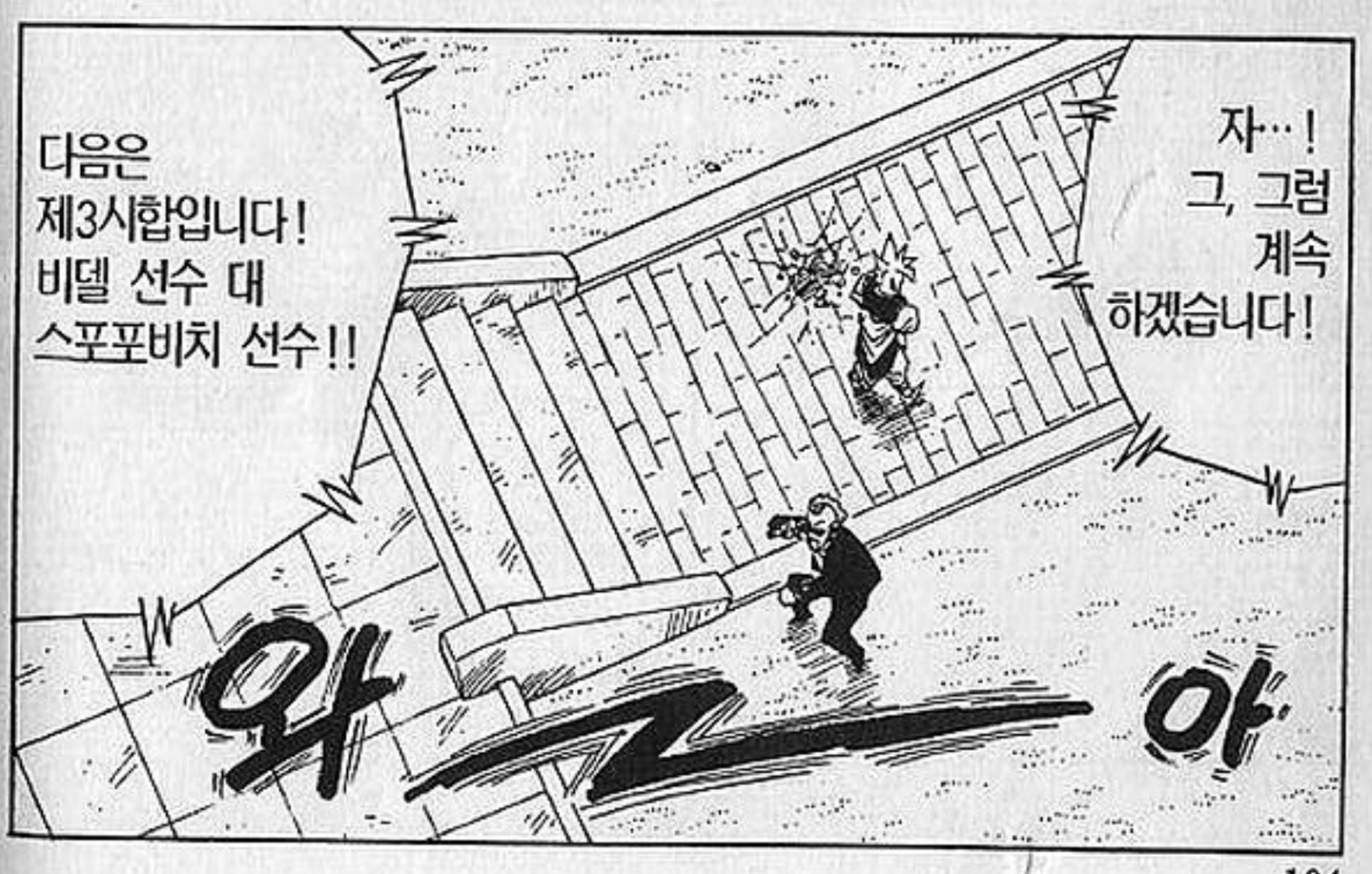
아니…,
저…,
기권이라면 싸우지
않겠다는
건가요…?

미…
미안하다.

난…,
기권하겠어….


마… 마쥬니어 선수는 기권했기 때문에 신 선수의 부전승입니다…!
쑤군…
쑤군…
왜… 왜 그러지? 어떻게 된 거야? 몸이 어디 아픈가…?
맞아…, 이 사람은 원래 이 별의 신이었지. 조금은 내 정체에 대해 눈치를 채기 시작했을지도 모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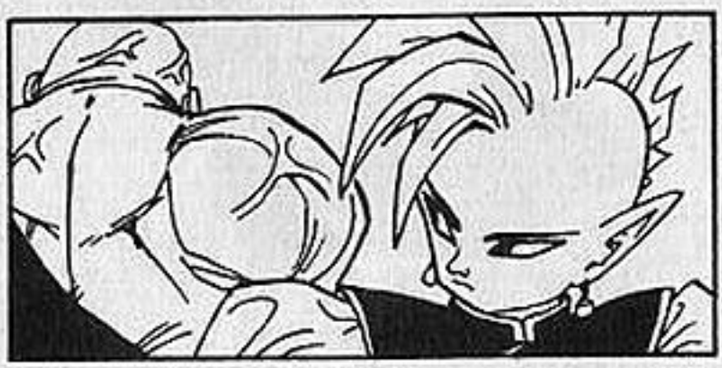

서…, 설마! 너, 펭이지? 내, 내가 다음에 싸울 상대가 신이란 말야…!
그래….
나와 차원이 틀린 상대야….
그냥 포기하는 거니, 피콜로…?


다음은 제3시합입니다! 비델 선수 대 스포포비치 선수!!
자…! 그,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와
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델 선수는 미스터 사탄의 따님이시며, 경찰을 도와 많은 악당들을 체포하는 데 협력해준 정의의 사자입니다!
7년 전의 지난 대회에선 조그만 소녀의 몸으로 소년부에서 우승한 경력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상대 선수 스포포비치는 지난 대회엔 1회전에서 패배했지만,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서 재도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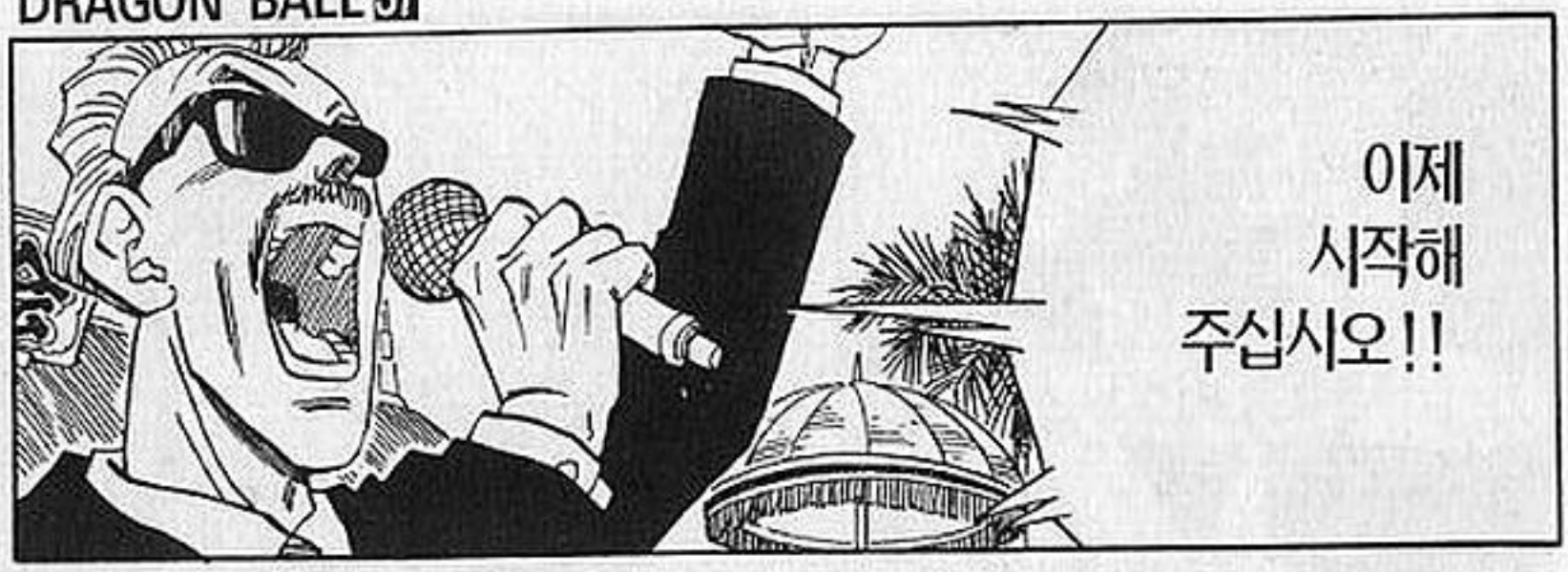
제440화 뜻밖의 신의 정체




왠지
기분 나쁜
녀석이야….
비델!
……
푸—!
비델!
푸—!
푸—!
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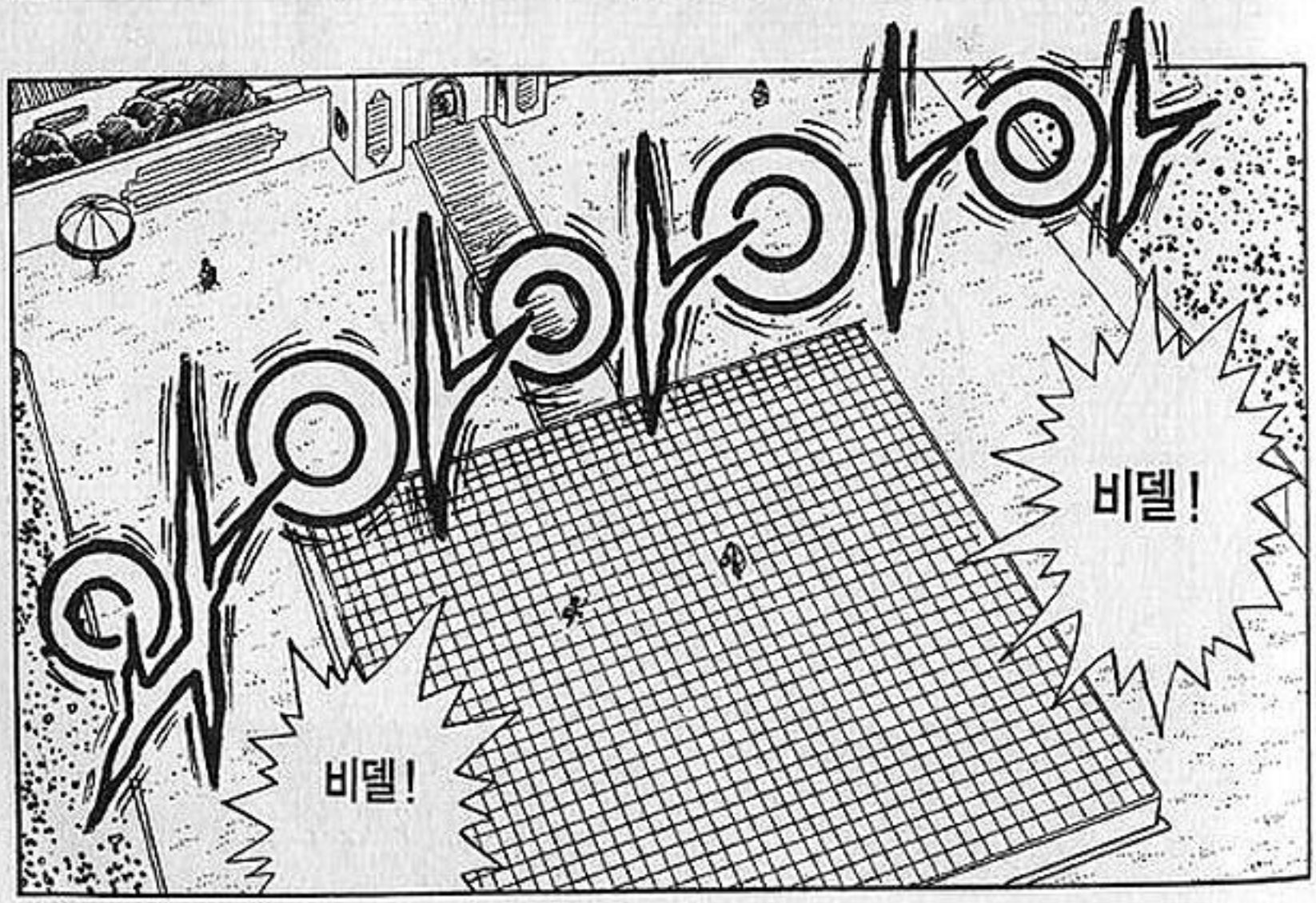

와 와
걱정 마!
비델한테 걸리면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이라구.
비델,
힘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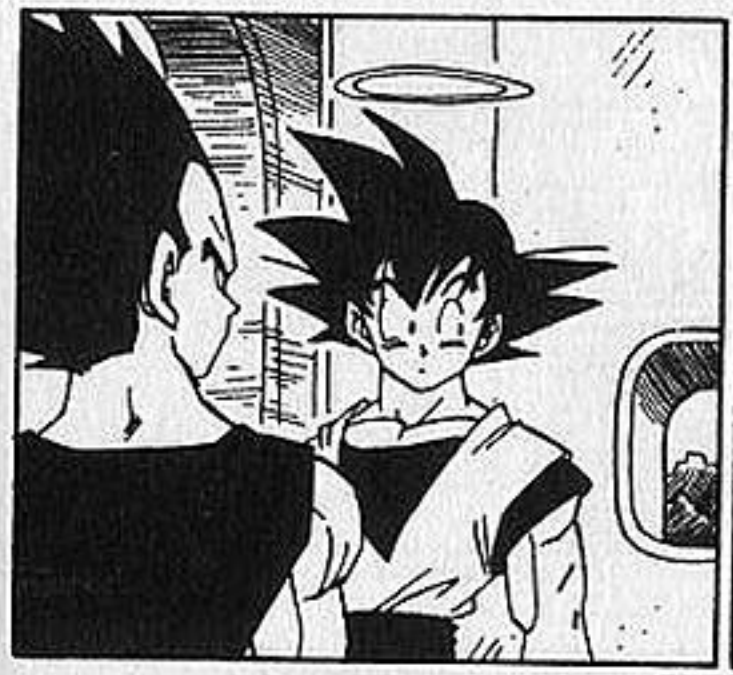

그래…,
처음 봤을 때
녀석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
였으니….
스포포비치
녀석, 모습이
완전히
변했는데.


이제
시작해
주십시오!!


푸-!
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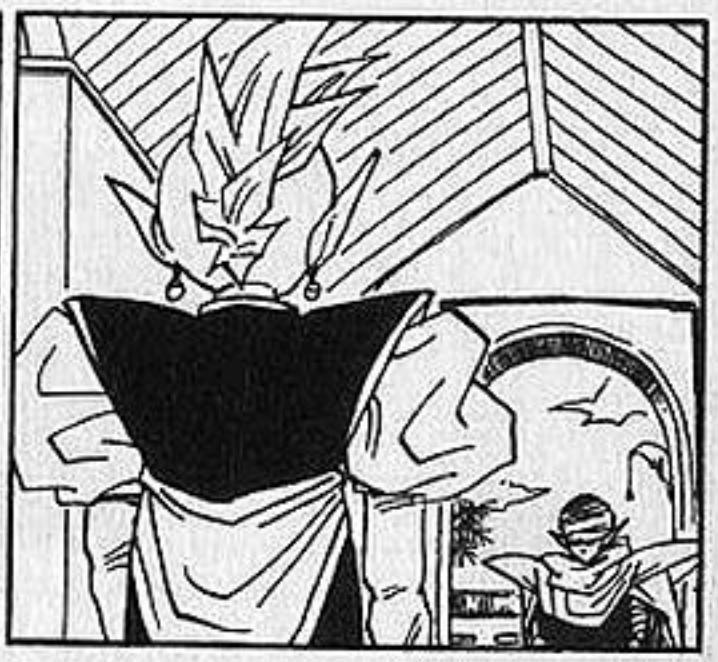

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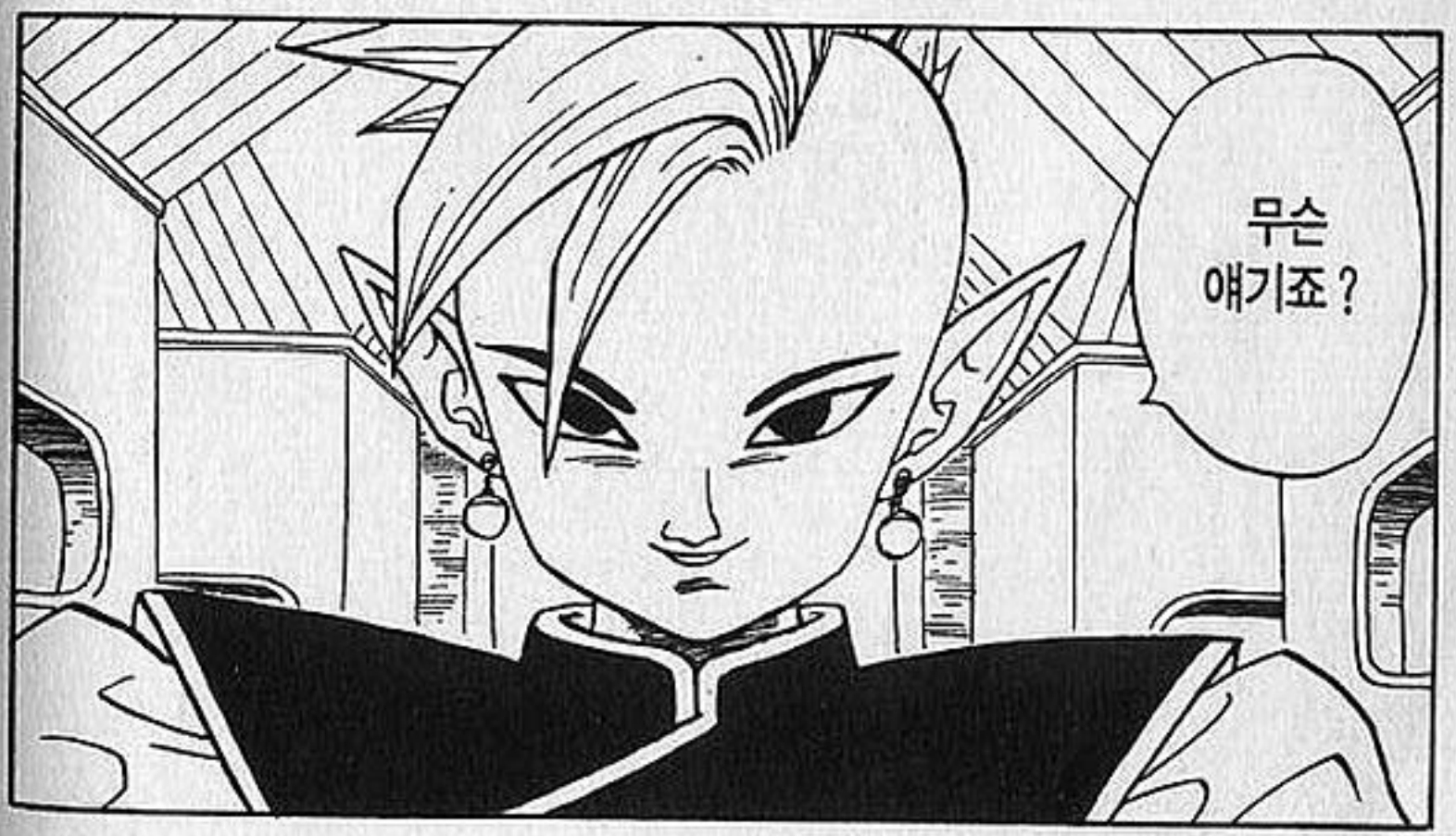

비델!
비델!






다…,
당신은
혹시….
제 예상이
틀릴지도
모르지만….




무슨
얘기죠?


아니오.
그렇지 않아요….


대계왕님이 아니신지….
호…, 혹시…,


계….


계왕신 님이다!


계왕신 …!!


잠시만 잠자코 모른 척 하세요.
지금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으니까.


네… 네 명의 계왕님 중 가장 높은 대계왕님….
또… 또한 그 분 위에 계왕님들의 신이 있다는 소문은 들은 적이 있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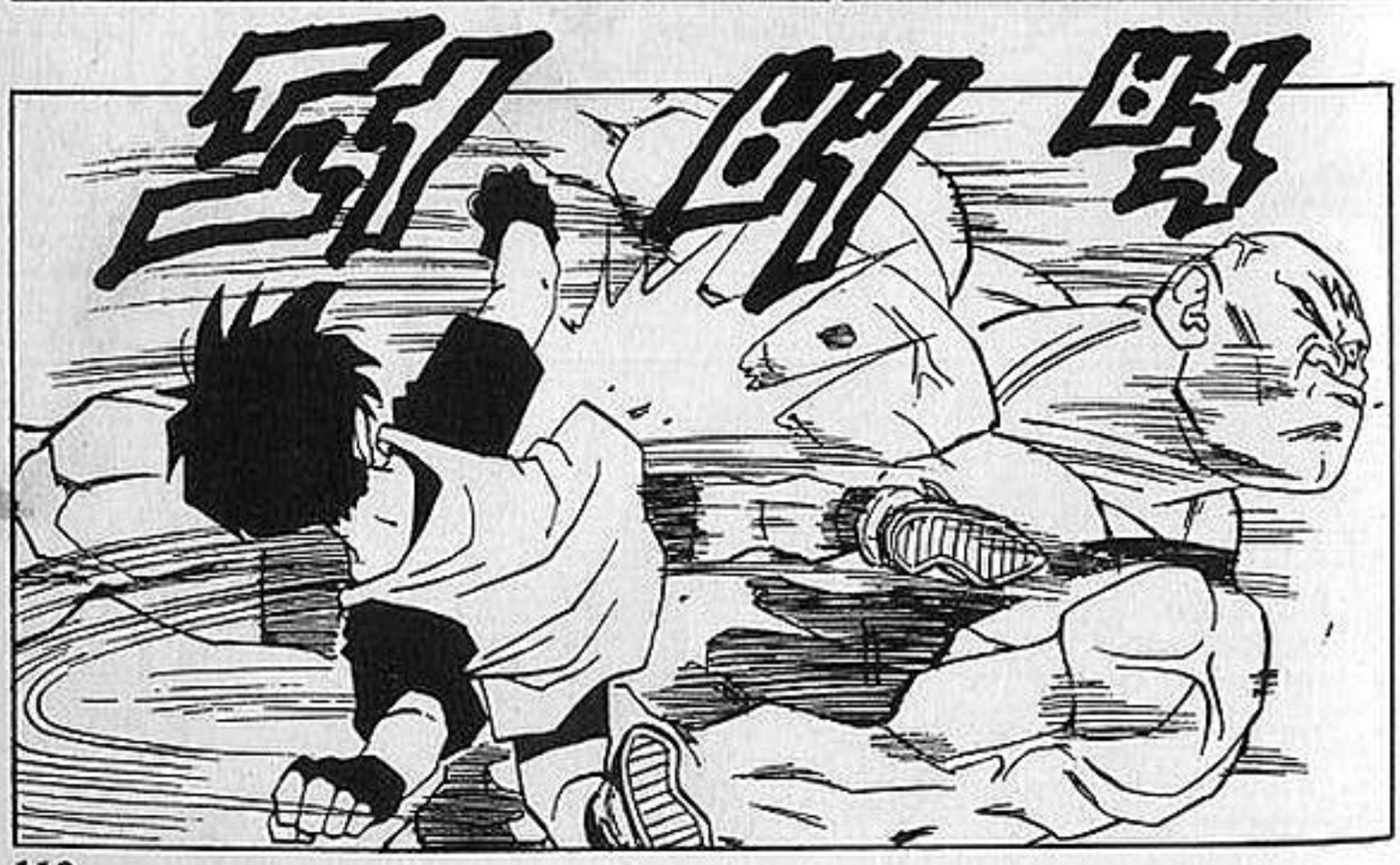

계….
계… 왕… 신… 님…!


왜 그래, 피콜로…? 저 녀석이 너한테 시비라도 걸데? 내가 확실히 교육시키고 올까?


잠자코 있어!
제발 부탁이야!
아무소리 말고
있어!!
아니야!
안 돼!!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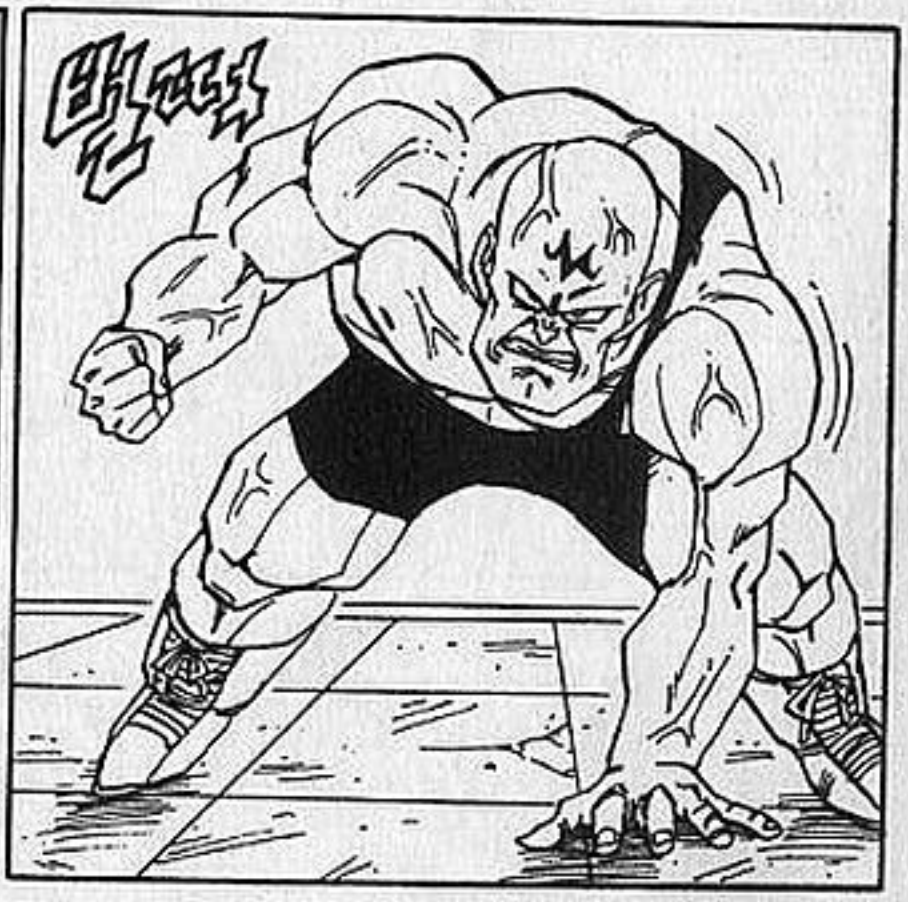

도대체
무슨 일로
저 분이
지구 같은 델
가셨지…?
저… 저 소년이
계왕신님이라고…!?
나, 나도 만나뵌 적이
없는데….
으으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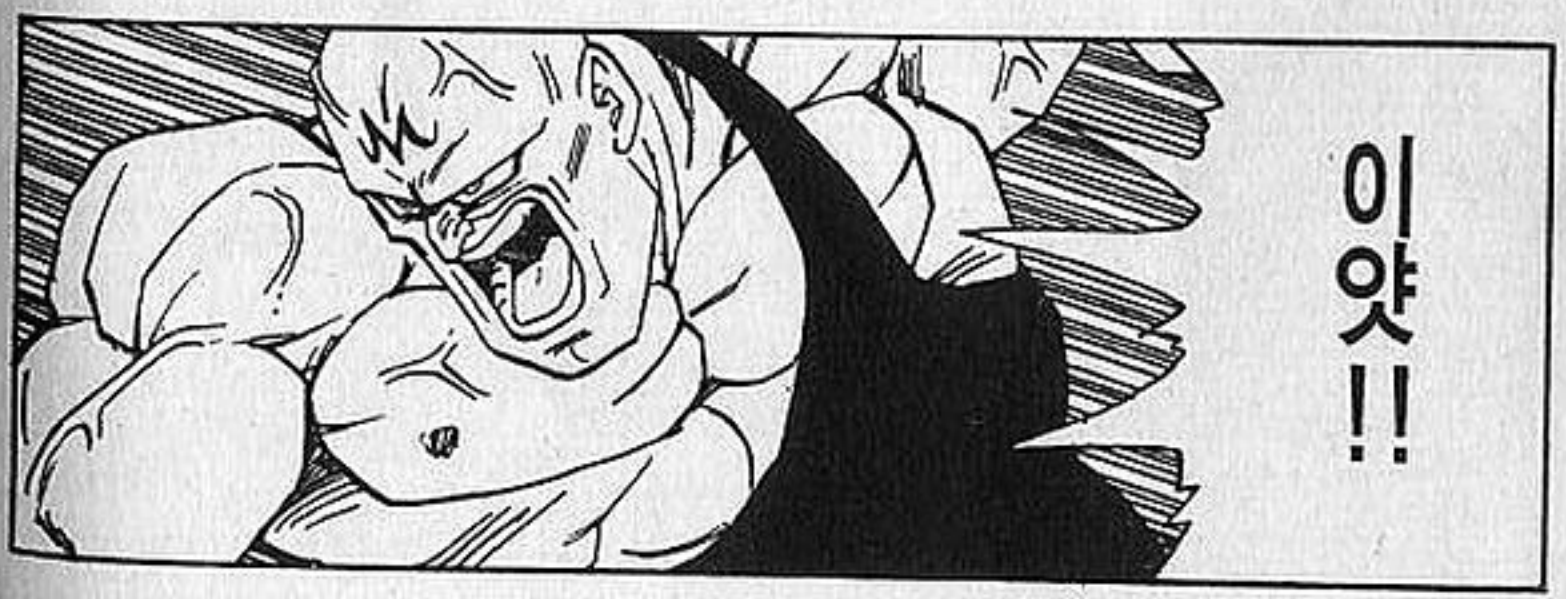





와당




번쩍


이얏!!


저 여자앤 좀 어떠니?
상당한 실력이야!
와 와
응, 실력은 월등히 앞서.
계속 공격을 성공시키고 있거든.

멋지다!

와와

잘 한다!

헉!

헉!

역시 천재소녀입니다! 거한 스포포비치 선수, 손 한 번 뻗지 못하고 있습니다!!

꽈당

또 다시 다운!!

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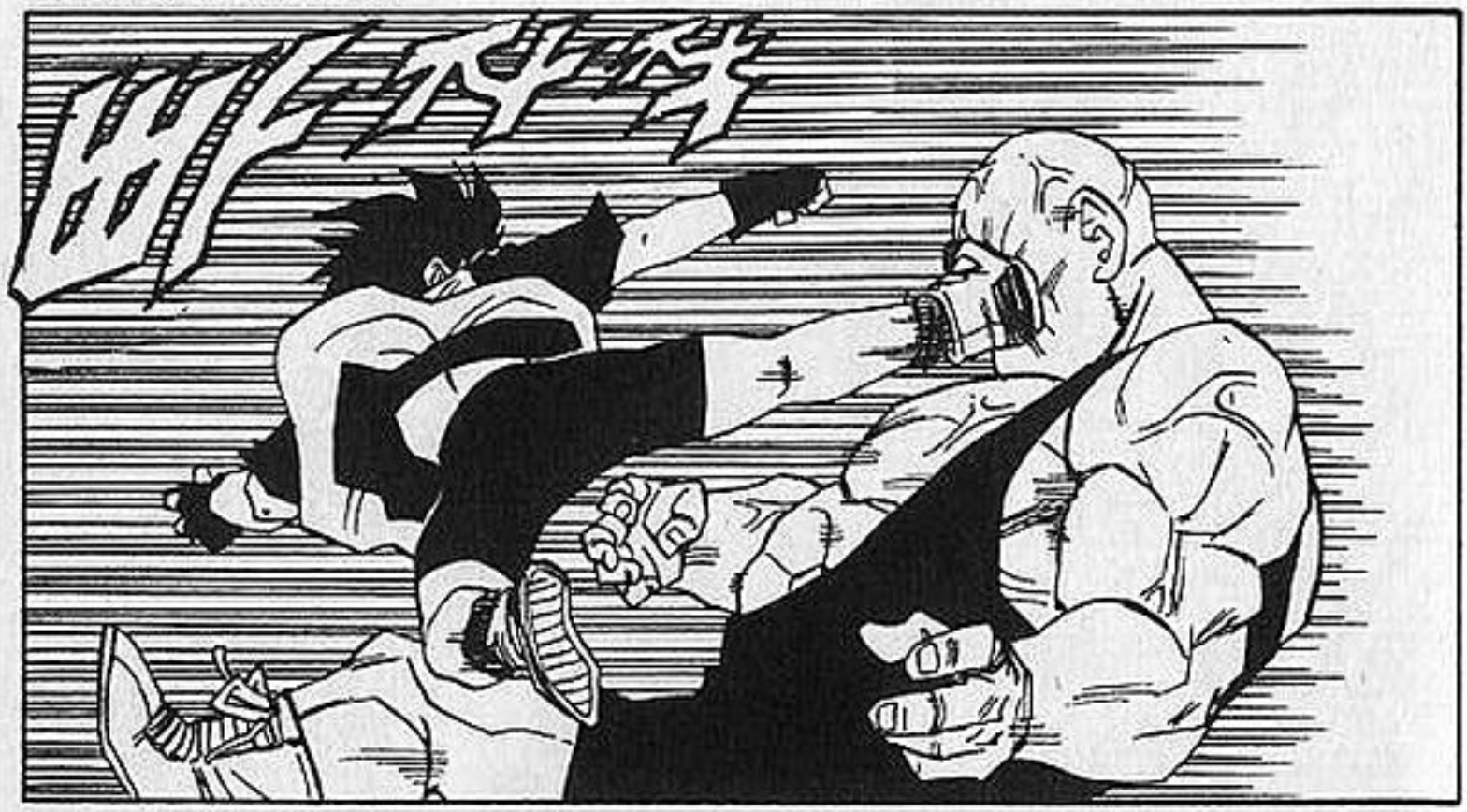
스읏

아니! 스포포비치 선수, 다시 태연하게 일어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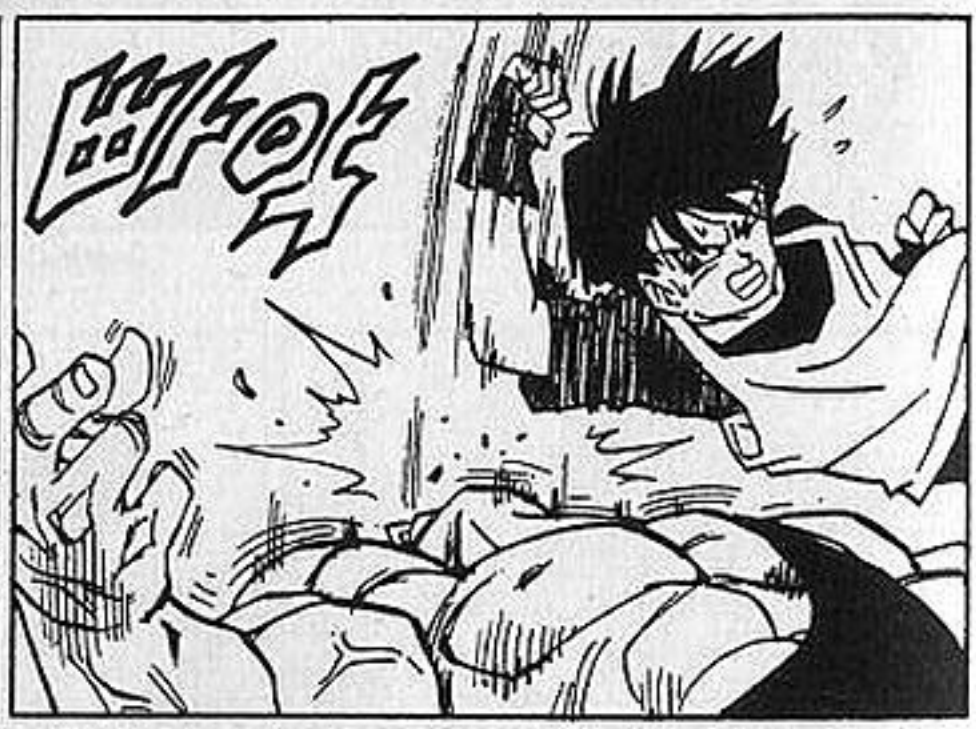
정말 대단한 맷집입니다…!!

다다다

끈질긴 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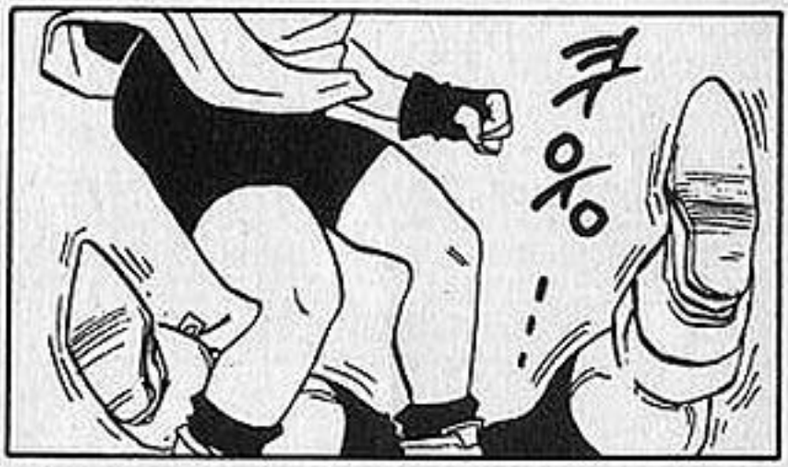







야앗!


퍽!!


쿠앙!!


잘한다!
끝냈어!!


헉!!
헉!!
헉!!


……


!!
번쩍


아니…, 저럴 수가…!


HI 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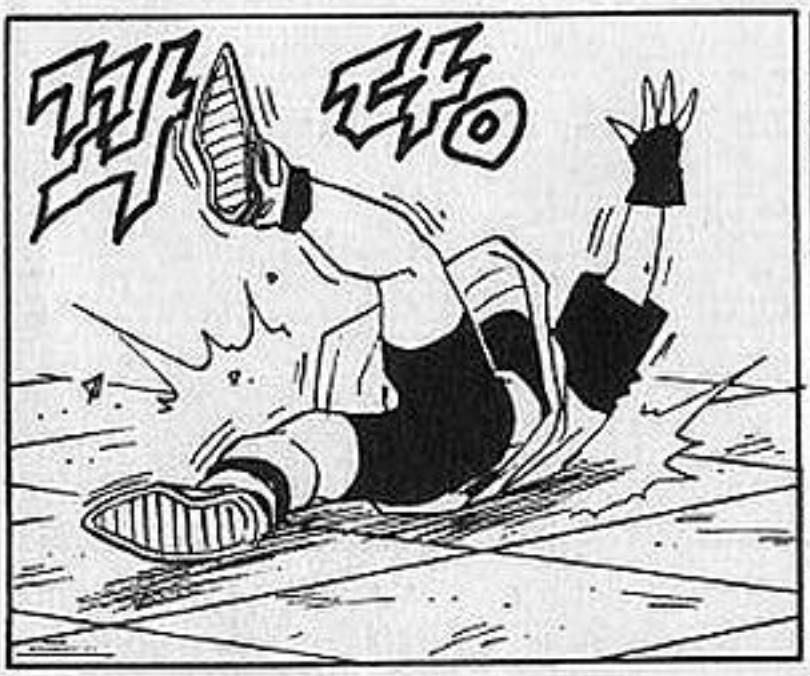

뭔가 좀 이상한 녀석이야!!
시합을 기권하는 게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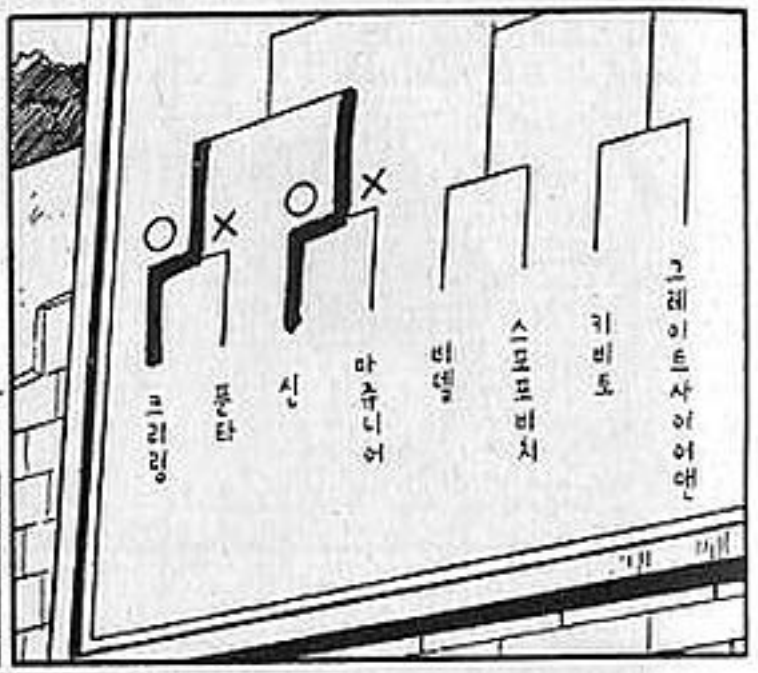

쿠!!



제441화

위기에 빠진 비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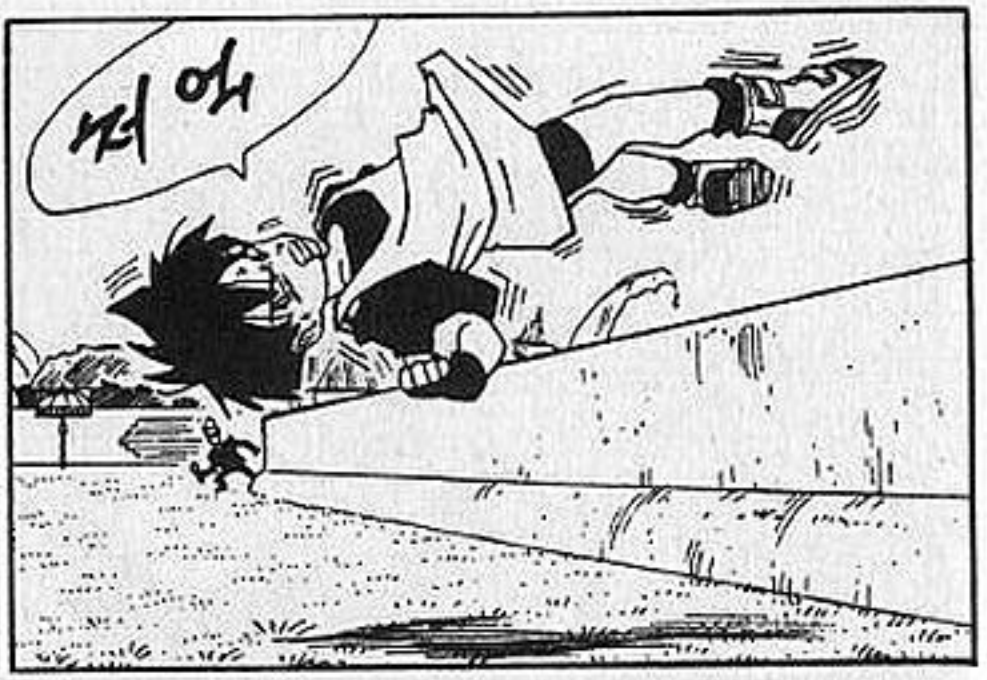



아앗 !!
떠, 떨어 진다 !!




!!


아니!?


꺼 어


장외패가
아닙니다!!
저… 저럴
수가!!
비델 선수,
공중을 납니다!


우와!!


퍽

비델, 잘한다!
내가 저한테
무공술을 가르쳤어.

헉!

헉!

헉!

그렇게 수많은
공격을 당하고도
끄떡이 없고,
생기 자체가
느껴지질
않는데….

아무리 봐도
저 스포포비치란
녀석은 좀
이상해….

응?

차라리 지금
장외로 떨어져
지는 게
좋았을지
몰라….

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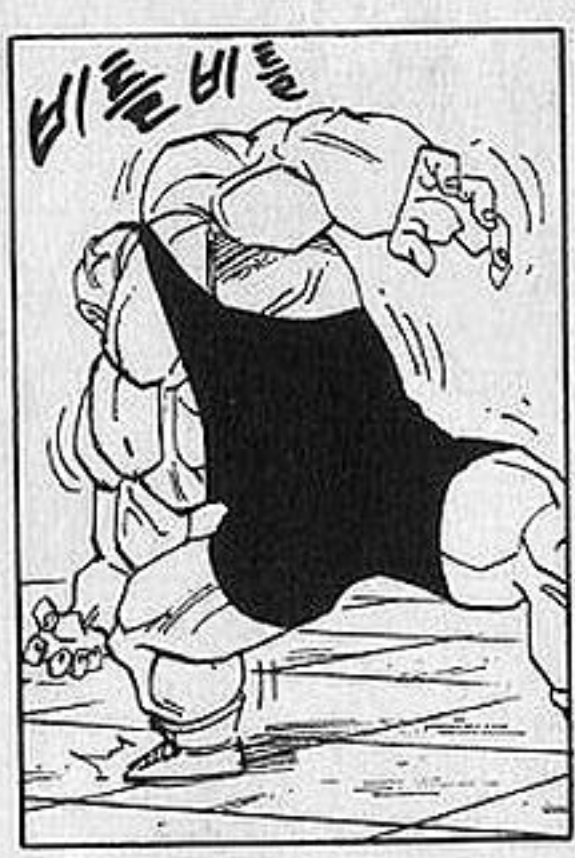
푸-!

푸-!

왜… 왜
그럴까…?

글쎄,
그것까진
나도 잘
몰라….


하얏!!


비틀비틀


퍼버버


!!


헉!
헉!
헉!



아니!!
스, 스포포비치 선수의 목이 부러진 것 같습니다!!
으아아 아아…!
사… 사람을 죽였다!
뿌득 뿌드득…
앗!!
빠직
아, 아니! 저럴 수가!! 목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게 도대체 어찌 된…!
뚝
뚝뚝
……!!


크흐!
뭐… 뭐가 이래…!?
이 자식….
으윽…!!
으윽…!!
크흐! 크흐!
앗!!

크아아!!

오공 얘기가 맞아.
빨리 항복하는 게
좋겠다…. 분명
저 녀석은 보통 인간이
아냐….

헉!

헉!

아앗!
비델 선수,
또 다시
날았다!!

부우웅

헉!

헉!

그래,
잘 생각했어!
일단 공중으로
도망쳐서 체력을
회복시켜라!

날았다!!

녀석도!

!!

이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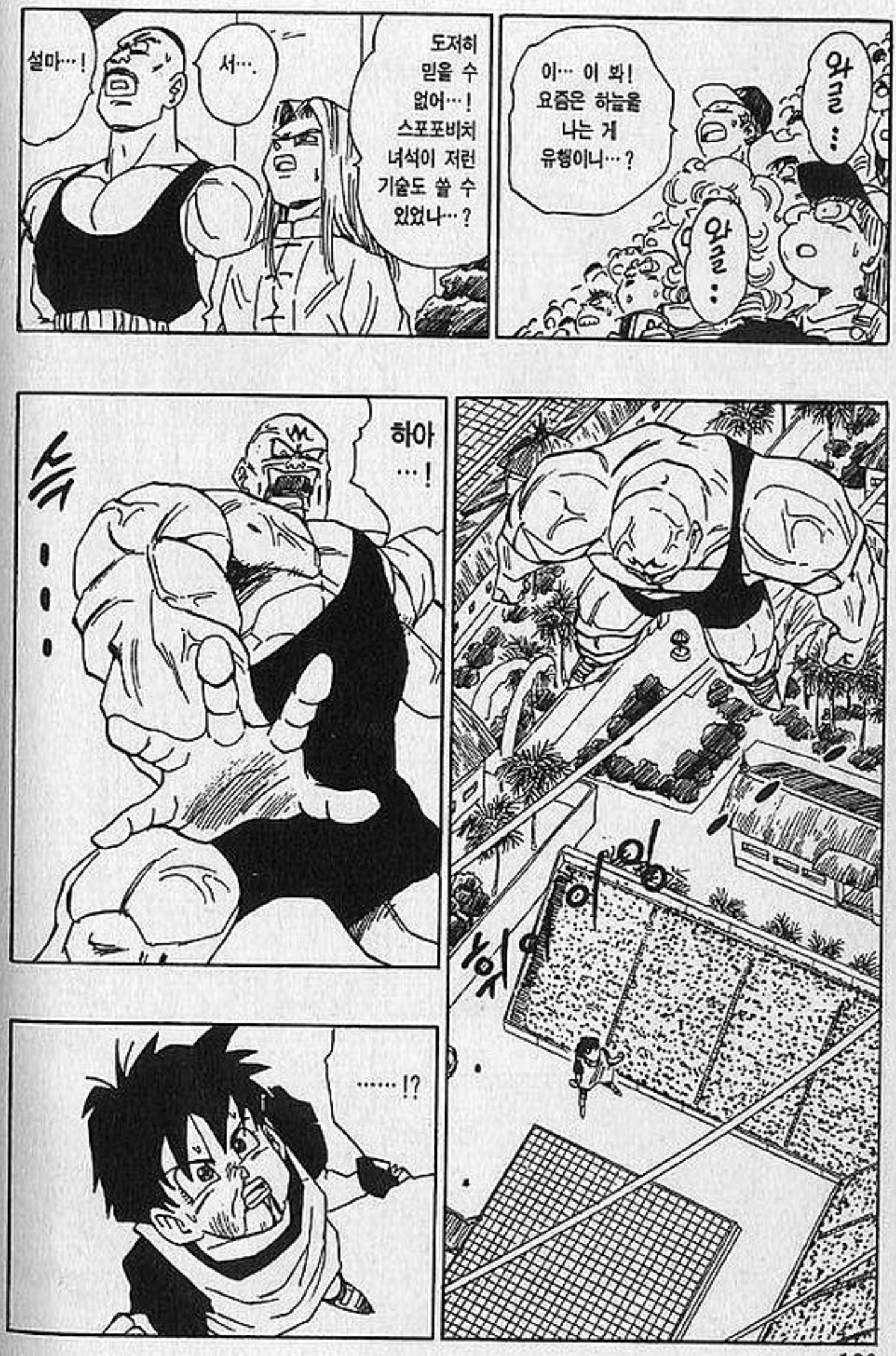
이럴 수가!!

스포포비치 선수도 하늘을 날았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응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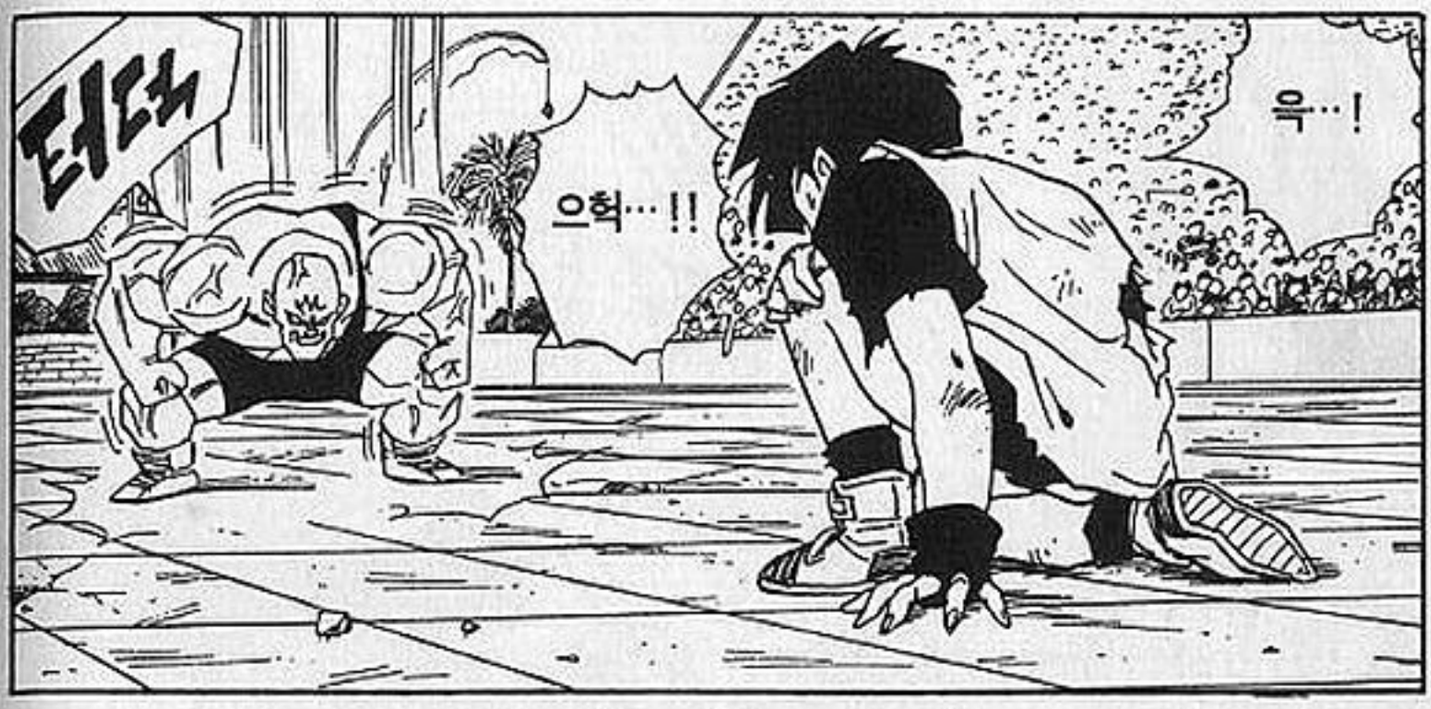
와글…
와글…
이… 이 봐! 요즘은 하늘을 나는 게 유행이니…?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스포포비치 녀석이 저런 기술도 쓸 수 있었나…?
서….
설마…!
휘이이잉
하아…!
슥…
……!?

하앗!!

휘잉

휘잉

휘잉


터더더
으헉…!!
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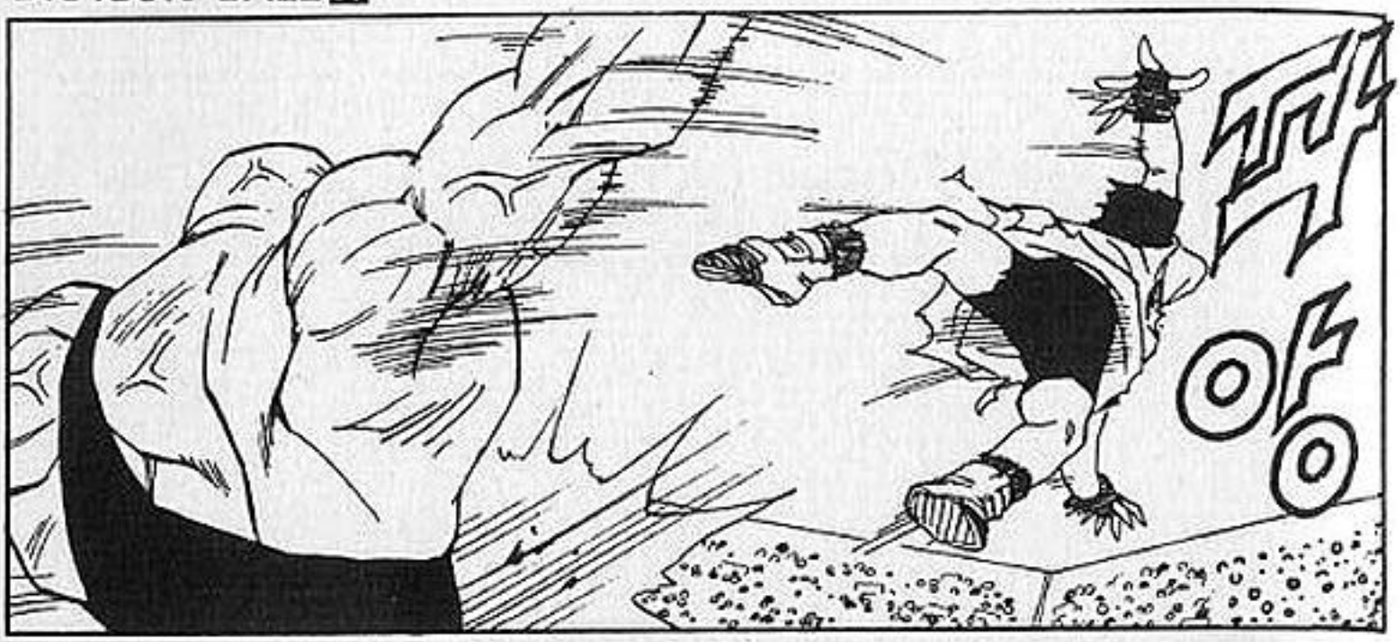

상대를 죽이면 패하게 되니까 일부러 약하게 쏜 거라구….
아냐….


아… 아니, 저 자식이! 대단한 위력은 없지만, 기공파를 쓰다니…!


터더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녀석은 자신의 능력을 훨씬 초월해서 거대한 힘을 가지게 된 것 같아….


저… 저 녀석이 어떻게…!?
……


깡
앙


절대
안 해….
하…,
항복
따위는
안 한다….
허억!
허억!


쾅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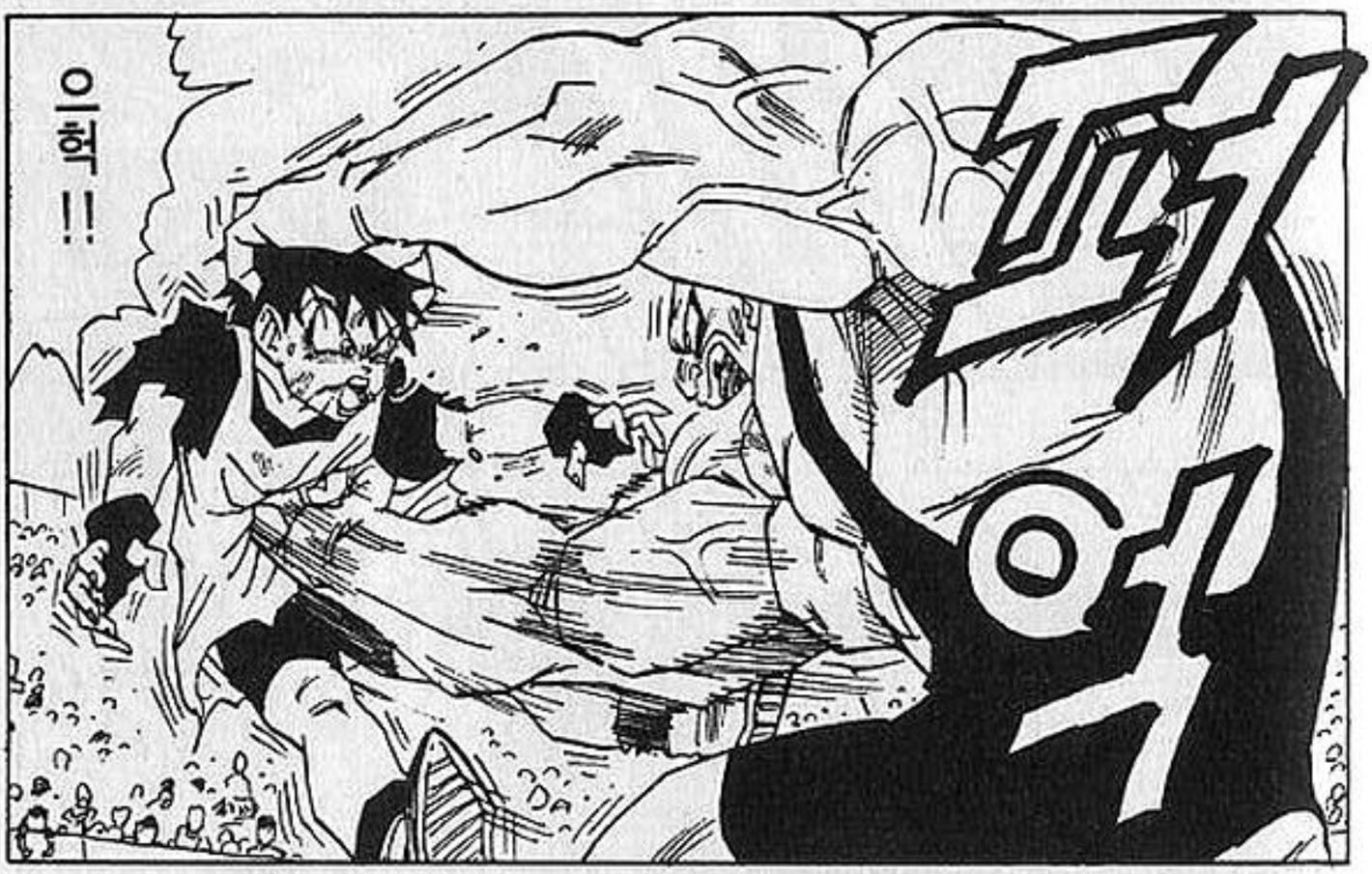

저…
저 자식….
비…
비밀.
이젠 제발
항복해다오…!


퍽
퍽
퍽
저, 저놈….
너무 하는 거
아냐…!
그만 멈춰…!
너…
너무
심하다….


뻐억



제442화 오반의 분노 폭발!!








퍽
으아…!
억…!
제발 항복해, 비델!!
이, 이미 넌 최선을 다 했어! 그만 항복해!!

너…, 널 정말 죽일지도 몰라…!

저 자식은 여자라고 해서 봐줄 감정 따윈 없는 녀석이라구…!

지… 지금 그런 고집 부릴 때가 아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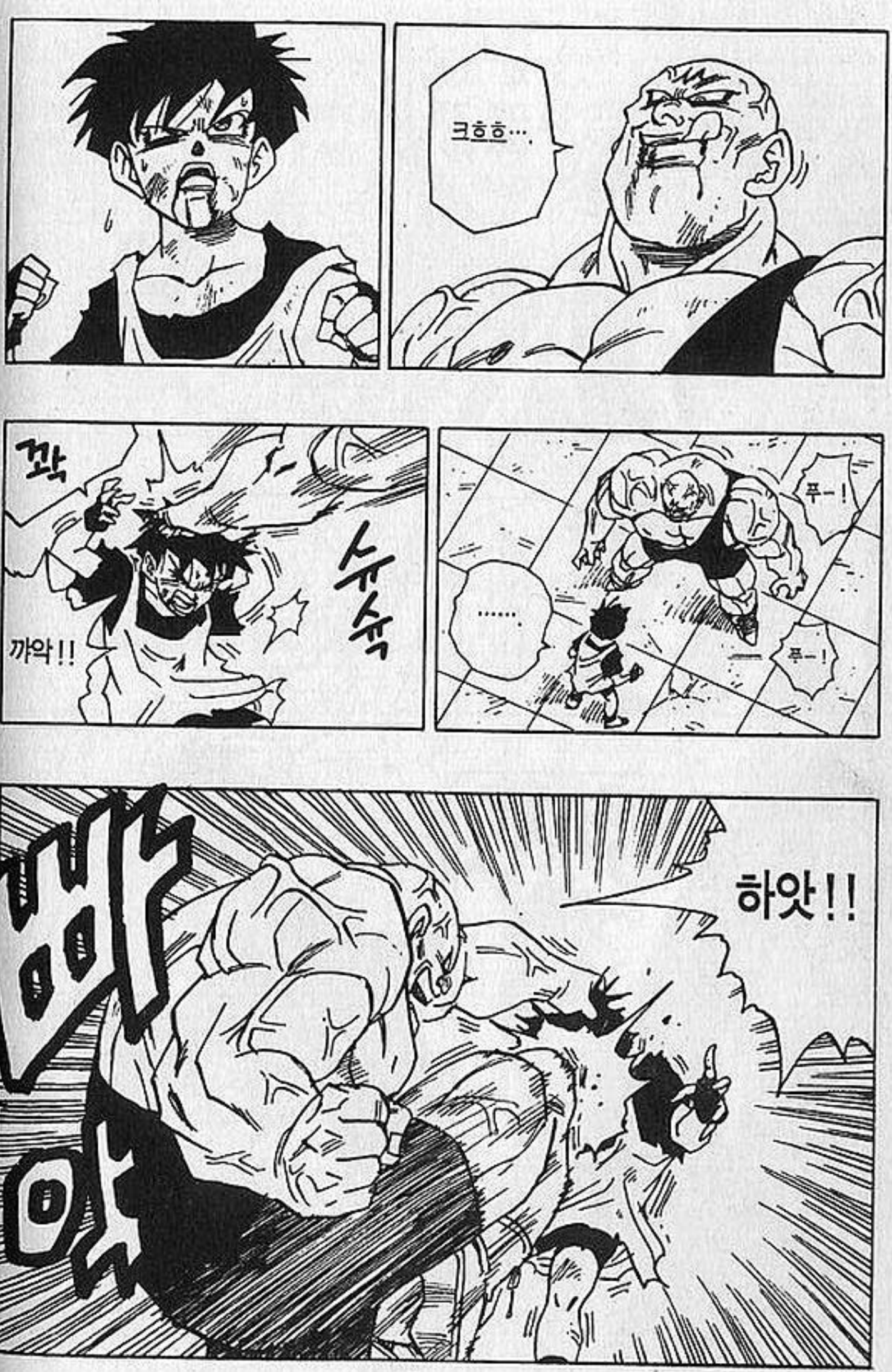
웃기지 마…. 난 절대 항복 안 해….

제…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필리 항복 하는 게….

하앗!!

크흐흐!

허억! 허억…!


크흐흐…
꽉
슈슉
까악!!
푸-!
……
푸-!
빠악
하앗!!

커컥…

컥…

!!

꽈당

저렇게까지 지독한 짓을…!

자…, 잔인한 놈…!!

으…

으드드득…!!

오, 오반! 참아! 너무 걱정 마, 죽이진 않을 거라구!!

저… 저런 나쁜 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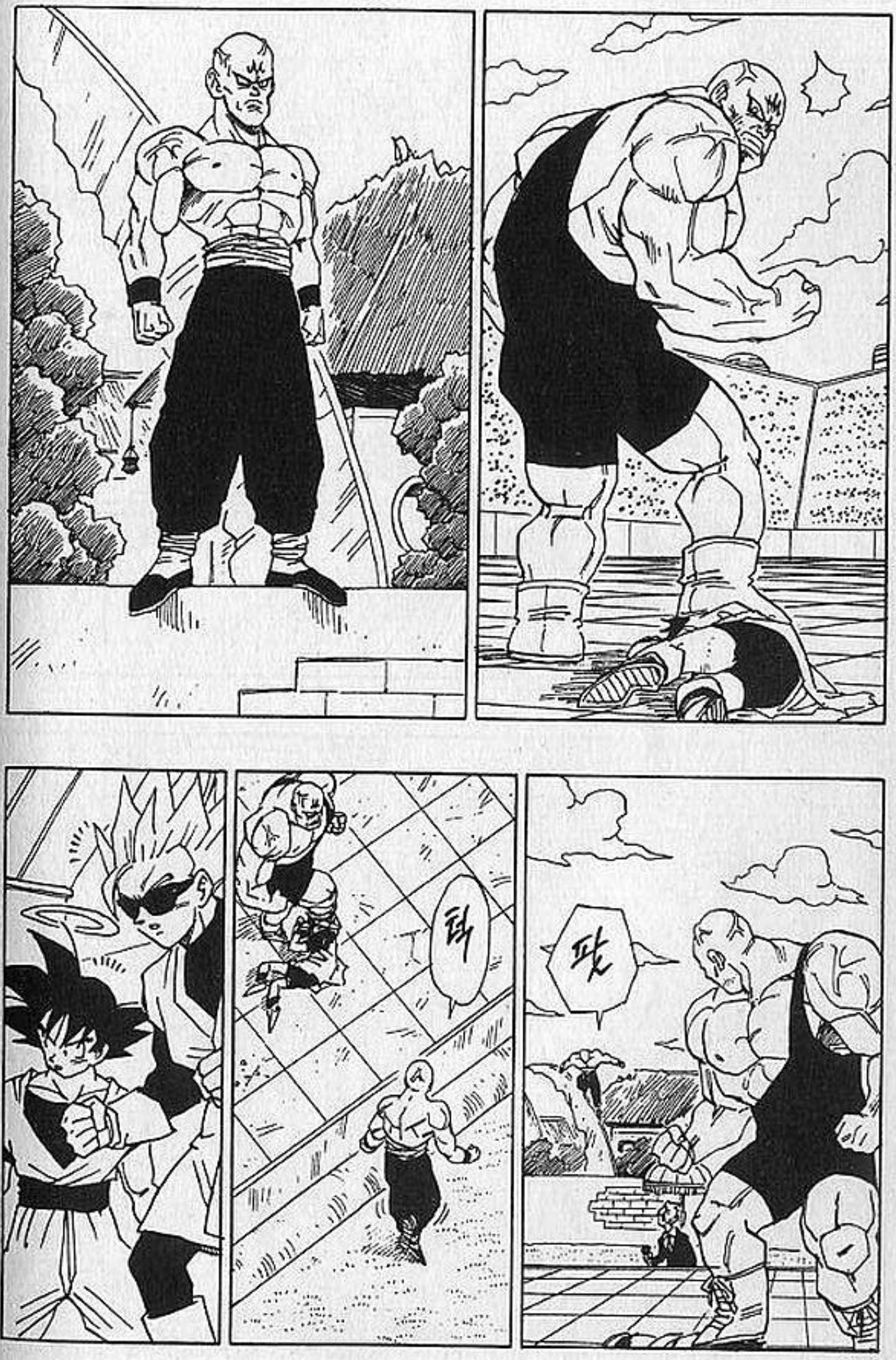
비… 비델…!!


부르르…
이앙악…!!
쿠욱
억!!
으아아아…!
아아악…!!
저럴 수가…!
그, 그만 멈춰! 멈추란 말야!!


너… 너,
이 자식!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빌어먹을
자식아…!!
빠작


유치한
장난은
이제
그만
해라!!
스포포비치!


오,
오반!
그럼 안 돼!
진정해,
오반!
싫어!
파


퍽
텨

으…
으…,
알았어….

우리의 임무는
이런 게
아니잖아.

으…
으윽….

잘
잘…

빨리
이겨버렷!!

스포포비치
선수의
승리입니다…!

자…,
장외…!!

털썩

타닷

武

푸슉…



아니요! 제가 데려갑니다!!
으… 으윽…!!
비, 비델—!!
드, 들것을 가져올게요!
스포포 비치…!!
난 너만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각오해라!


펄


알았어,
내가
카린 님한테
가서
받아올게.


누구
선두 가진 거
있니?
어. 없어!
여긴 그냥
소풍 온
기분으로 왔기
때문에….


다행
이다!
그래,
선두…!


오반아, 안심해!
지금 오공이
선두 가지러
갔으니까!


타닷


머, 멍청하게
너무
자신만 믿고
방심한
거겠지!!
탓


비델은
세상에서
나 다음으로
강한
아인데!!
어, 어떻게
그런
터무니
없는
일이…!


비델이
큰 부상을
…!?
뭐…
뭐야!?
져…,
졌단
말야!?


이거 너무 지독하게 맞았구나!!
이….
허억….
허억….
비, 비델!!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친절하게 비델 씨를 여기까지 안고 왔어요!
너, 넌 뭐 하는 놈이야…! 혹시 네가 이렇게 만든 거냐?
생명에는 지장 없다니까 안심하세요.
다음 시합에서 이기면 2회전에선 그 자식과 만난다….
응…!
오… 오반…! 내… 대신… 녀석에게 복수해줘….
방해가 되니 여기서 나가거라!
그랬니? 고, 고맙다. 다음에 내 사인을 줄게.
예…, 그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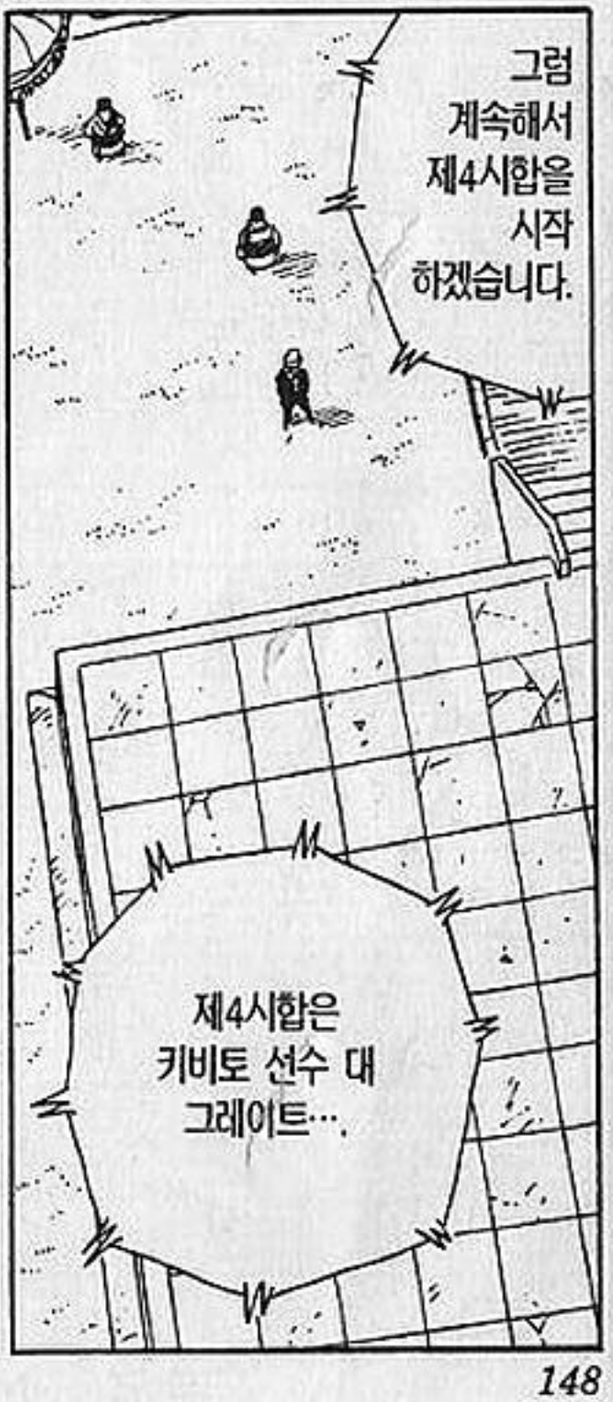




다음은, 제443화 시작된 작전


저-! 조금 전 비델 선수는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와글
와글
와글
그러니 비델 선수의 팬 여러분은 안심해주십시오!


자, 잠깐! 죄송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제4시합을 시작하겠습니다.
제4시합은 키비토 선수 대 그레이트…


잠시만 기다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1분이면 끝나는 일인데.
비델 씨를 치료할 신비한 악이 있습니다.
뭐라구요? 아…, 알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죠.


아버지,
선두
가져왔어?


팟
야, 왔다!


다행이네!
응! 요즘엔
잘 안 만드는 것
같던데, 3알 정도는
있더라.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


곧 돌아
올게요!
탁


야,
시끄러워!
비델은 지금
안정을
취하고
있다구!
비델,
좋은 약을
가져왔어!


여보세요,
들어가도
됩니까?
똑 똑


암마!
지금은
간식 먹을
때가
아냠마!
이 봐!
이럼 안 돼.
환자한테
이상한 걸
먹이지 마.


비델,
속는 셈치고
이 콩 한 번
먹어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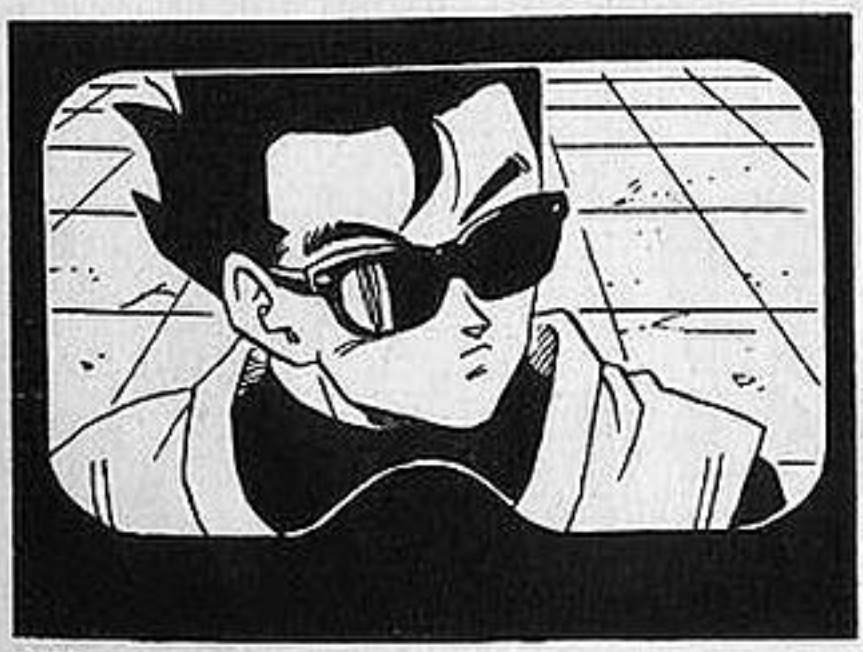
이런 놈 얘길 믿는 거냐!?
비, 비델!!
안 돼!!
응!
네… 네가 주는 거니까…, 분명 신기한 일이 벌어지겠지?
나…, 난 먹을래….
모두들 기다리니 난 이제 갈게.
토, 토해! 비델!!
움직은 우물…
저 빌어먹을 자식…! 다음에 걸리면 작살낼겨…!
!!
타닥
에잇!!


!!
벌떡
……!?
나…!
나았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시작하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키비토 선수와
그레이트 사이어맨 선수의
등장입니다!


저 녀석은…,
손오반
이잖아!?
얼라리여
…!?


그 녀석이다!
사탄 시티에
나타났던
정의의 용사라는
그 녀석…!
그레이트
사이어맨
이라면….
그,
그레이트
사이어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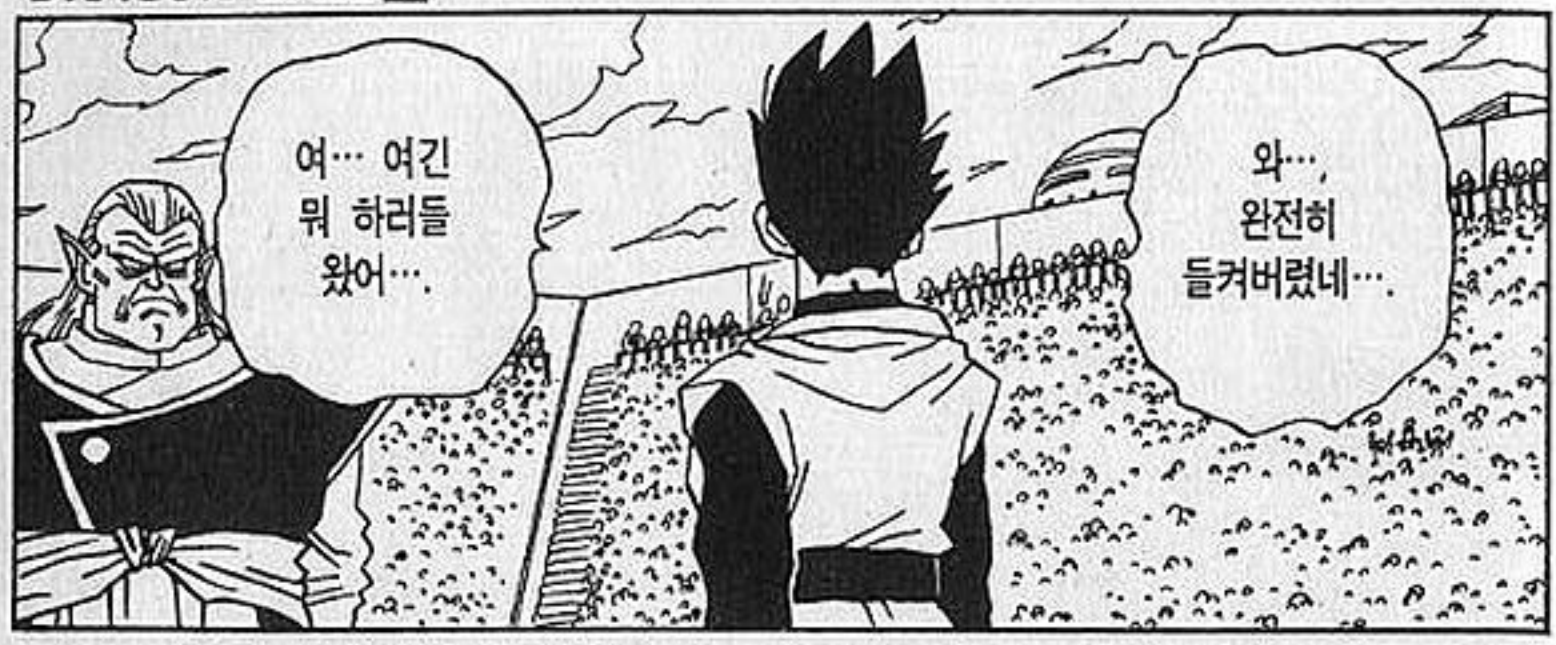



머리
모양이
똑같아.
어디,
잠깐 줘봐.
뭐야!?


왜 몰래 출전할 필요가 있을까?
그게 아니고, 그레이트 사이어맨의 이름을 빌려 오반이 몰래 출전한 거겠지!
정말 오반이네!
이, 이럴 수가! 저 자식이 그레이트 사이어맨이란 말야!?


오반—! 힘 내라!
익!?
그냥 응원해 주자!
하지만, 저가 격투기 같은 걸 할 수나 있을까?
쟨 원래 수줍음이 많잖아!
어차피 질 건 뻔하지만.


우승은 무리겠지만, 1회전이라도 통과해—!!
파이팅, 오반!!
!!!
.....


여… 여긴 뭐 하러들 왔어….
와…, 완전히 들켜버렸네….


씨익!


휙
그래…, 머리에 쓴 두건이 벗겨져서 들킨 거야….
모처럼 멋지게 변장했는데….


슥!


자, 준비됐습니까? 그럼 시합을 시작해 주십시오-!!


멋지다, 오반!!
선글라스 벗은 모습이 더 잘생겼어!
어… 어떡하지…!?


이거…. 곤란한데….
진짜 내 힘을 드러내면
큰 소동이 일어나 학교에도
갈 수 없게 될 거라고
부르마 아줌마도
얘기했는데….
그래서…,
일부러 변장까지
하고 왔잖아….
쳐 억


적당히 내 힘을
죽여가면서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아닌 것
같고….
으…음.




만약의 경우에
진짜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시험해보고
싶다!
초사이어인
이란 걸로
변신해라!

어… 어떻게 초사이어인에 관한 걸 알고 있지…!?

뭐…!?

시작됐군….

그런 건 이제 곧 알게 된다.

우선은 초사이어인의 실력을 보고 싶다.

그… 그리고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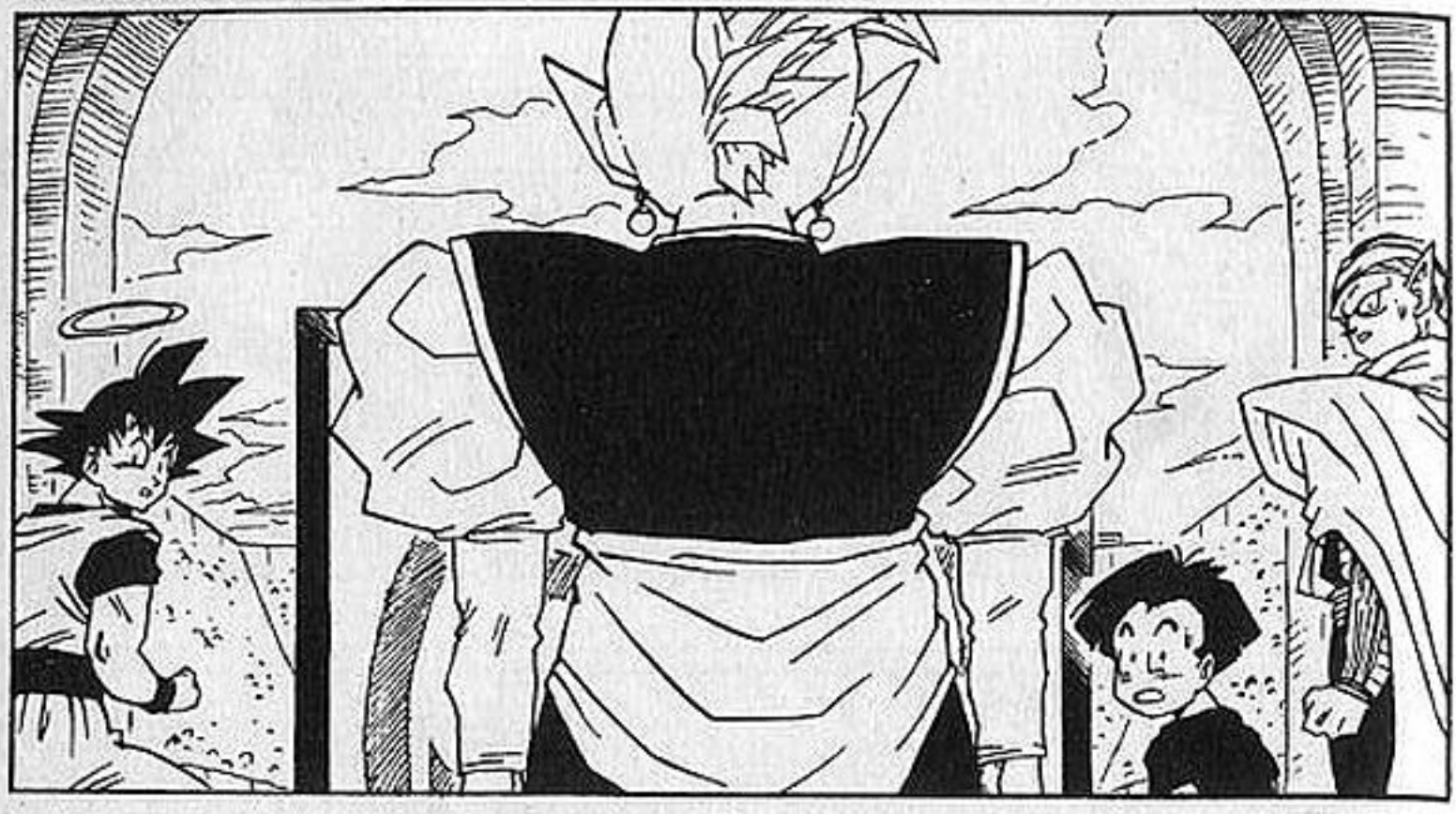
원가 얘길 하는데…!?

척

오반한테 초사이어인이 되라고….

우, 웃기지 마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초사이어인이 되라니….


아니, 쟤들이 아냐.
에너지가 낮아….
저 녀석들은 어때…?
끄덕…
오반!
하… 하지만….
뭐…, 뭔지는 몰라….
왜 그래, 피콜로? 뭔 일 있니?
피콜로 아저씨….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잠시 동안 움직이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미안하지만…,
오반을 좀
이용하겠습니다.


대, 대체
무슨 일이지!?
뭐…
뭐야!?


제길….
하…, 할 수 없군….
자, 어서!
이제 학교는 포기 해야겠는걸 …!
정체도 모르는 녀석의 얘기를 뭐 하러 들어? 빨리 정체나 밝혀라.
이… 이 분은 계왕신님이야….
대계왕님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계왕님들의 신이지….
!!

계왕신….
당신이
계왕신님이야…!?

아-!
계왕님한테
들은 적이
있다….

이거
장난치냐!?

빠빠
| |

자~, 시합은
이미
시작됐는데요….

빨리
시작해!

아-!
이거
뭐야!?

와글
와글
!!





제444화

빼앗긴 에너지!!



오반이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앞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질 테니까 잘 지켜보기나 해, 멍청이들아!

당신들, 입 닥치지 못해!

하지만,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결코 여러분이 나서선 안 됩니다….

아마…, 좀전의 스포포비치와 또 한사람인 야무란 녀석 둘이서 손오반을 습격할 겁니다….

에너지…?

걱정 말아요…. 생명이 위험하진 않을 테니까. 저 두 사람의 목적은 강한 에너지를 뺏는 것에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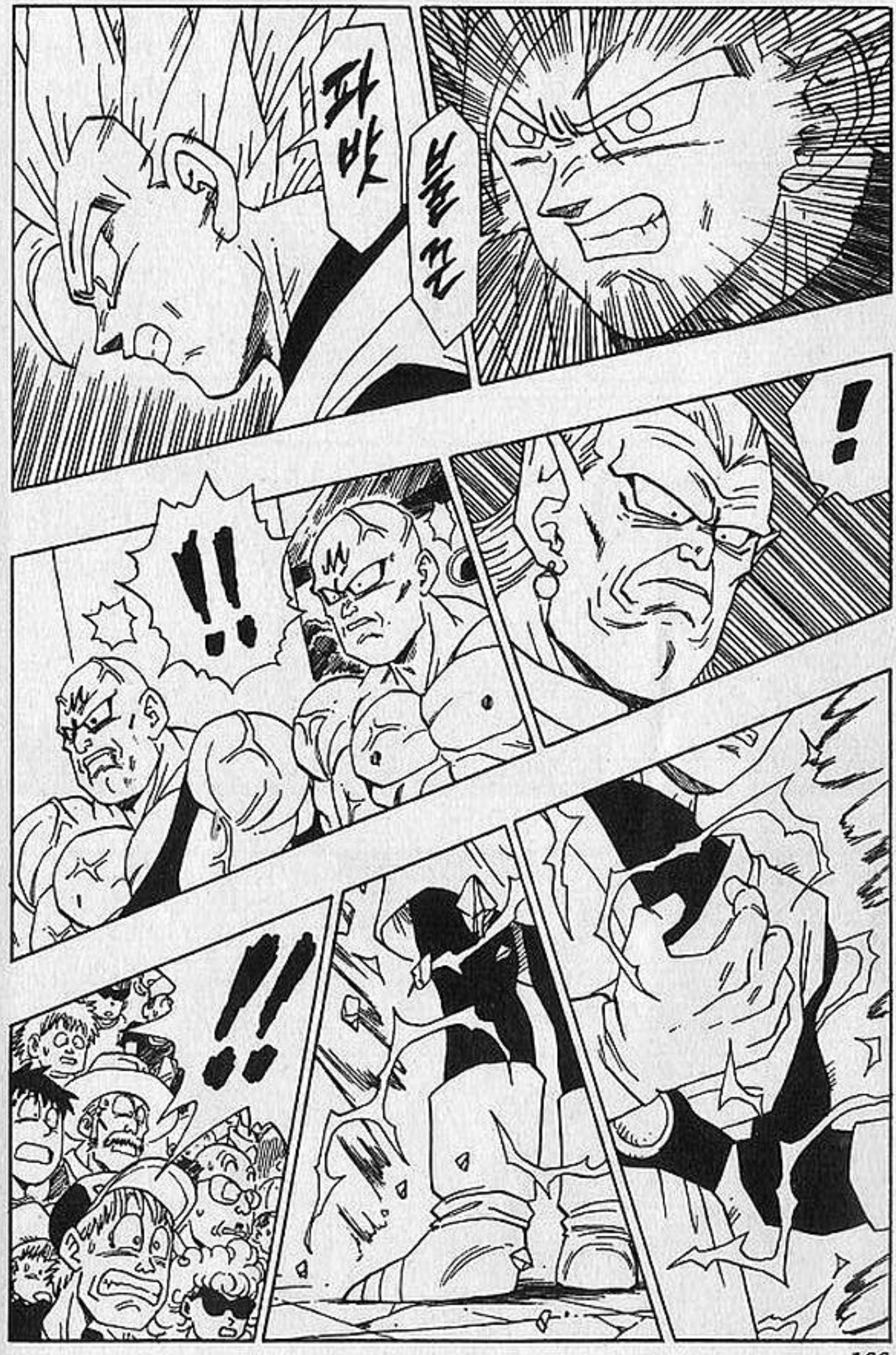
초사이어인…,
거기에 그 벽을
더욱 뛰어넘는
초사이어인까지
변신해 보일까요?

그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벽을
더욱
넘어서…?

뭐야!?

하앗!!


파바
블끈
!
!!
!!!


TH
BE

이럴…
수가… !!

……

오…
오반이
변신했어….

서…,
설마
이런
일이….

FIGHT

이,
이것 좀 봐….

엄청난
에너지야… !!

저
녀석이다!

빙그르르…

이제부터 어떡할까? 이 상태에서 싸울래?

자, 초사이어인이 되었다.

너무 편하게 지내서 훈련까지 게을리했기 때문이야….

흥…! 저 녀석, 셀과 싸울 때보다 형편없이 악해졌군….

사….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파워다….

막는다고…?

아니오, 저 정도로도 상상 이상의 대단한 파워입니다….

과연 저 힘을 막아낼 수 있을지…?

도저히 하계의 인간이라곤 믿어지질 않아!

그럴리가…! 저런 녀석이 금발의 전사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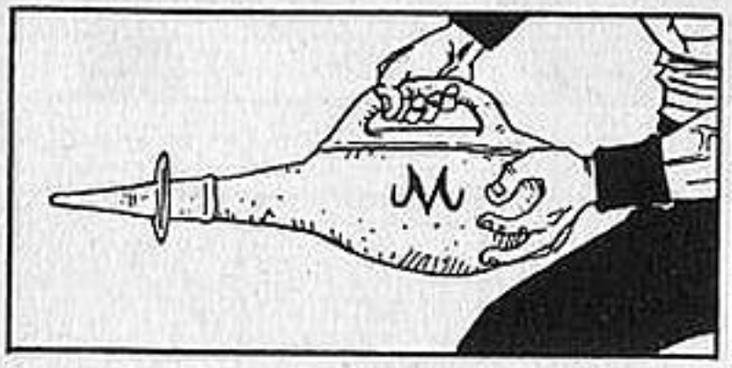
그…, 금발의 전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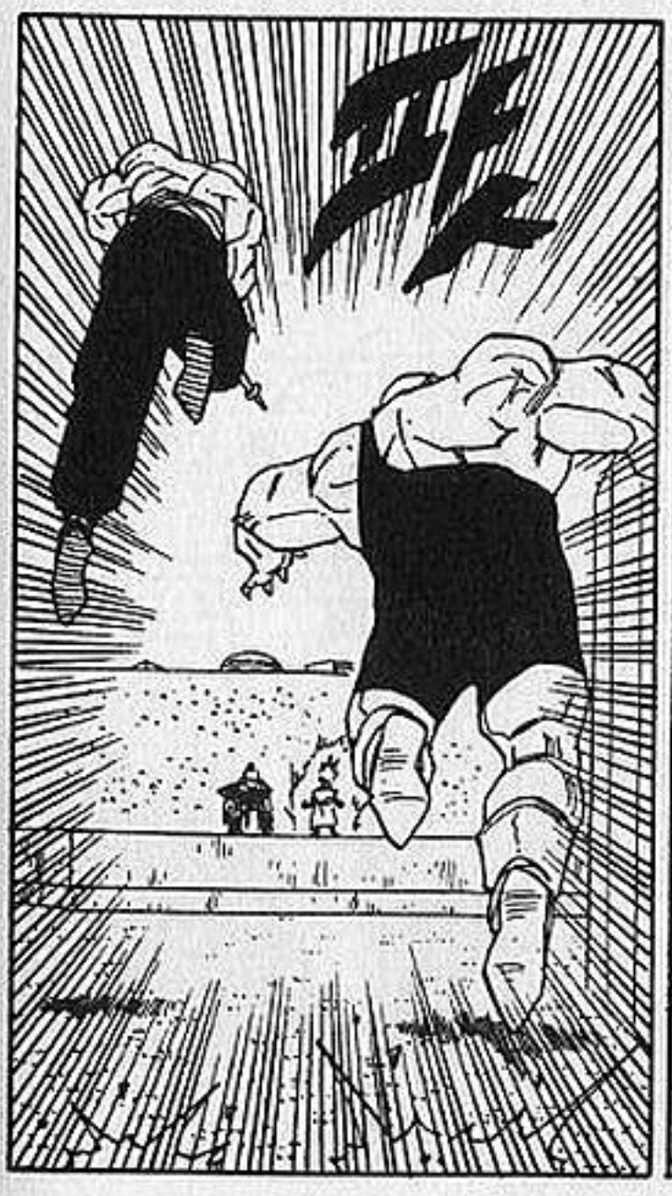
마…, 맞아.

저… 저 모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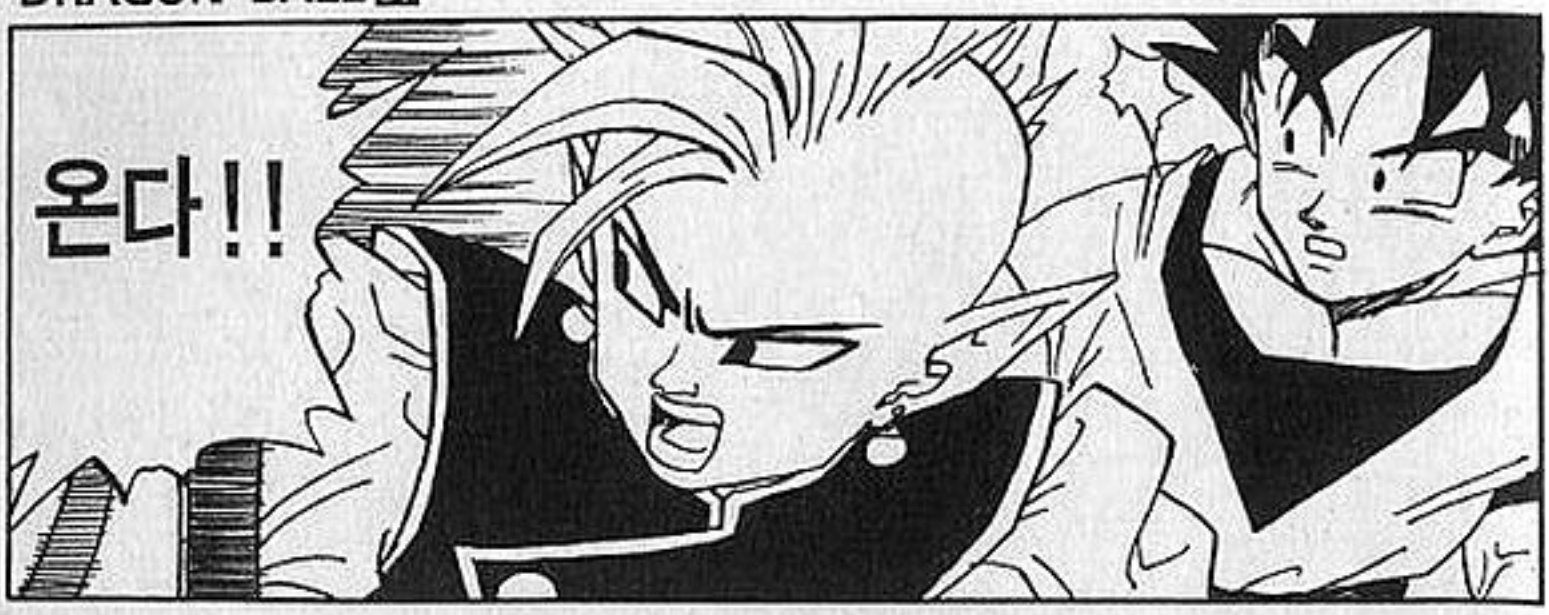

와글
와글…
이… 이 봐, 미스터 사탄이 셀과 싸울 때도 저런 모습을 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
마…, 맞아. 분명 있었지. 똑같은 모습이야….


뭐 해? 빨리 덤비지 않고!
……






으!
저 녀석을 꼭 잡고 있어, 스포포비치!
좋았어—! 저 에너지를 빼앗자….


온다!!


!?
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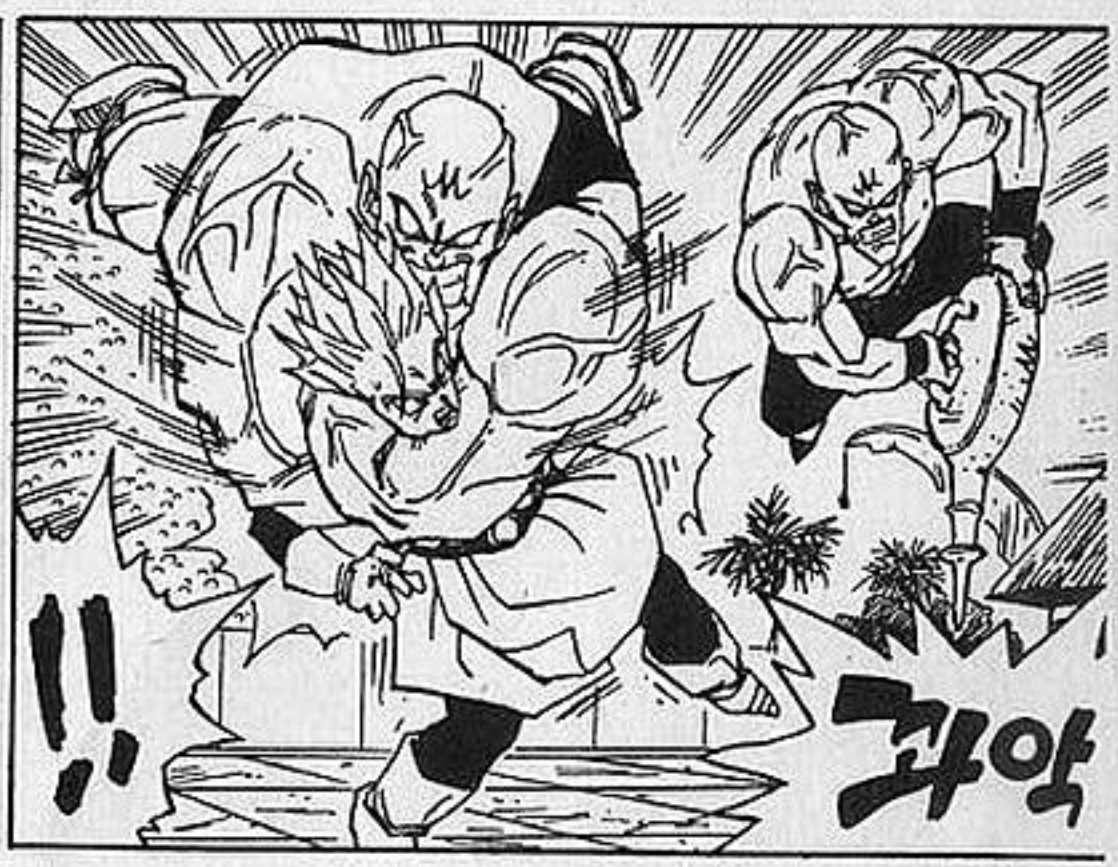

힐끗


네놈들은
뭐냐!?
퍼
엉


핫!!


윽!!
멈췄


노이


!!
과앗


!!
!!
FIGHT
저…
저놈들…!!
내 말대로
가만
있어요!!
쓸데없이
참견하는 놈은
죽여버린다!
알겠지!
쯔우우욱
아…
아악…!


생각보다 간단하네!
하하!
그만 가자!
덜썩
됐다! 이제 에너지를 가득 흡수했어.
파앗
파앗
어…?
어…?
걱정 말아요! 손오반은 키비토가 곧 원상태로 회복시킬 테니까.
아직! 잠시만 더 기다리고 있어요!
아…
아아…

만약 생각이 있으면
나와 함께 추적합시다.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부터
저 두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추적할
겁니다….

오…
오반이…!

뭐…
뭐가 뭔지
모르겠어….

도…
도대체
무슨
일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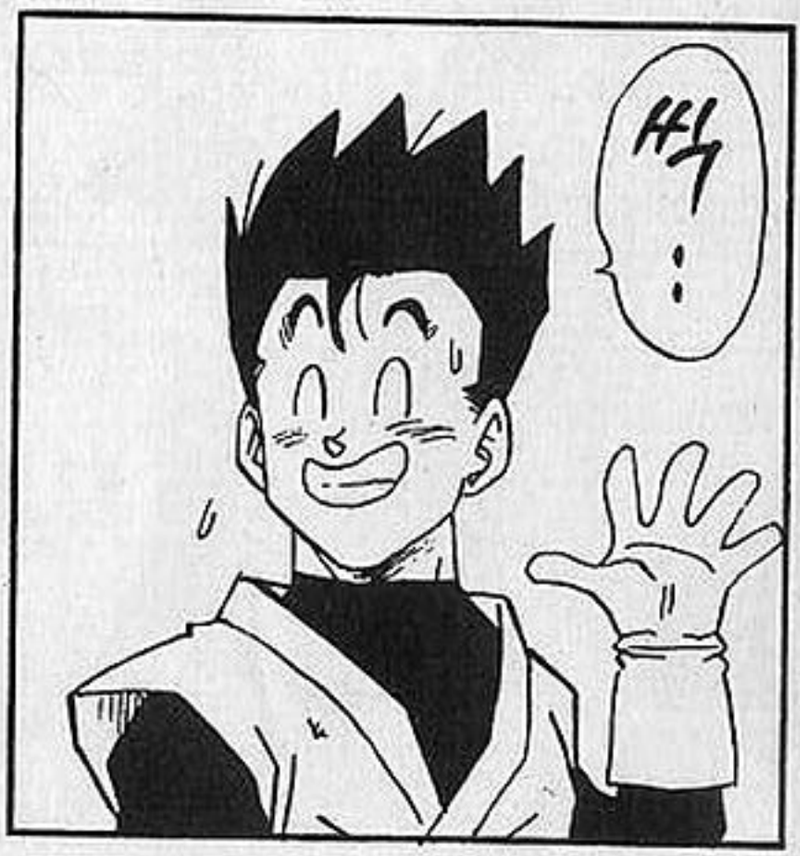
오공…!

어…
어떡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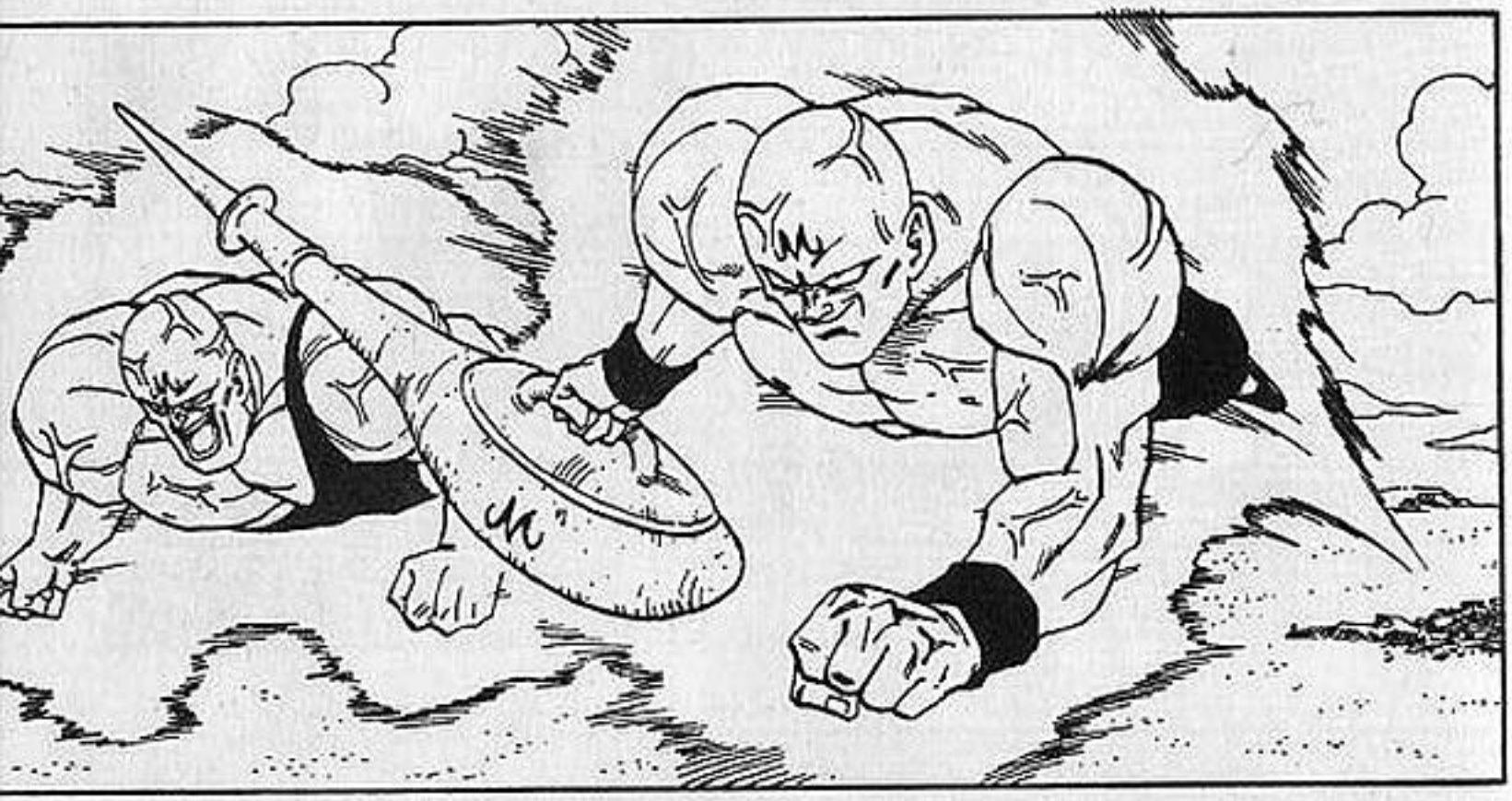
계왕신님이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또한 이런 사건이
벌어진 이유도
반드시 알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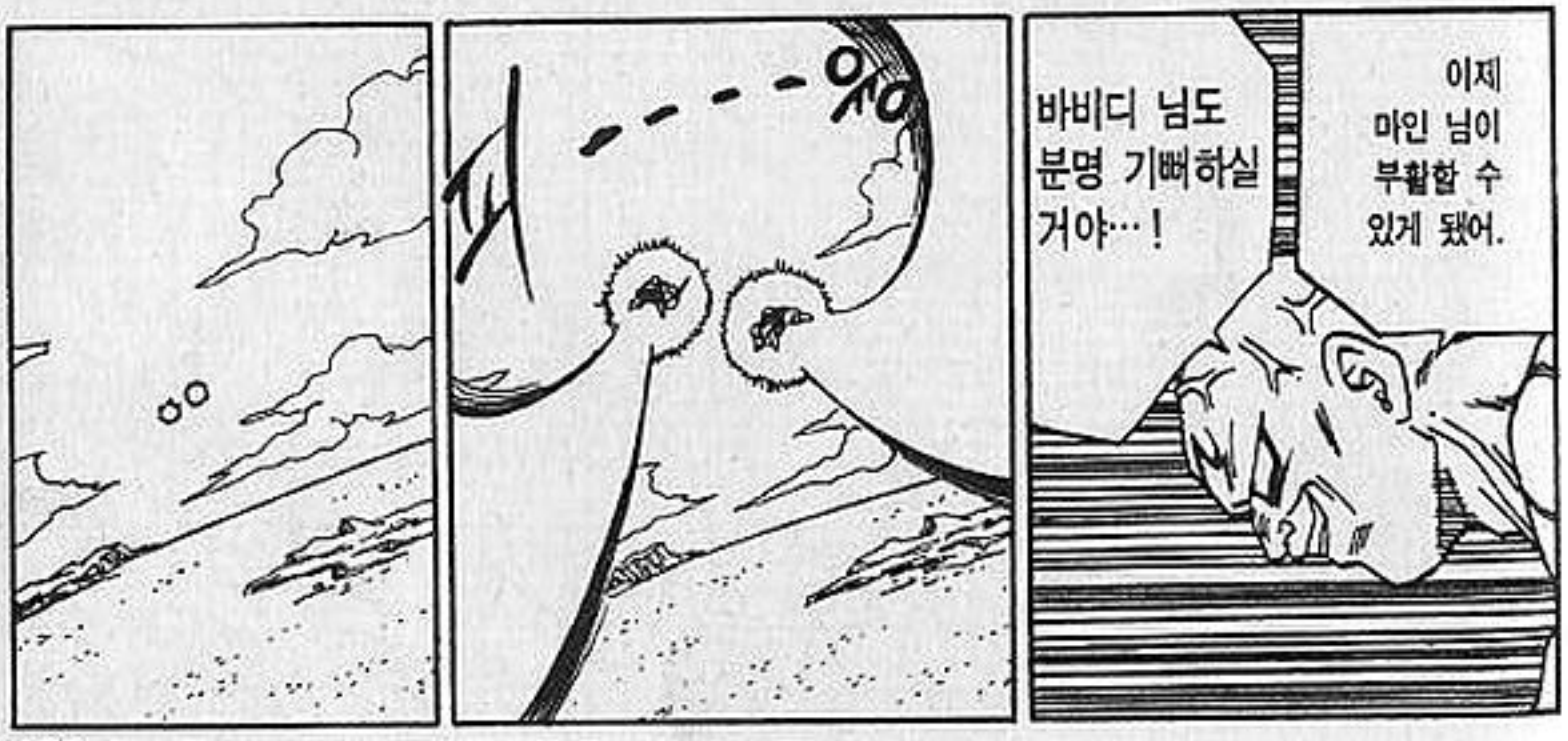
난
따라
가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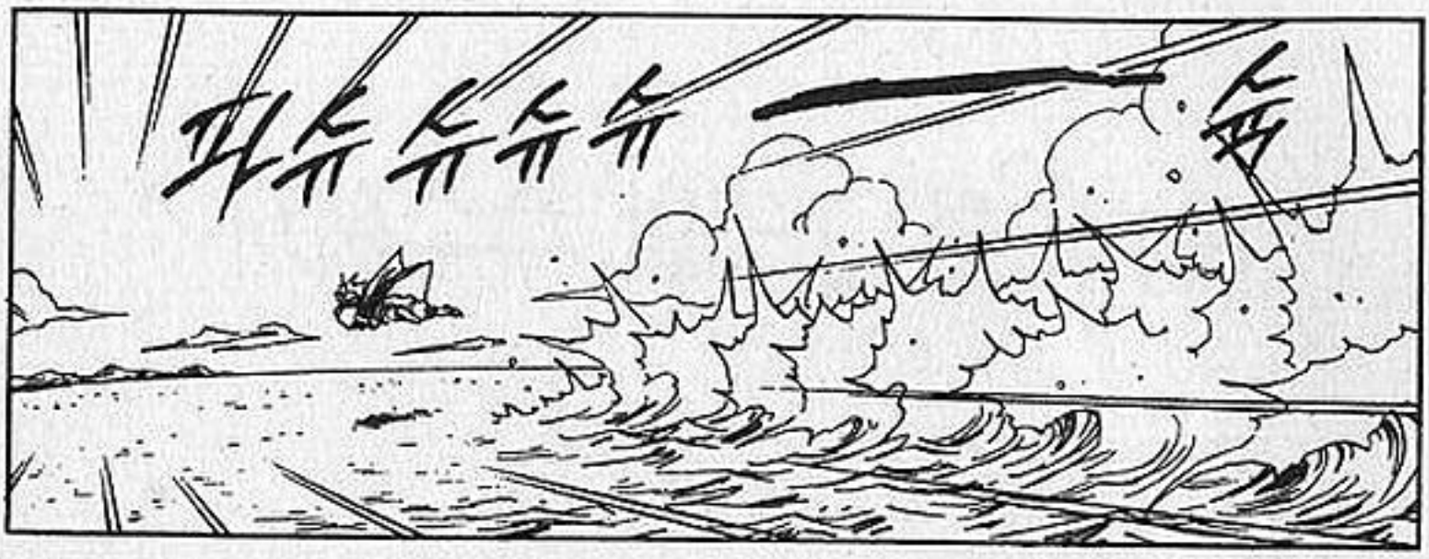
팟


ﾊﾅ!

제445화 가공할 수수께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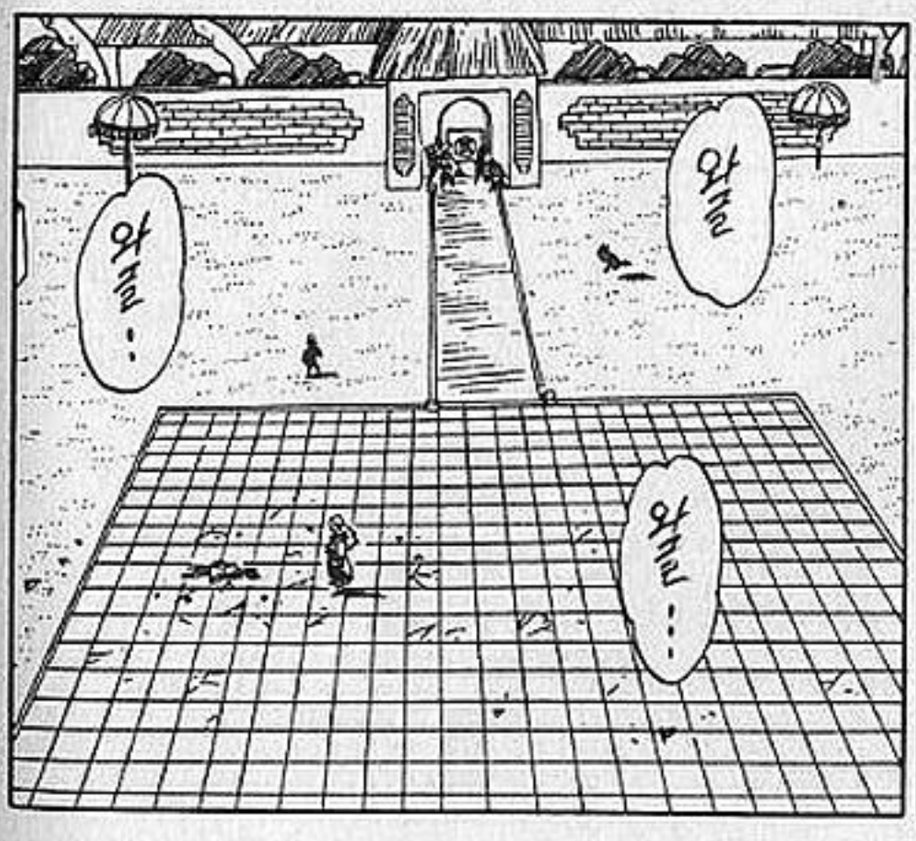





파슈슈슈슈






와글
와글..
와글...


설마…! 방금 전에 그렇게 심한 부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저, 저 봐! 저건…, 비델 씨잖아! 그렇지…?


오반!!


그… 그럼 나도 따라갈까…?
좀 무섭긴 하지만….


그럼 우리의 대결은 어떻게 되는 거지?
웃기지 마라, 카카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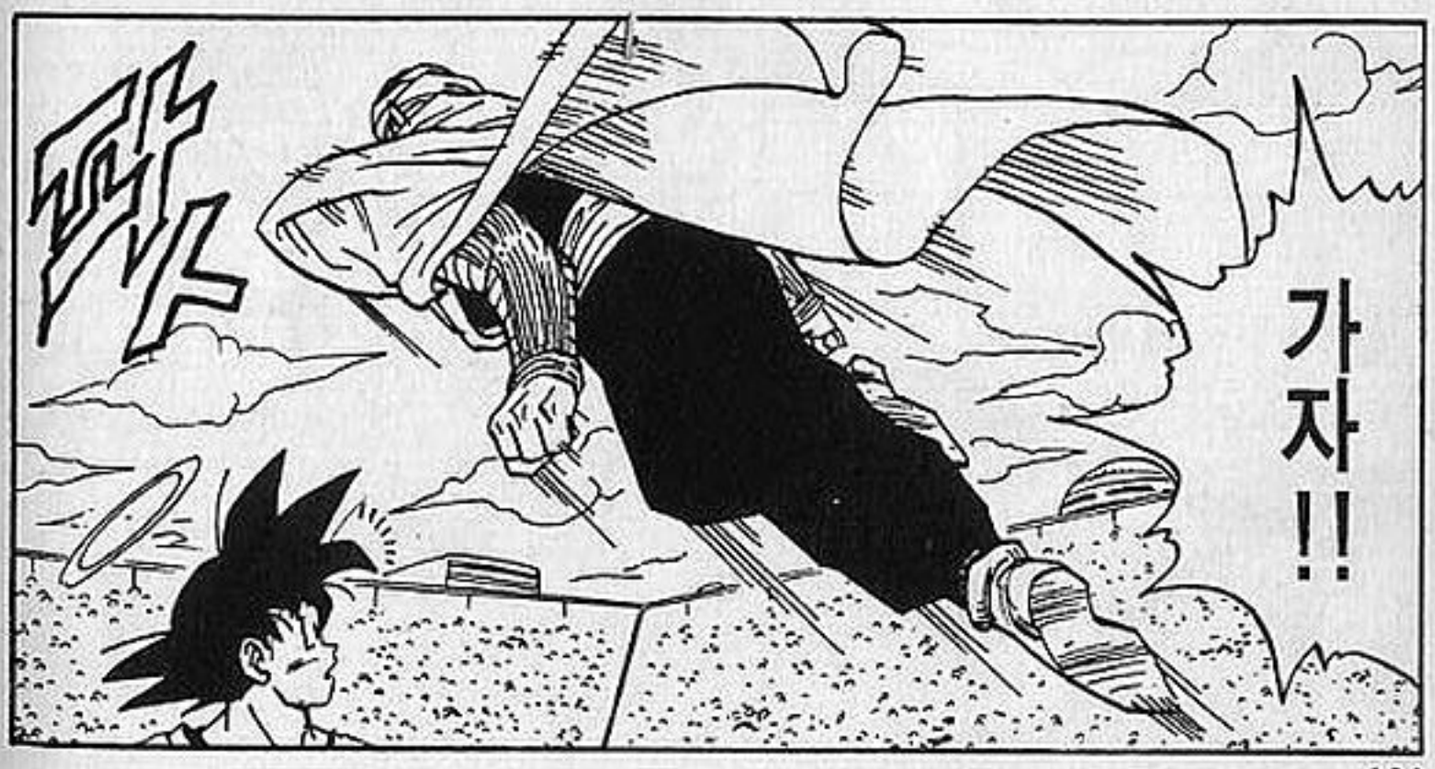

먼저 가고 있어. 아내에게 얘기 좀 하고 갈 테니까.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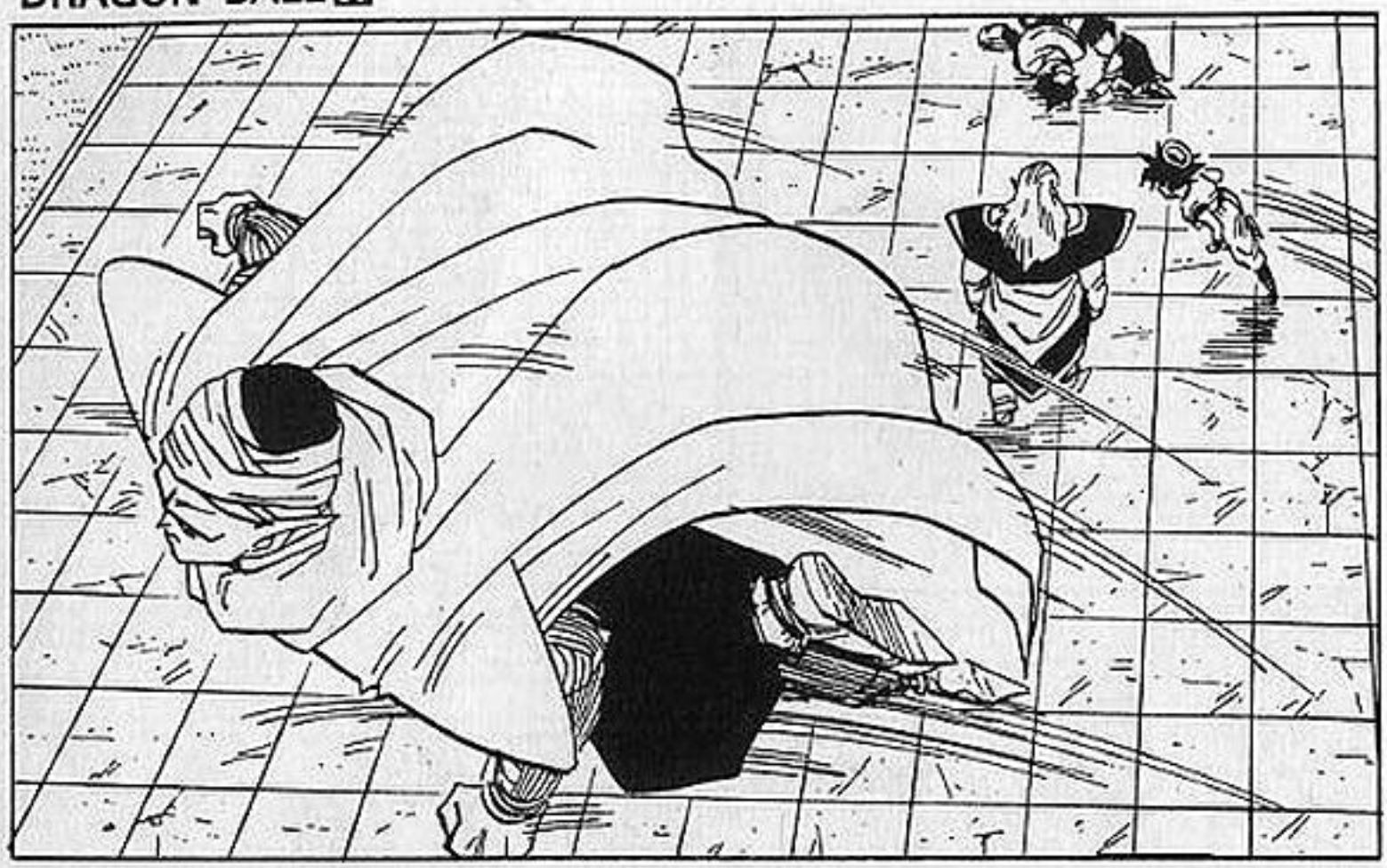

뭐!?
하, 하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
적당히 빠져나갈 생각 마!


너와 1대1 승부를
내고 싶을 뿐이야!
그걸 위해서
이런 엉터리 같은
대회에까지
참가한 거고.
난 계왕신인지
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저런 녀석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럼 너도
따라와.
가서 시합하자.
쳇…!


빌어먹을 자식…!
넌 하루밖에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잖아….
알았다,
알았어!
무술대회가
아니라도 다음에
반드시
시합해줄게.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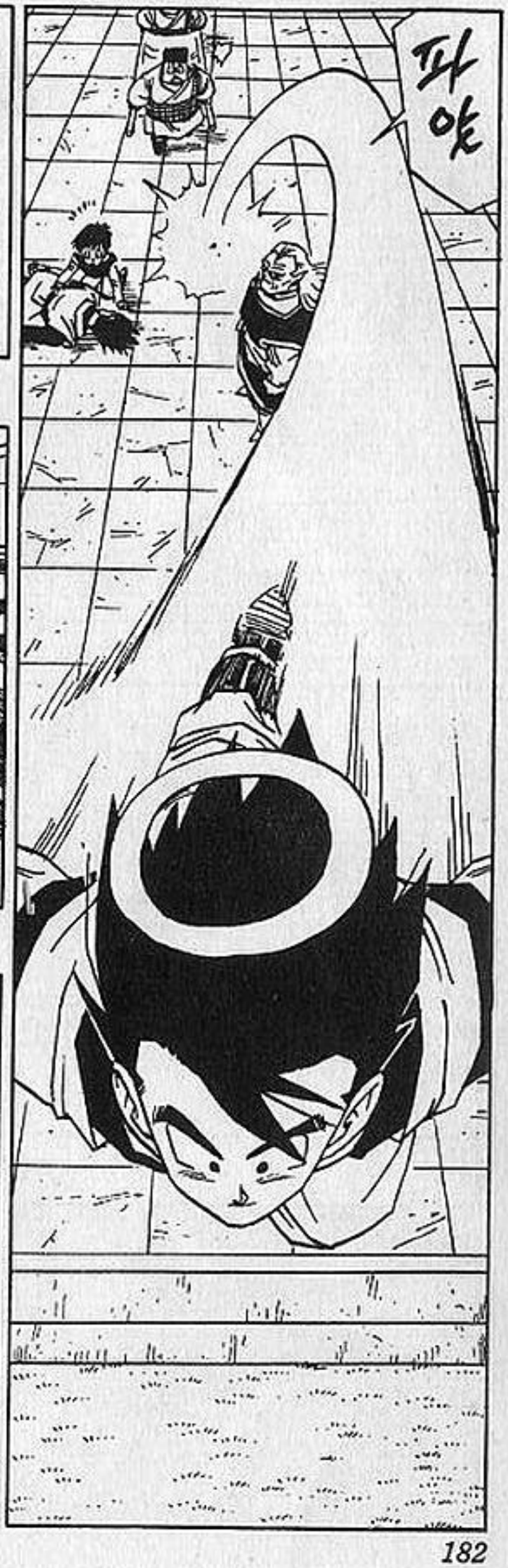



아마 오반도 따라 나서겠지.
걱정 마라! 손오반을 회복시키면 나도 곧 따라간다.


정말 오반을 부탁해도 괜찮을까?




빌어
먹을…


파앗


파
팟


휘이이
진짜 맘에
안 드는
놈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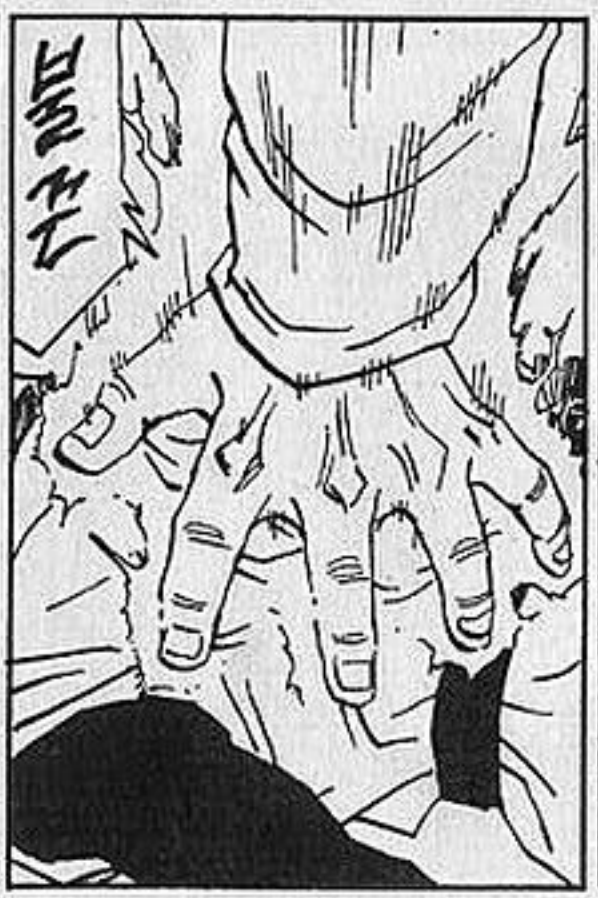

으!
위험할 것 같으면 도망쳐!


그럼 그렇게 해. 죽이지 않게 살살 시합해라.
난 안 갈 거야. 돈도 못버는 일이니까.


잠자코 보고만 있어.
빨리 옮겨야 하니까 비켜주세요. 원가에 찔린 것 같던데….


너도 가보면 알아.
모… 모두들 어디 가는 거야…?




퍽


에잇!!

이 정도로 거대하고 순수한 에너지로 움직이는 인간이 있다니. 녀석들이 군침을 흘릴 만도 하군….

아니…!? 아직도 풀파워 상태가 아니잖아.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파워다….

아빠도 어디론가 날아가버렸어….

형은 괜찮을까…?

뭐야,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오반 형이 진 건가?

벌떡

아…!!

이제 됐다, 손오반….

휴!

가면서 다 얘기해줄 테니까.

같이 가자!

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지…?

오반!

天下一 FIGHT

……

팟

제길…! 아무리 이상한 콩으로 비델을 고쳐줬다고 해도 절대 사귀지 못하게 할 거야!

아니! 또 아까 그 자식과 같이 있네….

와글!

와글!

야! 비델 못봤니?

아…, 비델 아가씨는 저쪽에….

……

부탁이야.

알고 싶은 게 많아….

나도 같이 가도 돼?

뭐?

위험에 처하면 반드시 도망치겠다고 악속해줄 수 있니?

……

응!

FIGHT

방해물은 안 될 거야. 같이 가고 싶을 뿐인데….

안 가는 게 좋을 텐데…. 분명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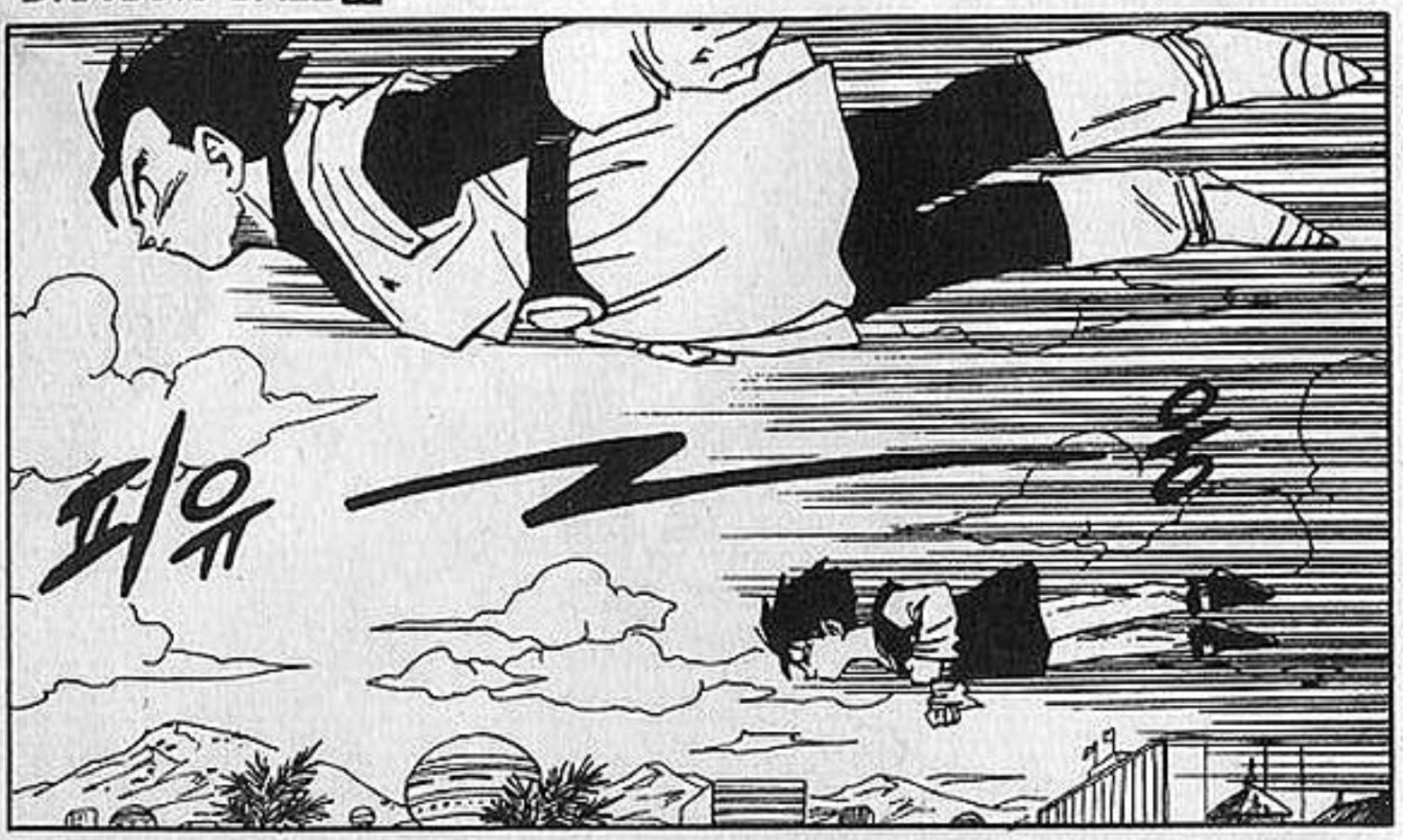
안 된다고 해도 꼭 갈 거야!

가자!

알았다….

팟

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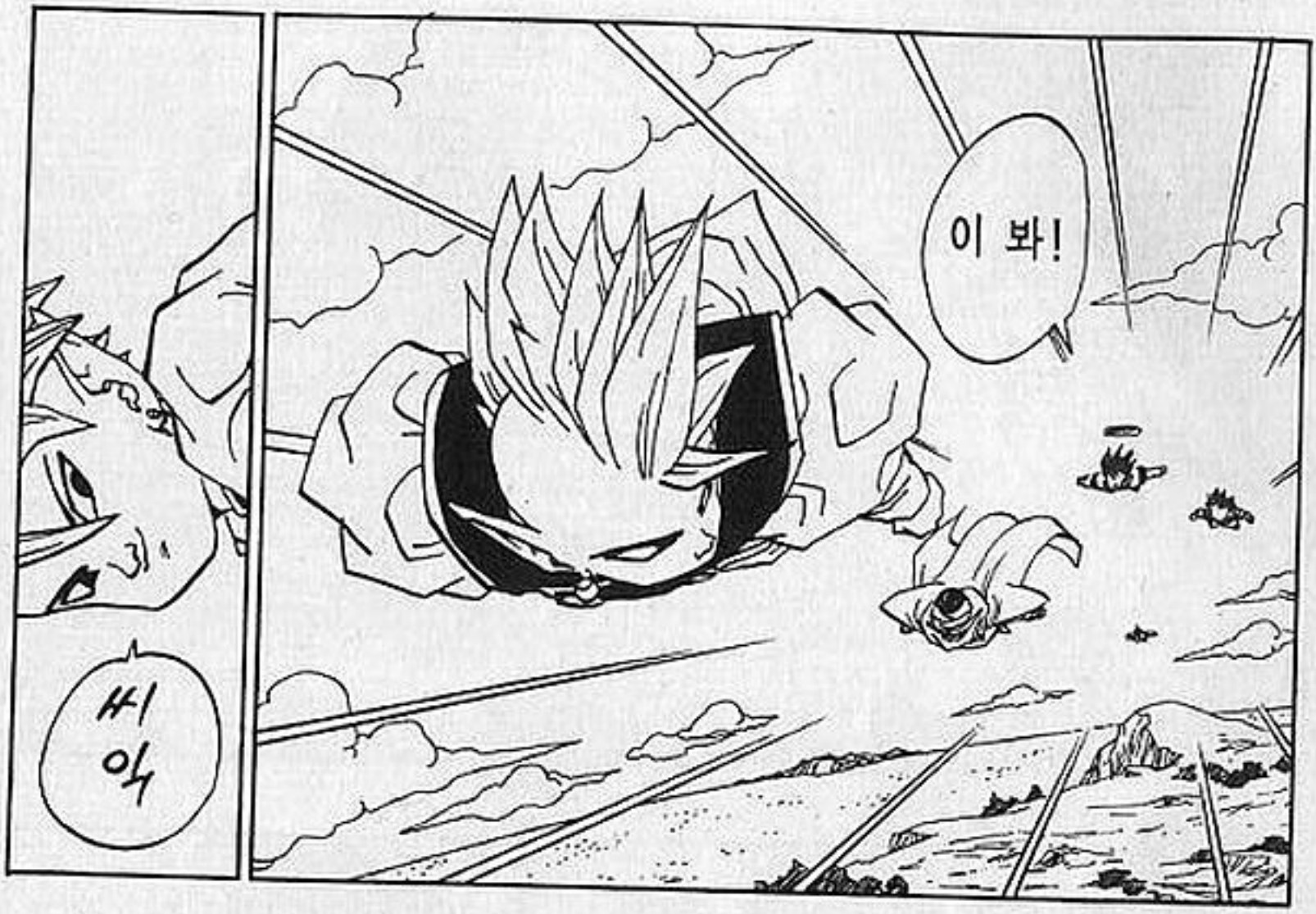

피유


비… 비행 소녀가 돼버린 건가…?
그런 개그, 요즘은 유행 지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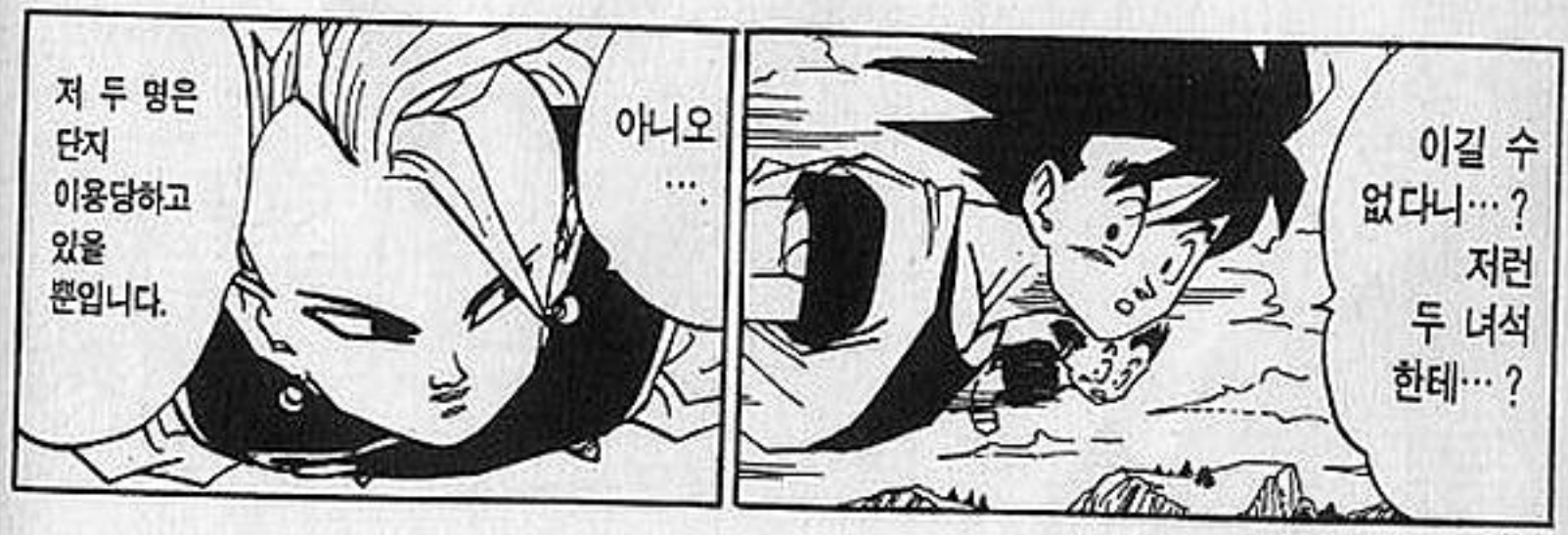

비델이…, 비델이 하늘을 날았어…!
나…, 날아간다.
아까부터 모두들 날이다니고 있습니다….


와글 와글…
와글…
처…, 천하제일 무술대회가….


부…, 불길한 예감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모두들 사라지잖아!
이거 무슨 큰일이 생긴 것 같아….


이 봐!
끼
익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당신들 힘을 빌리지 않으면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역시 왔군요!


저 두 명은 단지 이용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오 ….
이길 수 없다니…? 저런 두 녀석 한테…?

교활한
마도사에게….

지구에선 인류가
거의 두 발로 걷기
시작할 무렵의
아주 옛날…, 우주
저편에는 비비디란
극악한 마도사가
있었습니다….

예.

마…
마도사… !?

마인 부우에겐
이성이나 감정 따윈
전혀 없고, 무조건 파괴와
살인만을 반복하는…,
생물에게 공포를 맛보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괴물입니다….

불과 몇 년만에
몇 백 개의 별이
죽음의 별로
변해버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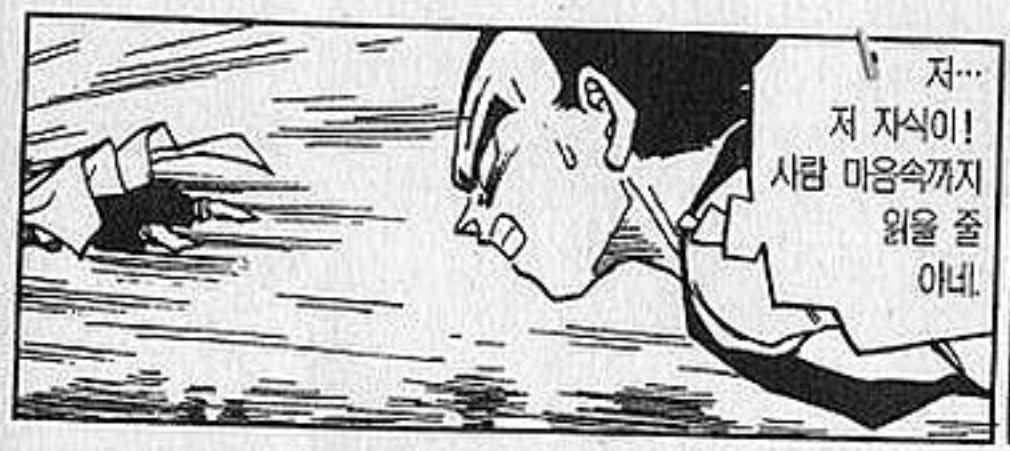
어느날 비비디는
우연히 엄청난
괴물을 만들게
됐습니다….

「부우」라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무서운
마인입니다….


아닙니다, 베지터.
흥…! 그런 일이라면 우리 사이어인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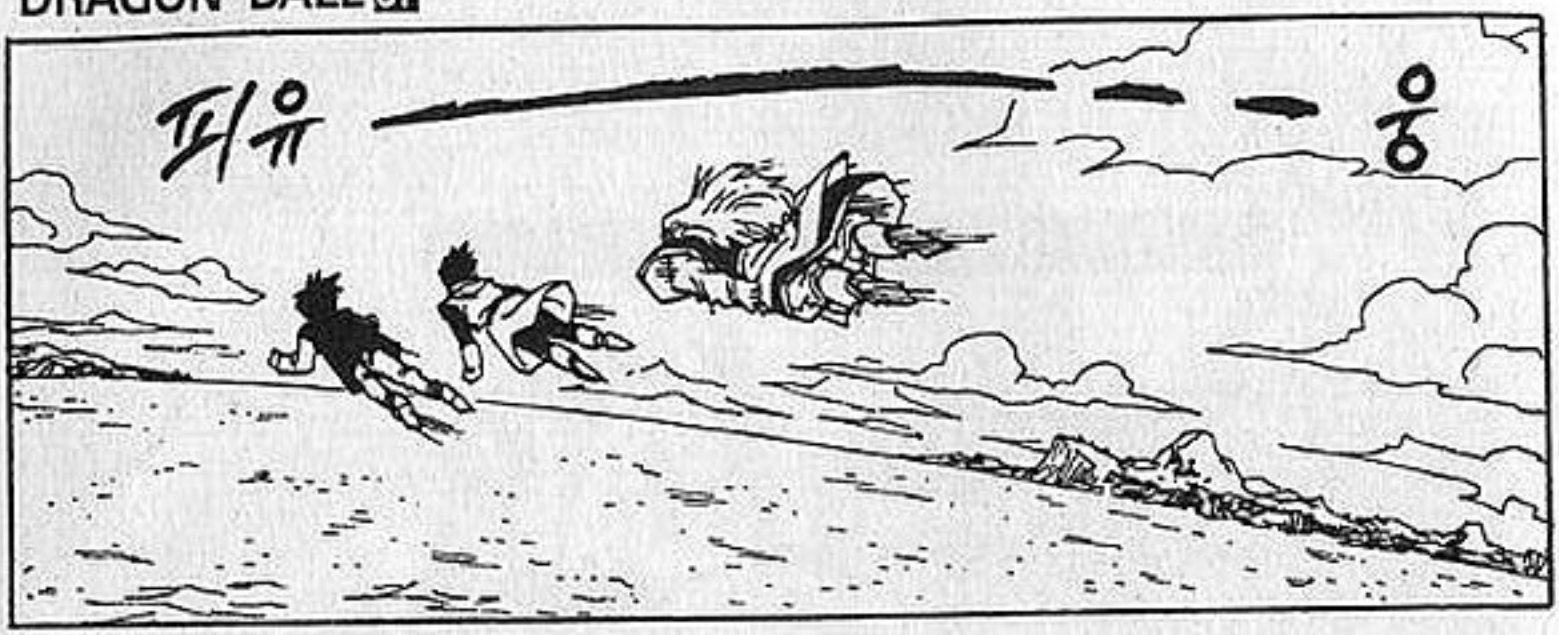

그 계왕신 가운데 4명이나 마인 부우에게 살해당했죠.
당시엔 계왕신이 5명 있었는데, 모두들 프리더 정도는 한 방에 보낼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저… 저 자식이! 사람 마음속까지 읽을 줄 아네.


대… 대단해!
윽~!


마인 부우의 위력은 그걸 만든 비비디조차도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휴식이 필요할 땐 마인 부우를 일시적으로 봉인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을 정도였으니까요….


피유
응


필요없는 자극을 주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지. 또한 그 봉인을 풀 수 있는 자는 마도사 비비디뿐이었고….
마인 부우가 봉인된 구슬은 파괴하지 않고 그냥 두었어….


계왕신님은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 그리고 부우의 봉인을 풀기 전에 비비디를 죽여버렸지. 또한….
비비디는 봉인한 마인 부우를 이 지구에 가져왔지. 다음의 파괴 목표를 지구로 잡았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사악한 마음이 가득한 마도사 바비디가…!!
마도사 비비디에겐 자식이 있었어요…!


……
그러나…, 얼마 전에 무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